AURI-기본-2016-16

시지각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 건축물 등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

Visual Recognition Experiment on Urban Landmarks for Cityscape Planning Improvement

오성훈 Oh, Sunghoon
이종민 Lee, Jongmin
이민경 Lee, Minkyoung

(aur

AURI-기본-2016-16
시지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 건축물 등의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
Visual Recognition Experiment on Urban Landmarks for Cityscape Planning Improvement
지은이: 오성훈, 이종민, 이민경
펴낸이: 김대익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6년 12월 26일, 발행: 2016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http://www.auri.re.kr
가격: 22,000원, ISBN: 979-11-5659-122-1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ㅣ 연구책임	오성훈 연구위원
ㅣ 연구진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ㅣ 연구보조	최현정 행정인턴

ㅣ 내부 심의위원	김상호 기획조정실장 조상규 도시창조연구본부 본부장
ㅣ 외부 심의위원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ㅣ 자문위원	김형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재철 가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영일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경환 공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훈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임주호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도시경관을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경관의 경험자, 즉 관찰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내의 관찰자의 시점을 위주로 도시의 여러 가지 계획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경관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관에 대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법적인 계획으로서의 경관계획이 그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관에 대한 이해와, 보전, 관리 등과 관련한 새로운 계획기법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경관계획이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의 확대와, 관찰자의 연속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경관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립하고 운영해온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관찰자의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시공간과 가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도시경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찰자들의 시점에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계획요소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자 한다.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자의 시지각적 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와 기존 도시설계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관찰자가 인지가능한 시지각 범위 내에서 계획요소들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더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경관계획 관련 법제 및 수립현황

경관계획의 실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관계획의 주요한 요소들이 '관념적' 형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즉 경관계획이 그 대상 지역의 경관주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인지하는 방식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지각의 주체인 일상생활 속의 관찰자의 장면적 시점과 위치를 반드시 상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경관계획은 그러한 경관요소를 '형성'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할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경관관리의 측면에서는 구체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찰자 시점이 경관계획의 근원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특히 경관계획수립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요소에 대한 형식적 규정이 있다. 지침을 표면적으로만 따르자면 경관계획의 내용은 관념적인 경관요소의 분석과 배열, 형성 등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조건이 반영되는 경향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한 경관자원이 도심지 내에 존재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존에 지형 정보만 반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상세한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현실에 보다 근사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기존의 경관계획에 적용된 시지각 관련 내용의 기본 요소는 첫째, 관찰자의 위치로서 조망점, 둘째, 시지각 인지의 대상으로서의 조망대상, 셋째 조망점과 조망대상과의 관계로 인해 규제를 받는 대상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제3장 시지각개념 및 실험설계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실험이 매우 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연구의 틀에 있어 거리를 기준으로 시각적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영상을 주로 시행되고 있는 공간적 인지에 대한 실험에 비해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며, 또한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인지의 변화양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경관영향 요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으로 경관계획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경관자원 중 선적인 자원을 배제하고, 중요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점적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강도의 변화에 대한 측정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선적인 경관자원은 점적인 경관자원에 대한 변화가 측정된다면, 다시 그 결과를 선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선형으로 확장한 결과에 대한 검증은 다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부분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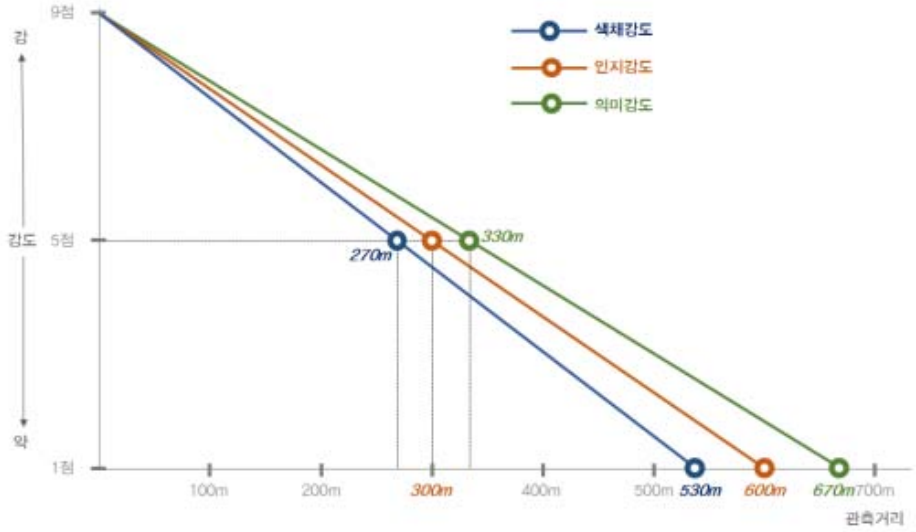
구체적인 실험방법으로는 다수의 피실험자를 다수의 경관자원이 입지한 현장에 인솔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설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명의 인솔자가 10명의 피실험자를 인솔하여, 선정된 경관자원에 접근하여, 주요 접근로에서 경관자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고, 각 관찰지점을 20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실험자들이 인지강도에 대한 설문응답을 하는 것을 여러 경관자원에 대해 반복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실험에 대한 잠정적인 예상결과는 관찰자의 위치변화에 따라,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강도, 의미의 중요도, 색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이 관찰거리가 증가하면서 각각 상이한 gradient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 추정되는 시지각 한계거리를 기존의 조망축 및 경관자원 주변의 계획범위에 적용하여, 기존의 경관계획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관자원의 관점에서는 관찰영역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각적인 보호한계를 명확히 하여, 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의 구체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4장 시지각 특성 실험 및 결과

실험을 통해 경관자원으로부터의 조망거리 변화에 따른 관찰자의 시각적 인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인지의 내용적 분화에 따른 차이, 그리고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각적 인지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관찰지점에서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응답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요인의 측면에서의 실험은 일반적인 시지각적 인지과정에 대한 이론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인데, 실질적인 대상물에 대한 지각과 색채에 대한 지각능력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대상물을 전

체적인 배경속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능력은 인지과정에서 다시 심리적으로 한단계 더 처리되어야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지과정에서의 한계변화가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거리에 따른 경관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색채강도, 인지강도, 의미강도의 거리에 따른 시지각 한계 추정 결과

관측거리에 대한 경관자원의 시지각 한계 추정 결과,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색채에 대한 강도는 1.5점/100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형태에 대한 강도(인지강도)가 1.3점/100m, 의미에 대한 강도(의미강도)가 1.2점/100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색채에 대한 시지각 한계는 270m를 기점으로 인지가 잘 되지 않다가 530m 부터는 인지가 거의 불가능한 시지각 한계로 추정된다. 인지강도와 의미강도에 대한 시지각 한계는 각각 600m, 670m로, 그림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지·색채·의미 강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관측거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은 거리에 따른 시지각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경관자원으로부터의 조망거리 변화에 따른 관찰자의 시각적 인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인지의 내용적 분화에 따른 차이, 그리고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각적 인지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관찰지점에서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응답도 요구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든 시지각적 반응 강도들이 거리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강도와 색채강도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강도가 절대적인 강도는 일정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강도의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리의 증가에 따른 의미강도의 변화는 인지강도와 색채강도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지와 색채에 대한 지각한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처리과정을 거치는 의미의 차원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평가결과의 분포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시지각적 인지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평가는 고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관평가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인 분석결과는 지각-해석-평가의 심리적인 처리과정에 따라서 환경에서 부여된 외부자극에 대한 심리적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적인 적응성을 보여주는 기존 심리학 이론이 일정부분 적용가능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경관인식측면의 전반적인 설명력의 측면에서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경관자원에 대한 대규모의 실증실험 및 분석을 통해 인지·색채·의미 강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관측거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은 거리에 따른 시지각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경관계획에서의 조망점 및 조망권 계획에 있어 조망가능거리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관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판단에 더 부합되는 시각적 한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경관계획 분야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시지각특성, 경관계획,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

차 례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제2장 경관계획 관련 법제 및 수립 현황 ····· 7

1. 경관계획 수립 체계 ····· 7
   1) 경관계획의 법제적 정의 ····· 7
   2) 경관계획의 유형 및 위계 ····· 8
2. 경관계획의 내용 ····· 11
   1) 기본 구조: 경관구조 요소의 설정 ····· 11
   2) 기본 구조: 경관구조 요소에 대한 계획 ····· 14
   3) 경관계획 유형에 따른 고유한 내용 ····· 17
3. 경관계획과 관련 법제의 구조 ····· 23
   1) 관련 법제의 범위 및 유형 ····· 23
   2) 경관계획 관련 법제의 구조 ····· 25
4. 경관계획 수립 현황 ····· 32
   1) 경관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기반 ····· 32
   2)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현황 ····· 32
5. 경관계획 사례의 시지각 관련 내용 ····· 35
   1) 조망가로를 기준으로 한 경관관리권역의 설정: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사례 ····· 37
   2) 주요 조망지점 및 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사례 ····· 42

3) 조망점, 조망권 추출을 위한 가시권 분석의 적용 ····· 45
4) 랜드마크에 대한 가시권 거리와 관리 대상의 한계 ····· 48
5) 역사문화경관 자원 주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규정의 준용 ····· 51
6) '개방지수' 또는 '차폐도'의 적용 ····· 54
7) 시각회랑 개념의 적용 ····· 60
6. 소결: 시지각 특성과 관련한 경관계획의 접근법 ····· 67

제3장 시지각 개념 및 실험설계 ····· 71

1. 공간측면에서의 시지각 개념 ····· 71
2. 인체측면에서의 시지각 개념 ····· 76
3. 시각적 실험의 구성 ····· 80
1) 선행연구 고찰 ····· 80
2) 선행연구 시사점 및 시각적 실험 구성 ····· 84

제4장 시지각특성 실험 및 결과 ····· 87

1. 실험의 개요 ····· 87
1) 실험의 목적 ····· 87
2) 실험 방법 ····· 87
3) 피실험자 특성 ····· 89
4) 대상 경관자원 ····· 90
2. 실험조사 결과 ····· 91
1)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의 평균점수 변화 ····· 91
2)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인지강도 변화 ····· 97
3)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색채강도 변화 ····· 99
4)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의미강도 변화 ····· 101
5)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경관평가 변화 ····· 103
3. 통계적 분석 ····· 105
1) 분석개요 ····· 105
2) 인지강도 ····· 106
3) 색채강도 ····· 108
4) 의미강도 ····· 110

5) 경관평가 ····· 112
4. 소결 ····· 114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 117

1. 시사점 ····· 117
2. 결론 ····· 119

참고문헌 ····· 121

부록 1.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자의 인지강도 실험조사 ····· 129

부록 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축 관리방안 ····· 189

표차례

[표 2-1] 경관계획의 법제적 유형과 위계적 관계 ····· 9
[표 2-2] 계획 유형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 ····· 12
[표 2-3] 경관계획의 기본사항 및 주요내용 ····· 14
[표 2-4] 특정경관계획에서의 경관구조 요소에 대한 계획 및 주요내용 ····· 15
[표 2-5]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 16
[표 2-6] 시·군경관계획의 건축물 대상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 ····· 19
[표 2-7] 경관계획 관련 유형별 법제와 조항 ····· 24
[표 2-8]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 30
[표 2-9] 경관체크리스트 (도로사업용) ····· 31
[표 2-10] 경관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 33
[표 2-11] 자치단체별 경관계획 수립 사례 ····· 34
[표 3-1] 시지각 거리에 따른 경관요소의 특징 ····· 78
[표 3-2] D/H비에 따른 공간의 인지 ····· 79
[표 4-1] 피실험자의 일반적 특성 ····· 89
[표 4-2] 경관자원별 응답 수 ····· 90
[표 4-3] 인지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 91
[표 4-4] 색채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 92
[표 4-5] 의미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 93
[표 4-6] 경관평가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 94
[표 4-7]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 평균점수 변화 ····· 95
[표 4-8]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 96
[표 4-9]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평균점수 변화 ····· 97

[표 4-10]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98
[표 4-11]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평균점수 변화 ·····99
[표 4-12]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100
[표 4-13]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평균점수 변화 ·····101
[표 4-14]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102
[표 4-15]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평균점수 변화 ·····103
[표 4-16]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104
[표 4-17] 통계분석의 변수 ·····105
[표 4-18] 인지강도 상관분석 결과 ·····106
[표 4-19] 인지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107
[표 4-20] 색채강도 상관분석 결과 ·····108
[표 4-21] 색채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109
[표 4-22] 의미강도 상관분석 결과 ·····110
[표 4-23] 의미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111
[표 4-24] 경관평가의 상관계수 ·····112
[표 4-25] 경관평가 다중회귀분석 결과 ·····113

그림차례

[그림 2-1] 경관계획 관련 법제 및 구조 ····· 27
[그림 2-2] 캐나다 밴쿠버시 조망보호 가이드라인 예시 ····· 35
[그림 2-3] 서울시 추진 경관사업 부분 예시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p.158) ····· 36
[그림 2-4] 북한산 주변 경관중점관리구역도 및 3D 시뮬레이션 ····· 38
[그림 2-5] 내사산축/외사산축 경관기본관리구역 범위설정기준 ····· 39
[그림 2-6] 오스틴시 (Austin)의 조망통로 (view corridor) 개념도 ····· 39
[그림 2-7] 용마·아차산 경관중점관리구역 ····· 40
[그림 2-8] 용마·아차산 경관중점관리구역 조망가로 상의 조망 (원경 소실점에 아차산 일부) ··· 40
[그림 2-9] 경관요소 유형별 경관관리구역 설정의 기준 ····· 42
[그림 2-10]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부분) ····· 43
[그림 2-11]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녹지축 경관관리 주요 조망점과 조망대상 ····· 44
[그림 2-12] 조망점 가시권 분석 사례 ····· 46
[그림 2-13] 주요 조망점인 전의교차로에서 조망대상인 운주산(좌) 방향의 경관 ····· 47
[그림 2-14]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우방타워 가시권 분석 및 500미터 조망권 영역 ····· 48
[그림 2-15] 계산성당 (위), 오페라하우스 (아래)의 조망 관련 현장 사진 ····· 49
[그림 2-16] 대구광역시 조망축 및 조망대상 (부분) ····· 50
[그림 2-17] 대구광역시 가시권 분석 (부분) ····· 50
[그림 2-18] 대구광역시 조망축 계획안 예시 ····· 50
[그림 2-19]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구역 설정 개념 ····· 51
[그림 2-20]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구역의 설정의 실제 ····· 51
[그림 2-21] 대구 "원도심의 역사성 회복 및 중심성 강화" 계획 내용 ····· 52
[그림 2-22] 문화재 내부에서 외부 시가지의 경관을 관리하는 경우 ····· 53
[그림 2-23] 문화재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 높이 규제 기준의 개념도 ····· 53

[그림 2-24]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에 대한 기준 ·····53
[그림 2-2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 경관단위' ·····55
[그림 2-26] 제주시 경관관리지침 적용의 구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을목지회관 건축의 경우 ·56
[그림 2-27] 개방지수 '50' 기준 적용 건축물 형태 ·····57
[그림 2-28]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조망점 ·····58
[그림 2-29] 통경축 및 기준선(좌)와 경관축 및 기준선 설정의 개념도 ·····59
[그림 2-30] 차폐도 산정공식 ·····59
[그림 2-31] 조망점 및 조망축 설정 ·····61
[그림 2-32] 문화전당권 개발사업과 경관관리권역 ·····61
[그림 2-33] 팔달산 서장대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바라본 경관 변화 ·····62
[그림 2-34] 역사적 조망점 계획도 ·····62
[그림 2-35] 장안문길에서 장안문 방향 경관관리방안 ·····63
[그림 2-36] 서장대(조망점)에서 각 조망대상을 바라본 시각회랑의 관리방안 ·····63
[그림 2-37] 풍남문 조망축 및 뷰 콘, 코리더 계획도 ·····64
[그림 2-38] 풍남문 조망점 시뮬레이션 및 실제 사진 비교 ·····65
[그림 3-1] 카밀로 지떼의 건축적 벽면의 배치에 관한 연구 ·····72
[그림 3-2] 고든 쿨렌의 연속적 장면 ·····73
[그림 3-3] 시각적 호응을 고려한 도시공간 ·····73
[그림 3-4] 도시공간 내 관찰자의 시각에 따른 경관 효과 ·····75
[그림 3-5] 시지각의 한계; 수평, 수직, 대각선으로 측정이 가능 ·····76
[그림 3-6] 이동속도에 따른 시지각의 범위 ·····77
[그림 3-7] 대형 영상장비를 활용한 시각인지 실험 ·····81
[그림 3-8] 가시거리 1.6km로 가정한 가시영역도면 ·····82
[그림 4-1]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색채·의미·경관평가의 평균 변화 ·····95
[그림 4-2]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색채·의미·경관평가의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96
[그림 4-3]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평균점수 변화 ·····97
[그림 4-4]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98
[그림 4-5]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평균점수 변화 ·····99
[그림 4-6]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100

[그림 4-7]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평균점수 변화 ·····101
[그림 4-8]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102
[그림 4-9]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평균점수 변화 ·····103
[그림 4-10]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104
[그림 4-11] 색채강도, 인지강도, 의미강도의 거리에 따른 시지각 한계 추정 결과 ·····115

C·H·A·P·T·E·R·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도입되어 수립되고 있는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을 향유하는 인간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측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수립된 경관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에서 다루어온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획체계상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경관의 측면을 다룬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 가로에서 관찰자의 시점에서 경관을 조성하기보다는 거시적인 도시구조에서의 조망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개별 관찰자들이 연속적인 시지각적 경험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등 경관계획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계획특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논의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경관을 향유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경관의 경험자, 즉 관찰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내의 관찰자의 시점을 위주로 도시의 여러 가지 계획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경관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관에 대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법적인 계획으로서의 경관계획

이 그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경관에 대한 이해와, 보전, 관리 등과 관련한 새로운 계획기법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인 개선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경관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개념 중 하나는 관문경관인데, 특정지역이나 도시에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또는 항만 등에서 주요 청사까지 이르는 진입가도의 포장과 가로변 미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관계획인데, 이처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간선가로에 대한 주요 경관축 계획은 일상적인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특정 대상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개념으로 판단된다. 경관계획이 좀더 도시공간 전반에 걸쳐 경관의 가치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대상이나 영향력이 특정지점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도시공간의 전반적인 매력을 제고함으로써 이른바 도시의 경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가로의 관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경관계획이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와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관을 향유하는 관찰자인 도시의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연속적인 시각적 경험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각적인 경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경험에 대한 실증적 근거들이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경관의 시각적 경험은 그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하나의 장소나, 조형물 등에 한정된 시각적 경험은 도시의 경관요소 중의 하나에 국한된 것이므로, 전반적인 경관관리의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연속적인 시각적 체험을 어떻게 도시의 전반적인 영역속에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경관계획은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과는 차별적인 접근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계획이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의 확대와, 관찰자의 연속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경관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립하고 운영해온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관찰자의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시공간과 가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도시경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찰자들의 시점에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계획요소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자 한다.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자의 시지각적 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와 기존 도시설계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관찰자가 인지가능한 시지각 범위 내에서 계획요소들을 정비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더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도시경관 이론에서 시각적 요소를 다룬 학자들을 살펴보면 고든쿨렌, 요시노부 아시하라, 폴슈프라이레겐, 시노하라 오사무 등이 있다. 국내의 시지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우림(2005)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경관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국내/외 경관과련 연구 동향과 인간의 시지각 특성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였고, 시거리와 대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오성훈 외(2003)는 『관찰자 기준의 도심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연구』에서 시지각 이론 및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찰자의 시지각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덕수궁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높이 규제 방식과 관찰자 기준 높이 규제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관찰자 시점을 고려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엄소연(2011)은 『시선축과 시지각 원리에 근거한 가로공간 특성 연구』에서 가로공간에서 간판을 중심으로 시지각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시선축을 수평축, 수직축, 깊이축으로 구분했고, 인간의 시지각적 특성을 동선, 시거리, 시각, 시점, 중첩으로 나뉘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시지각 원리에 근거한 공간특성을 조화, 통일, 균형, 비례, 연속, 강조의 원리 등으로 구분해 공간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경관에서의 시각적 원리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 가로공간에 대한 미학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도시설계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및 도시경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해양부) 등

정책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또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송대호 외(2006) 『도시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가로폭원의 차이에 따른 경관선호 변화를 연구하였고, 표선영(2014)은 석사 학위논문 『보행활동이 활성화된 상업가로의 환경 인지 특성 분석』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가로폭원의 비에 따른 시각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수민(2011)은 석사 학위논문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계획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도로폭과 건축물 높이의 비례에 따른 시각효과와 사람이 느끼는 감각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경관에서 조망은 특정한 곳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조망의 위치인 조망점을 선정하는 문제가 경관계획의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조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망대상과 조망점과의 거리를 고려해야 하고, 주변건물과의 조화, 차폐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조망점 선정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강태현 외(2013)의 경관분석 조망점 선정을 위한 GIS의 적용방안, 김자은 외(2013)의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연속적 경관분석과 건축물 높이 규제방안, 윤영미 외(2009)의 조망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준거설정 연구 등이 있다. 김자은 외(2013)의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연속적 경관분석과 건축물 높이 규제 방안』에서는 조망점 이동에 따른 시곡면 분석을 통한 조망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망점 이동에 따른 조망점 가시빈도 및 스카이라인 변화, 조망대상 높이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윤영미 외(2009)의 『조망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준거설정연구』에서는 진주성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건축물 높이 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조망점 주변 높이제한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앙각과 부각에 의한 시각적 검토를 통해 현재 조망점을 분석하였다. 강태현 외(2013)의 『경관분석 조망점 선정을 위한 GIS의 적용방안』에서는 일반적인 조망점 선정 방법과 GIS를 이용한 조망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GIS를 이용한 설정기준을 보면 주요도로 교차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시설,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인접한 교량과 육교, 하천 또는 산의 보행전용로, 역사문화공간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인간의 시지각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주로 시야원추설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고, 게슈탈트 이론이 언급되었다. 시지각특성과 경관선호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서주완 외(2011) 『도시경관의 시지각

특성과 선호도와의 관계성 분석』, 한명호(2015) 『거리경관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의 평가구조』, 송대호 외(2006) 『도시가로경관의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최임주(2003) 『CG Simulation을 이용한 가로경관의 시지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의 시각적 선호도를 고려하긴 했지만 시점과 시거리의 변화에 의한 선호도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망점 선정과 시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시점과 시거리 관계를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점과 조망대상의 위치 관계는 시각의 앙각, 부각을 기준으로 시각의 위치에 변화에 따른 시각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시거리와 시점의 위치 변화에 따른 경관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자의 시점과 인지를 고려한 경관계획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찰자 시각과 공간구성에 관련된 기존이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찰자의 시지각 특성, 인지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의 경관계획에서 관찰자의 시지각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관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공간 중 조망점과 조망대상이 되는 경관자원을 잇는 공간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경관계획 중 관찰자의 시지각적 한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문헌조사 및 법·제도 검토

-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동향 분석
- 경관계획에 관련된 제도 및 기존 계획에 대한 검토
- 경관계획에 관련된 해외사례 및 정책·제도 조사

□ 실증실험

- 실제 시지각 한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실험 실시
-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경관계획에의 개선방향 제시

□ 현장조사

- 실제 계획된 대상지의 방문 및 현장조사
- 계획요소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분석

□ 전문가 자문

- 다양한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경관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당 전문가 자문회의 수시 개최

제2장 경관계획 관련 법제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수립 체계
2. 경관계획의 내용
3. 경관계획과 관련 법제의 구조
4. 경관계획 수립 현황
5. 경관계획 사례 중 시지각 관련 내용

1. 경관계획 수립 체계

1) 경관계획의 법제적 정의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1]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법제에서 서술하는 광의의 정의는 아름다운 경관의 이상적 목표로서의 계획 내용뿐만 아니라, 경관을 직접 형성하는 사업의 실행방법의 기획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하위 행정규칙인 경관계획수립지침 제2절 1-2-1항에 아래와 같이 상술되어 있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제2절 1-2-1항]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이세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제2절 1-2-3항)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1) 경관법 제7조 제1항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 (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정의에 의한다.

이에 경관계획의 내용[2]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구조의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3]의 관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을 경관 형성 및 관리의 목표인 '기준으로서의 계획'과 '실행 수단 및 이행 체계'로서의 계획으로 구분한다면, 본 연구의 목적 상, 이 글에서 검토하는 바는 실행체계를 보다는 '기준으로서의 계획'을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한정지을 수 있으며, 구체적 현실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경관계획의 실행 수단적 성격의 관리 규정으로서의 계획을 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경관계획의 유형 및 위계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 계획의 수준, 계획 수립의 주체에 따라서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등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도경관계획은 도 관할 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목표, 주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기본 방침을 제시한다. 시·군경관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모든 단위의 시가 계획 주체이며,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경관계획과 주요한 수립과정적 구조는 동일하나 실행계획을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특정경관계획은 계획의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서,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대상을 분류한다. 경관유형이라 함은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을 지칭하며 경관요소라 함은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을 지칭한다.[4] 특정경관계획은 수립 주체의 단위와 관련되지 않고 도, 시·군 모두 필요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도경관계획에서의 기본방향, 시·군경관계획에서의 실

2) 경관법 제9조 제1항
3) 경관법 제9조 제1항 중,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
4) 경관계획수립지침 제5절 경관계획의 유형

행계획에 비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가장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표 2-1] **경관계획의 법제적 유형과 위계적 관계**

구분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수립 주체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시 및 군	도 및 시·군
위계적 성격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의 제시	실행계획으로서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	실행방안을 제시
위계에 따른 역할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의 근거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조례 등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의 제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를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명확한 대상의 정의와 실행 방안의 제시
역할에 따른 고유한 내용	경관 부문별 계획: 관할구역 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관유형 및 경관요소에 대한 관리계획	경관가이드라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및 원칙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준의 구체성을 가진 경관설계지침 및 경관설계지침도

* 규정: 경관법 제9조 제5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경관계획수립지침'의 해당 내용

이러한 성격은 이 세 가지 경관계획이 내용적으로 위계적 참조 관계를 갖도록 구조화된 것을 반영하며, 그에 따른 각 경관계획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도경관계획은 관할하는 지역 내 시·군경관계획 근거로서의 역할하며, 시·군경관계획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조례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목표로서의 내용을 제시한다. 특정경관계획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형식을 갖추어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를 통하여 실행하는 명확한 대상의 정의와 그 실행방안을 규정한다.

각 유형의 경관계획을 구성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아래 경관계획의 내용 참조)를 가지지만, 각 위계적 역할에 따라 다른 유형의 경관계획과는 차별되는 고유한 내용을 가진다. 도경관계획은 경관 부문별 계획을 고유하게 포함하는데, 이 내용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관유형 및 경관요소의 차원

에서 수립한 경관관리계획이라 할 수 있다.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라고 함은 경관계획의 체계는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관 객체에 대하여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경관유형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지칭하며, 경관요소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지칭한다. 각 경관계획은 경관유형과 경관요소에 대한 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나, 도경관계획에서는 '경관 부문별 계획'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독립적 구성의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경관계획은 경관사업, 경관심의, 경관협정, 경관조례의 대상 및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점경관리구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및 원칙으로서 경관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특정경관관리계획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의 대상에 대한 경관설계지침,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경관설계지침 및 경관설계지침도는 그 실현 수단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차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각 경관계획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에서 그 요소와 계획 형태에 따라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2.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이 수립 주체와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는 특징은 있으나, 각각의 경관계획은 '현황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 계획 - 실행계획'에 이르는 수립의 기본 구조를 공유하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 계획의 대상, 내용, 구체성을 달리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1) 기본 구조: 경관구조 요소의 설정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조사·분석한 주요한 경관자원을 거시적 경관구조의 골격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로 분류하여 각 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그리고 특정경관계획이 모두 동일하게 갖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각 유형이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경관계획의 공통된 내용에는 경관법 제9조의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계획의 배경, 수립 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수립과정이 포함된다. 둘째,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의 내용, 그리고 경관자원이 가진 특성의 분석과, 시민들의 경관자원의 인식 또는 의식 조사, 계획의 대상지에 대하여 이미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 중에 있는 관련 계획 및 해당 법규에 대한 조사,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 수립될 경관계획의 맥락과 배경이 되는 경관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를 포함한다. 셋째, 이상의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될 계획의 밑그림이 될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설정 및 계획이 포함되며 이 내용들은 경관계획(도경관계획 및 시·군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기본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수립의 대상으로서 핵심적인 계획 요소에 해당한다.

위 세 가지 핵심적인 경관구조 요소들은 각각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의 결과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서, 면적인 자원 요소는 경관권역으로, 선적인 자원요소를 경관축으로, 점적인 요소는 경관거점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공간설정을 통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된다.

[표 2-2] **계획 유형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

<table>
<tr><td rowspan="4">공통
구조</td><td>1. 계획의 개요</td><td colspan="2">1.1 배경 및 목적
1.2 범위 및 내용
1.3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td></tr>
<tr><td>2.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td><td colspan="2">2.1 경관자원조사
2.2 경관구조분석
2.3 경관의식조사
2.4 관련법류 및 유사사례 검토</td></tr>
<tr><td>3. 경관기본구상</td><td colspan="2">3.1 기본방향
3.2 미래상
3.3 추진전략
3.4 경관구조: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설정</td></tr>
<tr><td>4. 경관기본계획 (또는 특정 경관계획)</td><td colspan="2">4.1 경관권역계획
4.2 경관축계획
4.3 경관거점계획</td></tr>
<tr><td rowspan="3">유형
별
내용</td><td rowspan="2"></td><td colspan="2">4.4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4.5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계획
4.6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td></tr>
<tr><td colspan="2">**특정경관계획의 경우,**
좌측 사항은 해당 없음</td></tr>
<tr><td>**도경관계획의 경우,
5. 경관 부문별 계획**
5.1 경관유형별 관리계획: 시가지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5.2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야간경관</td><td>**시·군경관계획의 경우,
5. 경관가이드라인**
5.1 경관권역의 경관가이드라인: 공간구조, 가로경관, 건축물(옥외광고물 포함), 오픈스페이스
5.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5.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td><td>5. 경관설계지침
5.1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기법, 설계사항 등
5.2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대한 설계사항</td></tr>
<tr><td>공통
구조</td><td>6 실행계획</td><td colspan="2">6.1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6.2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6.3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6.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5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6 자문 및 심의, 6.7 단계별 추진계획, 6.8 예산계획</td></tr>
</table>

* 규정: 경관법 제9조 제5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경관계획수립지침'의 해당 내용

① 경관권역의 설정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하나의 경관권역을 설정한다. 도경관계획 및 시·군경관계획의 경우 관할 구역 내 기초지자체의 영역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구역이 매우 넓거나 다양한 경관특성이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특정경관계획일 경우는 그와 큰 틀에서 동일하지만, 공간적 범위가 작더라도 건물의 양식이나 형태, 식생 등이 면적으로 동질한 특성을 형성하는 지역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관축의 설정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연물이나 경작지, 기념물, 랜트마크 등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거나, 녹지 산림, 도로, 가로, 해안, 하천 등의 경관요소를 바탕으로 선적으로 연속된 경관을 형성,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경관축으로 설정된 곳을 대상으로 경관자원의 특성이 보다 더 드러나도록 주제 경관을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경관축을 설정할 수도 있다.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공간적 범위가 매우 작더라도 세밀한 구상이 필요한 경우 경관축을 입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관거점의 설정

우수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며 해당 장소 주변에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한다.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기념탑, 청사 또는 철도역사 등의 공공건축물, 광장, 교량, 지역의 경계부에서 진출입의 관문이 되는 장소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우세하여 랜드마크가 되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 등을 경관거점으로 설정한다. 해당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여 건축물, 장소 등을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정경관계획 상의 경관거점은 랜드마크가 되는 곳, 장소성을 형성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지적으로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지점, 경관특정이 우수한 점적 형태의 건물, 구조물, 시설물, 산림 또는 수목, 역사물 및 문화재 주변의 일정 지역을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기본 구조: 경관구조 요소에 대한 계획

도경관기본계획, 시-군경관계획은 각각 '경관기본계획'이라는 제하의 경관계획의 중심 내용으로서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의 세 가지 계획을 기본 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이에 덧붙여, 첫째, 중점경관리구역[5]계획,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한 계획, 또는 추가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신규 지정 및 관련 계획, 셋째, 경관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설정된 중요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지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경관계획은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의 구조를 공유하지만 중점경관리구역계획,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관련 계획 중요경관자원 및 경관위해요소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표2-3]과 같다.

[표 2-3] **경관계획의 기본사항 및 주요내용**

경관구조 요소 계획	주요내용
경관권역계획	-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도경관계획), 또는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시·군경관계획) - 농산어촌의 생산활동과 주민생활의 반영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의 보전, 관리 방향 - 우수한 산림의 생태적 경관미를 제고하기 위한 산림경관의 유형, 조성 목적에 맞는 조성 및 관리 방향 - 시가지의 경우 각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및 상업지 계획 방향 -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의 흔적 또는 특성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계획 방향 -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 및 주변 지역 계획 방향
경관축계획	- 경관축의 설정 배경과 목표, 구현방향, 경관축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방향 - 뛰어난 자연경관, 랜드마크, 역사문화자원, 상징적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대한 조망경관축의 경우, 주요 접근로와 조망점,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 가로 규모 등에 대한 계획방향 - 시가지의 중심가로, 상징성이 큰 가로, 경관자원이 많은 가로에 설정된 가로경관축에 대하여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연속적·통합적으로 형상하기 위한 계획 방향 - 우수한 산림, 공원,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녹지경관축 계획 방향 - 강, 수로, 호수, 해안에 대한 조망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축 계획 방향
경관거점계획	- 경관거점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시설물, 수목, 장소 등에 대한 경관형성과 조망확보를 위한 계획방향 - 전통마을, 전통건축물, 근현대의 중요 건축물, 전통문화, 생활상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계획방향

5) "중심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 경관계획수립지침 제4장 제4절 4-4-1항

이상의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은 도경관계획, 시·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이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세 가지 유형이 가진 차이는 각각의 위계에 따라 그 내용의 구체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도경관계획의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이상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방향에 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군경관계획의 경관기본계획은 계획의 방향을 포함하고 덧붙여 그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조례 등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특정경관계획의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은 보다 구체성과 실현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경관계획의 입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경관권역계획은 면적인 특성 상 특정경관계획보다는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에 직접 관련이 되므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서술은 입체적 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이나, 경관축계획과 경관거점계획은 보다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표 2-4] **특정경관계획에서의 경관구조 요소에 대한 계획 및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특정경관계획의 경관권역계획	-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축 주변의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건축계획 등과 연계한 입체적 경관계획 -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조망축, 시각회랑에 대한 입체적 계획 -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의 검토, 또는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계획 -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연결녹지 등의 시각적 연속성, 주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 테마가로의 주제를 구현할 가로시설물, 교통안내판, 포장재료 등의 형태와 색채에 대한 계획 - 주요가로, 접근로, 보행로 등의 조망점 설정, 교량 및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망계획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축계획	-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축 주변의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건축계획 등과 연계한 입체적 경관계획 -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조망축, 시각회랑에 대한 입체적 계획 -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의 검토, 또는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계획 -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연결녹지 등의 시각적 연속성, 주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 테마가로의 주제를 구현할 가로시설물, 교통안내판, 포장재료 등의 형태와 색채에 대한 계획 - 주요가로, 접근로, 보행로 등의 조망점 설정, 교량 및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망계획
특정경관계획의 경관거점계획	- 경관거점 주변 건축물의 높이, 규모, 외관, 건축선 지정, 가로시설물, 포장, 가로수 등의 경관관리방안 -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 계획 - 진출입부의 이미지 부각, 상징성 강화를 위한 가로시설물, 도로표지, 안내시설에 대한 통합적 계획

도경관계획과 시·군경관계획은 경관기본계획의 내용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계획,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표 2-5]와 같다.

[표 2-5]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구 분	주요내용
중점경관 관리구역 계획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명칭·위치·기본방향의 제시, 구역 내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 관리계획(시·군계획의 경우)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관련 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조례 관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우선 적용 등의 방안의 검토 및 제시 - 정된 축적[6]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도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계획	-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도경관계획의 경우), 또는 기지정되어 있는(시·군경관계획의 경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하여, 지구별 경관관리요소와 경관관리방향을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에 부가적으로, 3차원의 입체적·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한 보완사항 - 시·군경관계획의 경우, 필요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신규 지정 제안 - 시·군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 상세한 구분이 필요시 시·군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세분 제안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 중요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방안 - 주요 경관위해요소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지원방안

6) 축척 500분의 1이상 1천 500분의 1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지침 4-4-5항

3) 경관계획 유형에 따른 고유한 내용

세 가지 경관계획의 유형이 공유하는 기본 구조 외에 각각의 경관계획의 수준과 범위, 구체성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유한 계획 내용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경관계획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관유형 또는 경관요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관리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도경관계획에서는 관학구역의 경관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경관유형 또는 경관요소를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① 도경관계획의 경관 부문별 계획

□ 경관유형별 관리계획

경관유형이라 함은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사가지 등의 경관을 지칭하며, 도경관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는 관할 구역 내의 동일한 경관유형에 대하여 경관관리 방향, 관리요소 및 원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경관유형별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시가지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세분하거나 추가
- 각 유형별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방안을 포함
- 각 유형별 고려사항
  - **시가지경관**: 주거지, 또는 상업지의 경관관리요소와 통합적 관리방향
  - **산림경관**: 산림, 가로수, 마을숲 등의 녹지와 주변경관의 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수변경관**: 바다, 하천, 저수지의 물, 주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가로경관**: 가로시설물, 주변건축물 등 가로 주변경관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농산어촌경관**: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취락과 주변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역사문화경관**: 역사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의 경관자원과 주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경관요소라 함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야간조명 등을 지칭하며, 도경관계획의 부문별 계획은 이들에 대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필요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요소는 필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헤딩 경관요소 관리에 대한 일관성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 통합적인 경관관리방안을 포함
- 각 경관요소별 고려사항
  - **건축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기본방향, 통일 또는 강조 등의 경관창출에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오픈스페이스**: 경관적 연계성,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 연계성 또는 연속성 등의 경관창출에 필요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옥외광고물**: 가로경관의 통일,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방향, 관리지역별 광고물 종류 및 수량 등 경관관리요소 및 관리방향
  - **공공시설물**: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쾌적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시설물의 배치, 형태, 규모, 통합설치획 등의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색채경관**: 지역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 사용색 범위와 사용방법 등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 **야간경관**: 상징성, 연속성 등을 위한 기본방향, 연출 및 관리를 위한 경관관리요소와 관리방향

② 시·군경관계획의 경관가이드라인

경관가이드라인은 시·군이 수립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지구·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내용의 실행을 위해 해당 구역별로 경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방향, 원칙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그 형태는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 도경관계획과 같은 상위 위계의 경관계획 중에서 경관부문별 계획이 있을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은 그 내용과 연계하고 해당 구역의 장소성과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경관가이드라인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군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경관가이드라인: 경관관리요소에 대한 일반설계지침 또는 특정 장소나 대상으로 제한 적용되는 상세설계지침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경관가이드라인: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등의 요소에 대한 입체적·통합적 설계지침 및 운영방안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 장소중심의 구체적, 입체적 경관계획으로서 공간구조, 가로경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계획 내용을 포함하며 이들의 통합적 계획을 지향하고, 경관조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실행방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서 기본지침과 상세지침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각 경관요소에 대한 내용과 작성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공간구조**: 가로변 경관과 인접대지와의 관계, 보행활동의 고려한 단지 및 블록 배치 계획,

지형·지세 및 건축물·시설물 현황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가로경관**: 건축물, 식재, 가로시설물, 공원 및 녹지 등 요소들의 통합적 계획, 특화가로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의 계획, 보행의 안전과 쾌적함을 고려한 차량, 주차 및 보행동선 계획
- **건축물**: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를 위한 계획,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 방향,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 방향,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및 외관,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색채, 재료 등에 대한 계획
- **오픈스페이스**: 오픈스페이스의 위치 및 공간기능, 역할에 대한 계획, 녹지율 증진, 녹지 접근성의 확대 및 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경관주요축 형성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과의 연계에 대한 계획,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 등의 계획, 도입테마, 도입수종의 종류와 크기 및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 등

[표 2-6] **시·군경관계획의 건축물 대상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

구분	계획 내용
공동주택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주동길이, 지붕형태, 부속동, 필로티, 색채 등 - 외부공간 : 단지입구, 공공조경, 광장, 담장, 지상주차, 보행자 통로 등
단독주택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건축선, 배치, 길이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지붕, 창문, 발코니, 형태, 색채, 재료 등 - 외부공간 : 전면공지, 담장, 대문, 주차장 등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건축선, 배치방향, 필지크기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입면설계, 1층부 높이, 아케이드, 지붕, 색채 등 - 외부공간 : 공개공지, 전면공지, 담장, 진출입구, 공공통로, 주차장 등
공공건축물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건축선, 배치방향 등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형태, 재료, 색채, 지붕 등 - 외부공간 : 공개공지, 조경, 입구, 경계부 등
옥외광고물	- 일반지역/특정구역의 구분하여 광고물 종류, 형태,색채, 재료 등의 계획 -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의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와 상세도 - 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 - 필요시 차양막, 전자식광고물,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

* 규정: 경관계획수립지침 중 제5장 제5절 경관가이드라인 5-5-4-2 작성 내용

③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동일한 경관유형에 대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기법, 설계사항을 제시하는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 경관요소의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의 설계사항을 제시하는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두 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동시에 수립하게 된다. 특정경관설계지침은 특히 구체성을 위한 계획이므로 중경이나 근경에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준까지 구체성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경관설계지침은 각 요소별로 다음 표로 정리한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통경축, 지붕형태 등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이나,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방향, 건축물의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방향, 그리고 공동주책,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이다. 이때, 각 건축물 유형에 따른 경관설계지침의 내용은 시·군경관계획의 건축물 대상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표 2-3] 참조)에 준한다.

□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원경, 중경, 근경의 경관설계지침으로 구분되며, 원경은 녹지축 형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 등을, 중경은 가로의 연속성 형성을 위한 상징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근경은 건축물의 외부공간 형성을 위한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 상업몰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적용한다. 각 대상의 테마, 수종의 종류, 크기와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원경, 중경, 근경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관리요소와 기본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으로서, 각각 원경은 가로의 상징성을, 중경은 건물과의 조화를, 근경은 업소의 특성 연출을 고려한다. 유도 및 규제수준의 관리등급을 달리하여 일반지역

과 특정구역으로 구분하여 달리 계획하며,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의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고 각 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필요시 차양막, 전자식광고물,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 통일성이 필요한 가로시설물
- 가로등, 포장, 휴지통, 사인 등의 계획방향
- 공통형태, 공통색채, 공통재료, 공통그래픽
- 교통시설, 조명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의 배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 랜드마크, 교량, 옹벽, 방음벽, 포장 등의 형태, 색상, 재료
- 안전성 및 쾌적성 창출을 위한 가로시설물의 통합설치지침

□ 색채 경관설계지침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사용색의 범위에 대한 사항,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에 대한 사항,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물 유형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색채기준은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교량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 기준을 제시한다.

[색채 경관설계지침의 주요내용]

-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권역구분도를 작성하여 색채 권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주조색, 보조색, 윤곽색, 강조색 등의 사용범위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시설물을, 버스정류장, 상징타워, 게이트 등 그림으로서의 역할이 강한 요소와 전화부스, 가로등, 펜스, 휴지통, 의자, 보도포장 등의 배경으로서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 구분한다. 그림 역할의 요소는 강조색, 배경 역할의 요소는 윤곽색을 사용하며, 지침에는 각 색의 사용범위를 제시하며 사인시스템에 적용할 색채범위와 지침도 제시할 수 있다.

□ 야간 경관설계지침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면 또는 선적 형상으로 지역 내에서 영향이 큰 야간 경관 요소가 지역적 차원에 속하며,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 전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시적 차원, 단위요소로서 조망의 대상이 되거나 주요한 조망점,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대상은 단위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각 대상에 대한 계획은 연출, 유도, 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랜드마크, 건축물, 도로, 가로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업광고조명에 대한 조치도 지침에 반영이 가능하다.

3. 경관계획과 관련 법제의 구조

1) 관련 법제의 범위 및 유형

경관계획 관련 법제는 비단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만이 아니라, 경관계획의 대상인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관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의 실현 과정에 관련되는 타 법령의 규정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수립 주체, 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 수립의 절차, 계획의 실행 수단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경관계획 본연의 중심은 경관법이지만, 그 외에의 타 법령도 경관법이 정의하는 경관계획과 상호 참조 혹은 정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다른 법정 계획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을 정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정의하는 건축기본법 등은 경관계획이 다루는 대상을 각각 주요한 대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광의의 경관계획 관련 법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관계획은 그 내용의 실행, 유도 및 행위 규제의 대상을 공유하는 복수의 타 법령의 규정 내용과도 직접 관련이 된다. 이에 경관계획 관련 법제는 계획 수립에서의 상호 참조 절차와 위계, 경관 형성의 인과적 관련성,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게 하는 실현 수단으로서의 법제 등, 경관법과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경관계획 관련 법제의 5가지 유형]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모법제**: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② **타 법령에 근거한 법정 기본 계획으로서 준수 또는 상호 참조의 관계를 갖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기본법 등

③ **명시적 조문은 없지만 경관자산 형성 및 관리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법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지역문화진흥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연안법 등

④ **타 법령이 규정하는 개발행위로서, 경관법(령)에 따른 검토 및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규정한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하천법 등에 의한 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또는 특정 지구 및 특정 건축물의 건축 등

⑤ **경관계획의 실행 수단의 의미[7]로서 경관사업, 또는 타 법령 근거의 계획 또는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련 자치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7) 경관법 제16조 제1항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

[표 2-7] 경관계획 관련 유형별 법제와 조항

유형	관련 법제와 조문
경관계획 수립 규정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행정규칙: 경관심의운영지침, 경관계획수립지침 자치법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준수 또는 상호 참조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법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군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제5항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제4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의 정의,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 제1항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제4항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제5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제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자산 형성 및 관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법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자원 중 산림휴양 및 산림 경관 자원, 제19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 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 자연공원법: 제17조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6항 도로의 경관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중 해양경관보호구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연안법: 제7조 연안통합관리계획
사회기반시설 및 개발행위로서 경관법(령)에 의한 심의 및 승인 관련 법제	도로법의 도로사업 철도건설법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시설사업 하천법 하천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별표)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계획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체크리스트(별표)
실행수단으로서의 관련 법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4조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 2016년 10월 현행법령 기준

위 표에 정리된 이상의 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법제는 약 25개 사항으로 그 내용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그에 따른 행정규칙으로서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45호), 경관심의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99호)의 내용에 의하여 관련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 외에도 각각 경관계획의 해당 요소와 연관을 맺고 있는 타 관련 법제는 그 수준에 따라 더 광범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경관계획 수립 관련 법령의 조문에서는 관련 계획과 법제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요소와 그와 관련되는 법제로 지칭하는 형식으로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국토해양부 훈령 제495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예규 제38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 (환경부 훈령 제791호),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89호),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96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 예규 제561호) 등에서 나타나듯이 경관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에 대한 관련 법제와 정부부처의 규정은 더 확장될 수 있다.

2) 경관계획 관련 법제의 구조

경관계획 관련 법제는 크게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경관심의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된 경관계획의 수립체계와 경관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대상들을 규정한 타 법제들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계획의 범위와 기준, 경관자원의 형성, 형성을 위한 이행·유도수단 및 계획, 그리고 타 관련 행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방·심의·허가하는 관리·규제 수단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경관계획의 내용과 연결된다.

① 계획의 기준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도시·군기본계획을 준수할 내용으로서 참조해야 한다.[8]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8) 경관법 제9주 제4항.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 분야별 기본계획들은 경관에 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을 참조[9]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② 자원의 형성

경관계획의 목적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10] 것이다. 따라서 경관계획의 요체는 우수한 경관자원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경관계획 수립 법제는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의 자연경관자원,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산림경관자원,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의 농산어촌경관자원,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상업업무경관·공업경관 자원 등의 시가지경관자원, 도로, 철도 등의 도시기발시설경관자원,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계획수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관자원의 종류만큼 그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이 경관계획에 결과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률들은 [표 2-4] 경관계획 관련 유형별 법제와 조항의 내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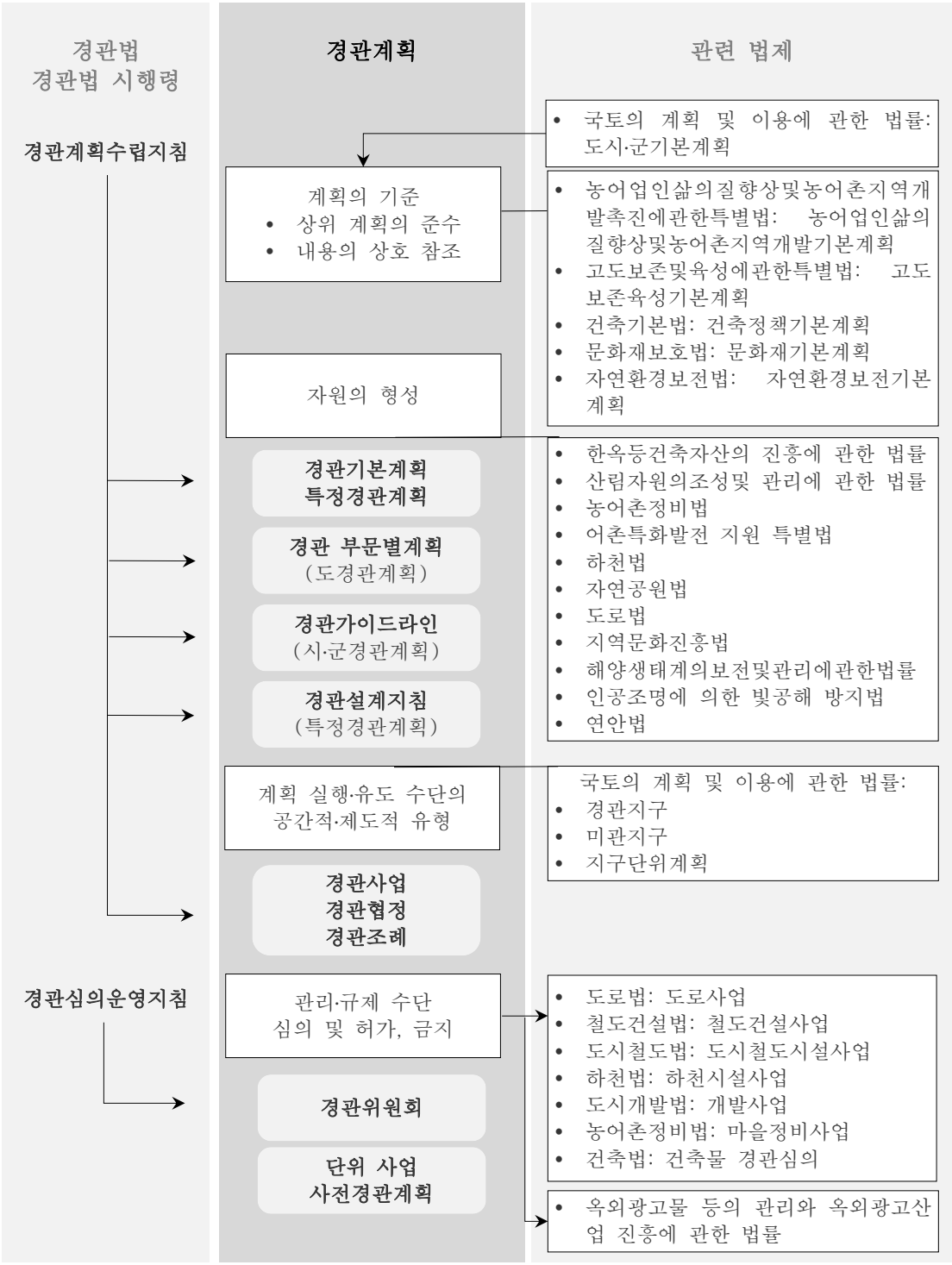
③ 실행·유도수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상의 경관계획은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계획 내용, 그리고 특정지구의 경관계획 내용의 실행 및 유도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공유한다. 이 공간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조례 등을 경관법 수립 법제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9) 경관계획수립지침 제1장 제2절 1-2-7.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경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 경관형성계획, 농산어촌 경관보전 시책, 고도보존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 시 참조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10) 경관계획수립지침 제1장 제2절 1-2-1.



[그림 2-1] 경관계획 관련 법제 및 구조

④ 관리·규제수단

경관관련 제도가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등 특정 행위가 실행되기 전에 경관에 대한 영향을 검토·심의하는 관리 및 규제 수단으로서 역할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도로사업,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시설사업, 하전시설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 건축경관심의 등이 이에 해당하며, 경관심의운영지침 및 관련 절차에 의해 내용이 규정된다.

경관심의는 수립·작성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경관계획 법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일정한 규모 기준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이나, 비교적 넓은 면적의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공공건축물 등으로서 경관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경관심의운영지침[11]에 규정된,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해당 법령, 경관심의에서의 검토 사항과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사업(각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에서 규정)이거나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하천법 규정)이다. 그 외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이다.

심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시설물 주변의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인지,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계획,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 방향, 경관 상 중요한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이다(심의운영지침 제3절 2-3-1항).

□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

1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인허가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이 실시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할 때' 또는 '경관법 제29조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경관위원회가 법 제30조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경관심의운영지침 제1장 제2절

발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이상의 규모 이하로서도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심의내용으로는 주변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한 분석,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토지이용 및 가로체계 등의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 방향,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경관축의 형성 및 시각축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 있다.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이며 예외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 외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

심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 특성을 고려한 배치, 규모, 형태, 입면 계획,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가로,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 외부조명 계획 등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경관지구·미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에 포함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 마련 시 그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한다.

□ 관리규제 수단으로서의 경관심의

경관심의 제도는 도로, 철도시설, 하천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각 경우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계획이 경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경관체크리스트는 사업자용과 심의위원용이 구분되어 있으나 구성되는 항목은 동일하게 제공된다. 사전검토제와 경관체크리스트는 경관심의제도가 규제보다는 유도 과정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8]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구분	관련 법령 및 사업
도시의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규정: 경관심의운영지침 별표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별 심의시기 및 심의주체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경관심의운영지침은 대규모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표 2-9] **경관체크리스트 (도로사업용)**

구분	검토항목
기본방향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 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기본구상	•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 • 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 계획 •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 계획 •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주요시설 설계방향	•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야간경관계획	• 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 규정: 경관심의운영지침 별표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

4. 경관계획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기반

경관법은 2007년 5월 처음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총 8회의 개정과 1회의 본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초기 제정 법률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항은 법 제6조, 제8조, 제 10조 및 제11조로서,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개정 (2013.8.6. 전부 개정, 2014년 2. 7 시행)으로 경관계획 체계에 네 가지의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경관계획 체계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음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하위 자치단체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권한을 이양하였고, 셋째,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관계획의 대상과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경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경관 심의 기능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현황

① 경관 조례 제정 자치단체 현황

2016년 10월 현재, 경관조례(경관형성 조례. 경관 및 디자인 조례 등 포함)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60개 지역으로 (관련 조례의 숫자는 278개) 2013년의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서의 경관계획 의무화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다. 경관조례를 제정한 군의 숫자도 같은 시가 급속히 늘어나 그 수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산, 인천, 울산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조사 시점인 2016년 10월 현재, 경관계획 관련 조례를 수립한 지자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0] **경관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지자체 구분 (개소)	지자체 명
특별 지방자치단체 (3)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14)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치구·군 (27)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동래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서구),
시 (66)	강릉시, 거제시, 경주시, 계룡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양시, 광주시,구리시, 구미시, 군포시, 김포시, 김해시, 나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동두천시, 동해시, 목포시, 밀양시, 보령시, 부천시, 삼척시, 상주시, 서산시,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순천시, 아산시, 안동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산시, 양주시, 여수시, 여주시, 영주시, 영천시, 오산시, 용인시,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태백시, 통영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포항시, 하남시, 화성시
군 (50)	가평군, 강진군, 고령군, 고성군, 고흥군, 곡성군, 괴산군, 구례군, 남해군, 단양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봉화군, 부안군, 부여군, 서천군, 신안군, 양구군, 양양군, 양평군, 연천군, 영광군, 영암군, 영월군, 예산군, 완도군, 울릉군, 울진군, 의령군, 의성군, 인제군, 장성군, 장흥군, 정선군, 증평군, 진도군, 진천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태안군, 평창군, 하동군, 함평군, 홍성군, 홍천군, 화순군, 화천군, 횡성군

② 경관계획 수립 현황

위 경관조례 또는 도시디자인 조례 등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경관법령 개정으로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경관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기존의 경관계획을 변화된 상황에 따라 수정 재수립하고 있으며,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수립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데, 경관계획이 매우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는 현상은 법령에 의한 의무화의 영향이 지대하다

할 수 있지만, 경관법제에 의해 정의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관리의 수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 주도의 적극적인 경관형성 사업 행위를 펼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제도적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11] **자치단체별 경관계획 수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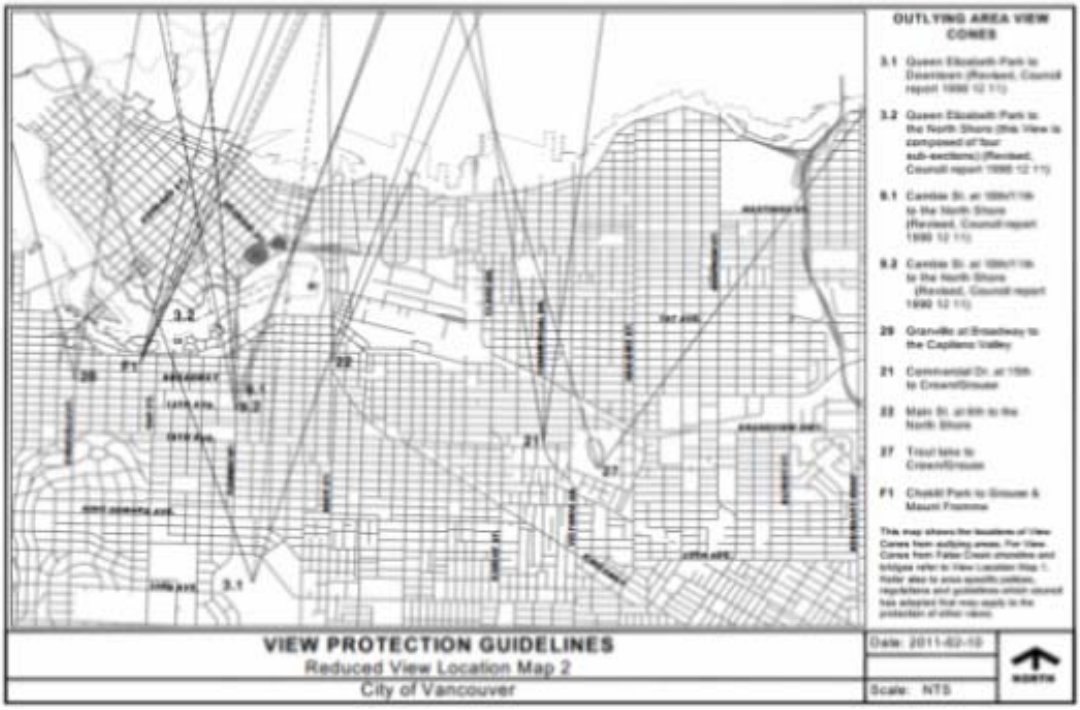
구분	경관계획
특별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 수변경관계획 / 역사문화경관계획 / 자연녹지경관계획 /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 경기도 경관계획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 경상남도 기본경관계획 • 경상북도 경관계획 •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 • 전라북도 경관계획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 신천·금호강 특정경관계획 /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 / 대구원도심 역사문화경관구축 종합계획 •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 야간경관계획 / 해운대구 청사포 특정경관계획 •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시·군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 과천시 경관계획 •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 구리시 기본경관계획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 김포시 경관기본계획 •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 나주시 경관관리기본계획 •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 야간경관계획 •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 2016년 10월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

5. 경관계획 사례의 시지각 관련 내용

경관계획의 내용은 경관자원의 조사, 경관자원의 정의, 경관자원의 형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이라는 광의의 개념에 준하면 경관계획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 경관을 관찰, 경험하는 주체인 사람의 시지각과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하게 관찰자의 시지각적 인지 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관계획의 실제 내용은 그 외의 다른 내용들과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망축 또는 시각회랑 (view corridor)의 요소는 시지각 주체인 관찰자의 위치와 시지각적 인지의 대상을 설정하고 이 요소들 사이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과 영역을 직접 적시한다. 이에 비해 동질의 경관자원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경관축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는 시지각적 인지 과정보다는 보다 추상화된 개념적 인지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캐나다 밴쿠버시 조망보호 가이드라인 예시
(출처 : http://vancouver.ca/docs/planning/view-protection-guidelines.pdf)

[그림 2-3] 서울시 추진 경관사업 부분 예시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p.158)

또한 현재 수립된 경관계획의 주요한 내용들은 경관자원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많은 비중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어, 특색있는 가로경관의 형성을 위한 도로 또는 보행로 디자인, 문화경관형성을 위한 특정 공간 설치사업,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계획 등은 시지각적 대상이기는 하지만, 계획 내용은 그 대상물을 경관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 구상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 고유의 독자적 영역으로서 관찰자와 그의 시각적 인지 대상이라는 구도에서 각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정비사업, 디자인 개선사업, 조성사업 등이 '경관사업'이라는 대체 형식을 가지게 된다. ([그림 2-3] 서울시 추진 경관사업 부분 예시)

실제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의 현상들은 대체로 경관계획에의 접근 자체가 구체적인 관찰자를 상정하지 않는, 추상화된 개념적 계획의 틀을 가진 경향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경관계획 문서에서의 경관은 지표면 위 보행자, 혹은 도로 상의 차량 탑승자의 시점보다는 주로, 부감의 시점을 가진 지도상의 개념 계획으로 나타난다. 관찰자를 설정하고 그의 시각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조망축 설정, 가시권 분석, 경관거점에서의 주변 지역의 관리 기준 등에서도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한 상세 기준보다는 개념적 원칙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선에서 멈추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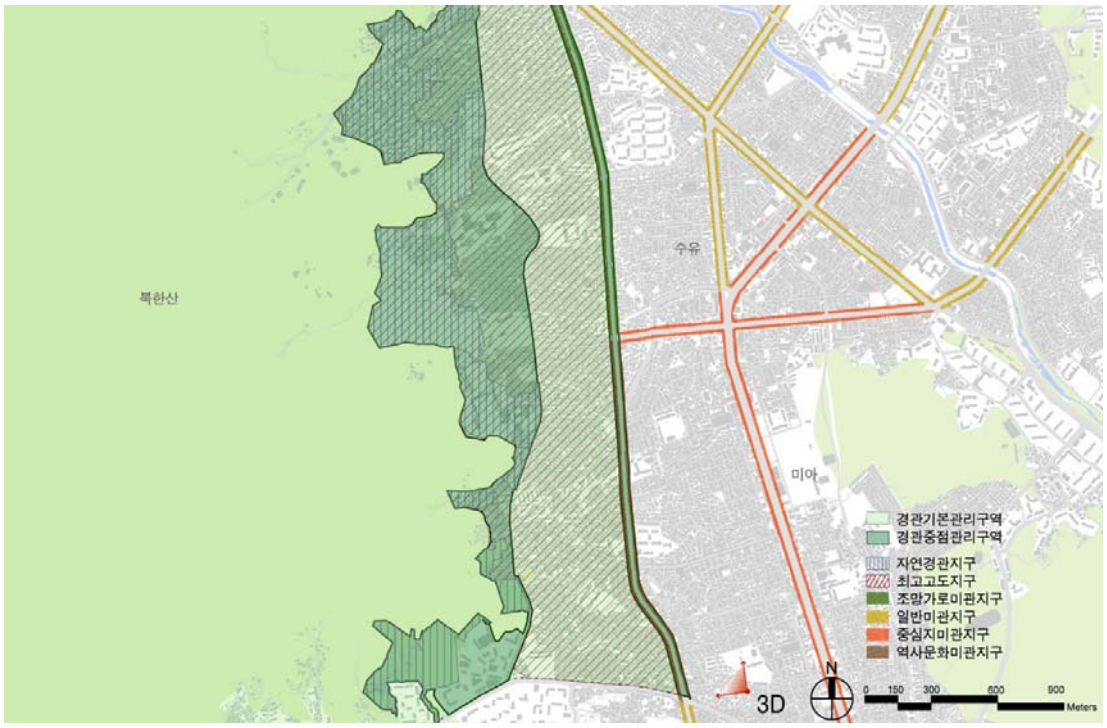
1) 조망가로를 기준으로 한 경관관리권역의 설정: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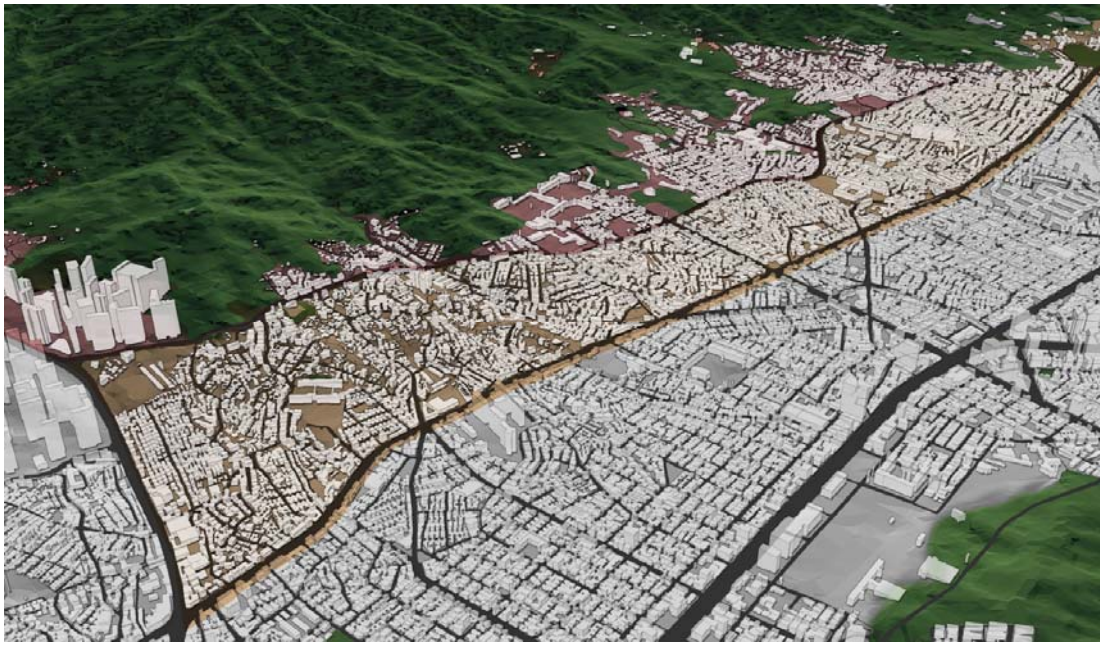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경관축으로서 외사산축을 설정하였는데, 아래 <[그림 2-4] 북한산 주변 경관중점관리구역도>의 경우가 그 중 하나로 북한산 주변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주변 경관계획 대상 요소를 표기한 내용이다. 경관중점관리지역에는 중·저층의 주택, 학교, 공공시설 등이 위치해 있으며,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관중점관리지역 주변으로는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지정하였다. 이 조망가로의 개념은 <[그림 2-5] 내사산축/외사산축 경관기본관리구역 범위설정기준>의 모식도에서의 자연경관축인 북한산 능선을 조망하기 위한 선적인 영역으로 계획되었다.

이 모식도가 밝히고 있는 중심 개념은 산 경관을 바라볼만한 주요한 경관자원으로 설정하고, 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인접 건물의 고층화로 인한 능선 차폐를 방지하기 위한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 산 경계선에서부터 500 미터 내외의 검토 범위를 설정[12]하고 그 관리구역의 경계를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정하여, 경계선상의 도로를 산을 조망하는 조망지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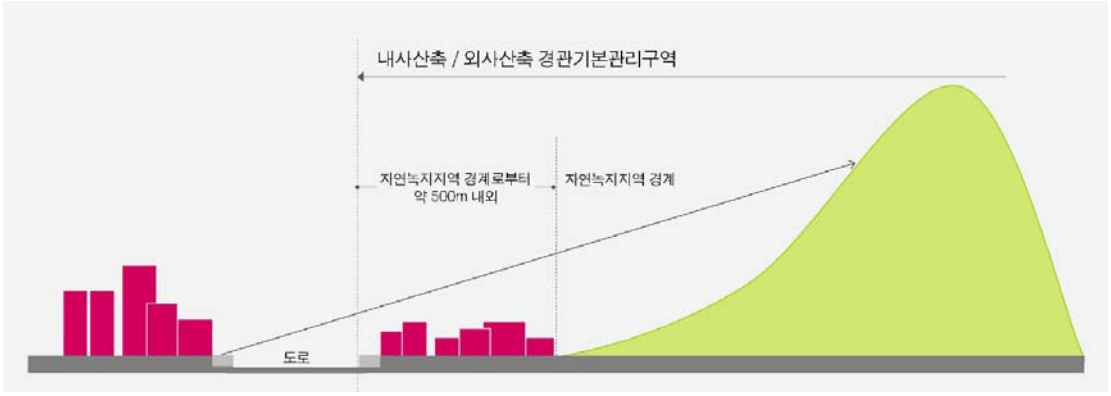
그러나 이를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그림 2-5] 조망도로 상의 실제경관 장면 참조) 지정된 조망가로미관지구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상황은 모식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북한산의 조망이 가능한 지점은 도로축을 따라 형성되기 보다는 북한산을 향하고 도로와 직각으로 접하는 동서방향의 이면도로와 그 접합점들이다. 현재 조망도로로 지정된 도로축에서는 도로변의 2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도 북한산의 조망이 차폐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오히려 동서 방향의 많은 이면도로가 통경축으로서 역할하므로 이에 대한 조망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조망도로의 실제 상황은 모식도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며 이는 조망대상을 응시하는 보행자의 시점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경관관리구역의 경계선에 조망지점을 개념적으로만 설정한 결과이다. 그 효과면에서 결과적으로 해석하자면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높이를 저층으로 규제하여 대상 도로 동편의 건물에서 바라볼 때의 조망을 보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일본의 동경도(東京都)의 산경계로부터 500 미터 내외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 구역설정 방법을 참조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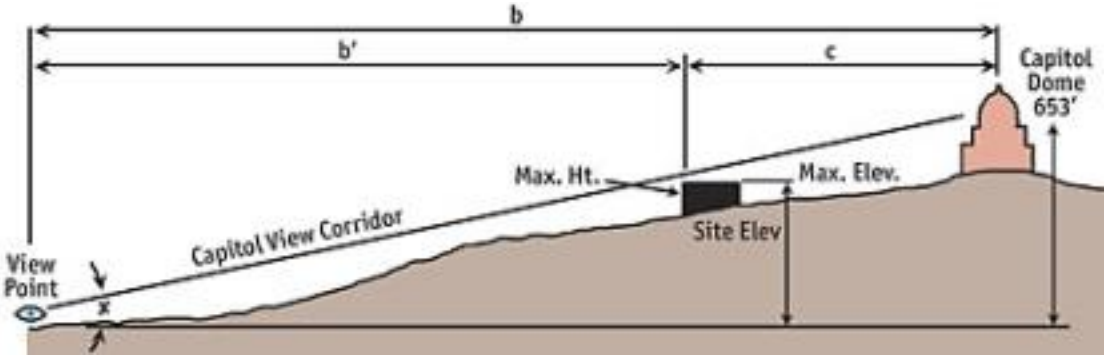




[그림 2-4] 북한산 주변 경관중점관리구역도 및 3D 시뮬레이션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그림 2-5] 내사산축/외사산축 경관기본관리구역 범위설정기준
(위.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p.64)와 조망도로 상의 실제 경관 장면(아래. 출처: 다음 로드뷰)



[그림 2-6] 오스틴시 (Austin)의 조망통로 (view corridor) 개념도
(출처: Downtown Commission on Downtown Development and Capitol View Corridors, April 2007)

산 경관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관리구역 설정의 기준을 관찰자의 시지각 인지 행태를 결정짓는 조건에 따라 설정한다면, 500 미터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몇 가지 다른 현장 조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즉, 조망대상에서부터 관찰자 위치까지의 상대적인 거리와 조망대상의 크기 또는 높이 (이 경우는 산의 높이) 등에 따라 주요하게 달라질 것이며, 그 밖에도 관찰자가 위치할 도로의 폭, 도로 주변 건물 및 설치물의 위치와 형태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실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은,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서보다는 관찰자와 조망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의 차이와 그 사이 경관관리 대상의 현재 조건 등이 입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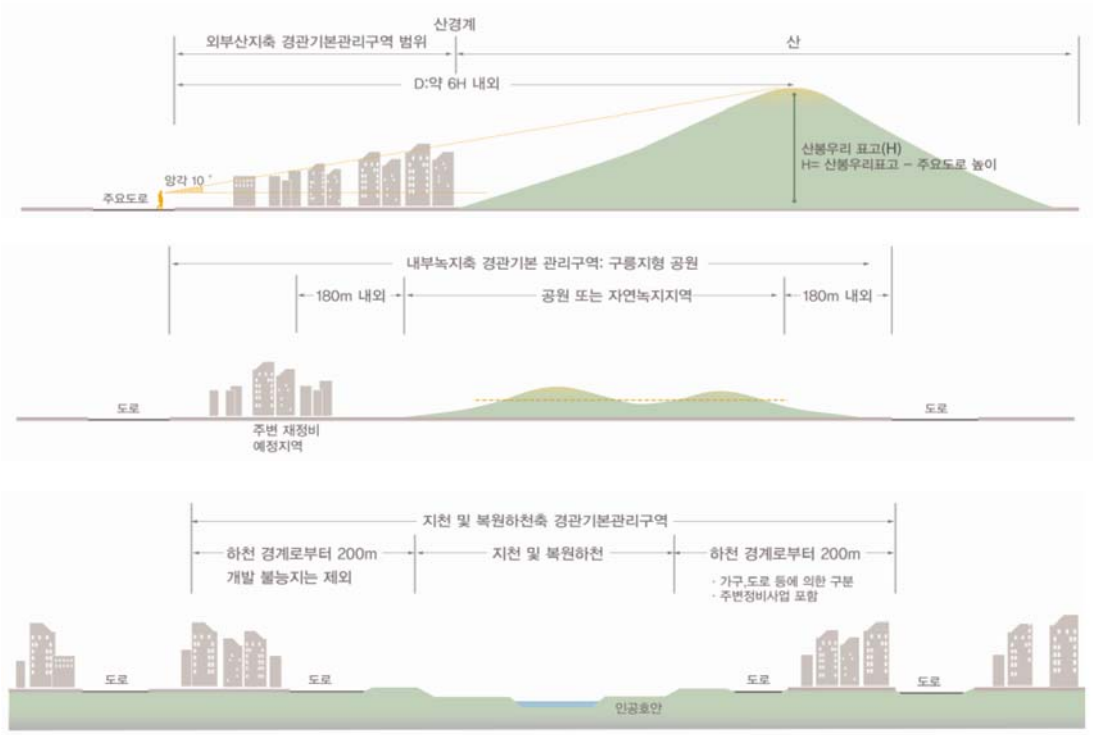
[그림 2-7] 용마·아차산 경관중점관리구역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p.81)

[그림 2-8] 용마·아차산 경관중점관리구역 조망가로 상의 조망 (원경 소실점에 아차산 일부)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p.81)

용마·아차산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조망가로의 경우는 관찰자와 조망대상의 크기 및 상대적 위치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이는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조망가로는 아차산 서편와 중랑천 사이의 약 2.5 킬로미터 길이의 도로를 지정한 것으로서, 아차산에 매우 가까운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용마·아차산 경관중점관리구역 조망가로 상의 조망결과>에서 보듯이 소실점 상에 매우 작은 영역으로 인지된다. 아차산의 높이가 다른 산경관의 산정상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망 지점이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망 대상의 충분한 인지가 어려우며, 조망 지점 인근의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고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망 대상을 향해 열리는 시각축의 개방 각도는 작아진다. 더구나 보행자 시점의 경우 근경의 가로수 및 보행로 상의 설치물 등으로 아차산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주요 조망지점 및 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사례

경관관리구역은 경관자원의 유형에 따라 조망 시점과 경관자원 사이의 물리적 환경을 유도 또는 관리하기 위한 영역적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영역의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경관자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관찰자와 관리대상의 상대적인 위치가 주요한 요인이 되며. 이때 관찰자의 시지각적 인지 특성이 개입되게 된다.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은 경관관리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기존의 시지각적 인지 이론을 참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조망대상으로서 자연경관 지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앞서 예시한 서울시의 기본경관계획 사례가 가진 맥락과 동일하지만,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지각 거리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조망이 가능한 특정 지점 또는 조망대상을 직접 향하고 있는 조망축을 정하여, 경관설계지침을 통해 그에 대한 관리영역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9] 경관요소 유형별 경관관리구역 설정의 기준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시지각 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은 경관요소의 유형별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녹지축 중에서 시가지 경계 외부산지축에 대한 경관관리구역은 산정, 산허리 등이 파노라마처럼 조망되는 앙각 8~10° 기준을 들어[13] 경관요소인 산정상의 높이와 산정까지의 거리의 비 (D/H)가 5.5-7사이의 지점이 산의 모습을 가장 회화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경관관리구역은 D/H비 기준점으로부터 산지축 경계선 사이의 영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영역보다 바깥 영역의 경우는 산지축으로의 조망이 의미를 크게 가지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경관관리구역 내부에서는 적어도 산의 능선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스카이라인을 규제하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능선의 아래 일부분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10]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부분)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12)

녹지축 중에서 외곽 산지축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구릉지 형의 내부 녹지축의 경우는 시거리에 대한 연구 결과[14]를 적용하여 160미터 내지 180미터 거리가 녹지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는 임계점으로 보아 녹지 경계부로부터 180미터까지의 영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수변축 중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하천축에 대하여서는 시지각

13) 서울특별시, 서울의 주요 산 경관풍치 보전계획, 2000, p.22. 참조함
14) 배중남, 시거거리에 대한 다른 연구의 분석, 1997 참조함

적 인지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수변축 중에서 지천 및 복원 하천축에 대해서만, 하천 내부에서 주변으로 향하는 조망을 중요하게 설정하여 근경권으로서 하천 경계로부터 200 미터까지를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11]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녹지축 경관관리 주요 조망점과 조망대상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p.112)

3) 조망점, 조망권 추출을 위한 가시권 분석의 적용: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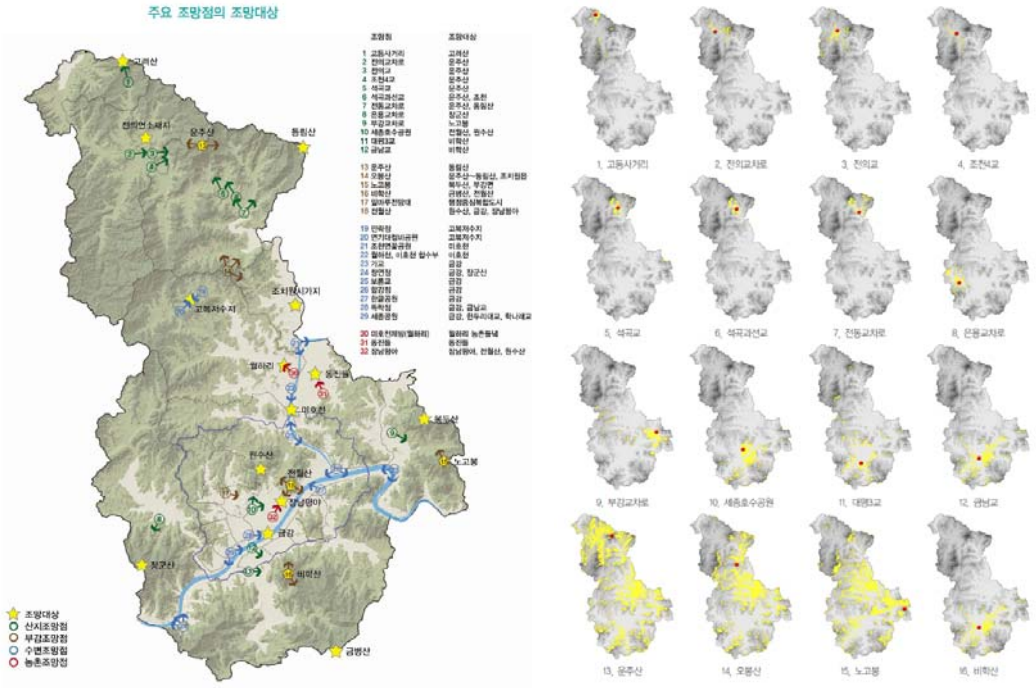
경관계획 사례 중에서 대부분의 조망점, 조망축 계획은 해당 지역의 물리적 자연지형의 특성, 특히 표고 정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점에서의 가시권역을 누적하여 가장 두드러진 지점을 조망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경관계획이 관할하는 지역 전체의 가시선을 누적 분석하여 시각적 노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단위 영역을 경관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시권 분석 방법은 실제 관찰자 시점의 조건과는 다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관찰자의 시지각 인지와 가시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지점이 없을 수 있어 실제의 상황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가시권역의 계산 산출에 사용되는 조건이, 해당 지역의 지표면을 건축물과 각종 실제의 시설물을 제거한 매끈한 표면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실제의 관찰자가 위치한 조건과는 매우 다른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이기 때문에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거나 거리에 따라 조락하는 시지각 인지의 특성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가시선 계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실제 경관계획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가시권 계산 방법이 몇 가지 서로 다른 경관계획 요소를 설정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에서는 가시권 분석을 통해 조망점, 조망점에서의 조망대상을 정의하였다.[15] 해당 계획은 설정된 조망점을 통해 경관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조망점 자체가 조망 명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가시권 분석 방법은 그 계획 과정에서 해당 권역 내의 조망점을 특정하는데 활용되었다. 경관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선정 기준[16]에 따른 100개의 예비 조망점을 선정한 후, 그 중에서, 조망대상이 될 지점을 기준으로 가시권 분석을 통해 누적 가시성이 뛰어난 지점을 역으로 산출하여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12곳의 산지조망점(주요산의 정상을 조망 대상으로 함), 6곳의 부감조망점 (조망점의 위치가 산 정상으로서 전경의 조망지점)이 결정되었으며, 그 외에 11곳의 수변조망점 (주요 하천과 교량 등 하천 주변의 시설물을 조망 대상으로 함), 3곳의 농촌조망점 (농촌의 들녘을 조망하기 위한 장소) 등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p.44-57

16) 선정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이용도가 높거나 장래 이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주요 도로의 결절점 및 진입부, 주요 하천축의 결절점,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관광 명소 등의 랜드마크적 장소를 조망점의 조건으로 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p.44.

총 32곳의 주요 조망점과 각각의 조망 대상을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총 61곳의 시가지 관리 조망점도 함께 정의하고 있으나, 시가지 관리 조망점에 대해서는 각 조망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림 2-12] 조망점 가시권 분석 사례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세종특별자시시 경관계획에 나타난 주요 조망점 설정 방식은 시지각 인지의 조건에서 특히 원경의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그 특성 상 큰 규모를 갖는 자연지형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조망점과 조망 대상을 특정한다. 이 방법이 가시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부여되는 해당 경관계획의 독특한 특성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접근 방법은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관계를 원경으로만 한정하는 부차적인 결과를 낳고 때문에 조망 대상 자체도 규모가 매우 크거나 두드러진 자연지형으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32곳의 주요 조망점 외에 61곳에 지정된 시가지 조망점에 대해서는 가시권 분석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적용할 조망 대상자체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가지 조망점 주변의 관리를 위한 대상 영

역이나 유도 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경관계획이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림 2-13] 주요 조망점인 전의교차로에서 조망대상인 운주산(좌) 방향의 경관
(출처: 다음 로드뷰)

가시성 분석이 적용되었던 과정은, 조망 대상으로서 몇 군데의 산 정상을 기준으로 부감가시권 분석을 통해 가시성이 매우 높은 영역권을 추출해내고, 100곳의 예비조망점 중에서 주요 조망점을 선별하는 기준으로서 가시성 영역을 사용한 것이다. 즉 가시권 분석 적용 과정을 통해 주요 조망대상이 '잘 보이는' 지역만을 선별한 것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한 중심(신)시가지는 주요한 조망점에 포함되지 않고 주로 차량으로만 빠르게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시가지를 둘러싼 교통로나 그 결절점, 혹은 시가지 바깥 경계에 면해 있는 공원 등으로 주요한 조망점이 집중된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신)시가지 내부에 대해서는 주요 조망대상과 관련한 기준은 적용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등의 시가지 조망점에 대한 기준도 구체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에서의 주요 조망점과 조망 대상은 일상적인 도보권이나 가까운 생활권 내의 영역에서 원경에 대한 조망을 관리할 내용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이동의 노력이 동반되는 산정상의 명승지 또는 여가공간이거나 차량을 탑승한 채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위치에 상당수가 설정되게 되었다.

4) 랜드마크에 대한 가시권 거리와 관리 대상의 한계: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사례

경관계획에서 조망대상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랜드마크를 조망할 수 있는 영역을 가시권 분석을 통해 특정하고 그 영역의 요소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조망점 계획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의 조망점 계획은 그러한 과정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시민들의 인식조사 등을 통해 팔공산, 앞산 (이상 산악경관자원), 대구스타디움, 우방타워, 동대구역, 엑스코, 오페라하우스 (이상, 도시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계산성당 등을 주요한 랜드마크적 조망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들을 조망할 수 있는 영역을 각각 가시권 분석으로 계산하였으나, ([그림 2-14) 우방타워 가시권 분석,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가시권 분석) 팔공산과 앞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망대상의 가시권 영역을 도심 내부의 중경에 해당하는 대상물로서 500미터로 한정하였다. 실제 도심 내부의 상황이 건축물, 수목, 전신주, 교통안내판 등의 시설물로 분석된 가시권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계획 내용에서는 밝히고 있다.[17]

[그림 2-14]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우방타워 가시권 분석 및 500미터 조망권 영역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78)

이에 따라 해당 경관계획의 조망대상에 대한 조망 관리에 대한 계획은 실제 현장에서 대상물을 볼 수 있고, 대상물과 조망지점 사이의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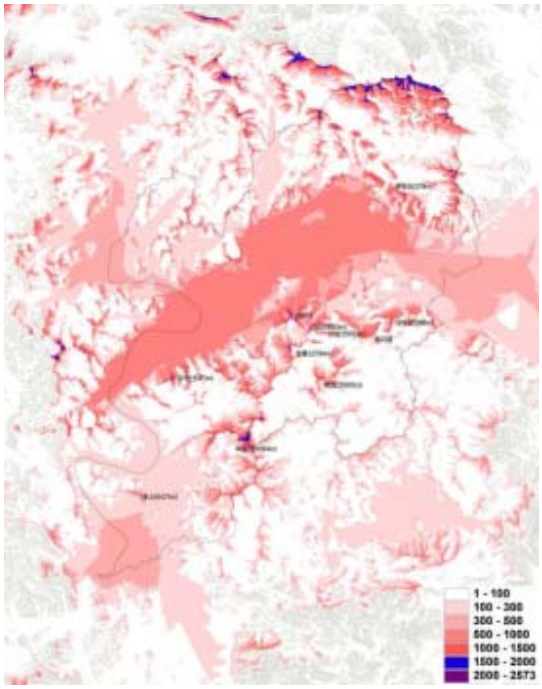
17)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78

정하여 소극적이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랜드마크적 조망 대상 중에서 우방타워, 앞산, 대구 스타디움은 조망이 가능한 도로가 조망 대상 주변에 존재하고, 현재까지는 건축물로 차폐되지 않거나 향후 차폐될 가능성이 낮은 지점의 도로를 '조망축'으로 설정하였다.[18] 우방타워[19]의 경우는 조망축이 타워에 직접 인접한 두류공원과의 사이 도로를 선정하였으며, 대구 스타디움은 바로 앞 진입로를, 앞산으로의 조망축은 도로 상의 소실점에 앞산이 위치한 세 곳의 인접 도로를 각각 조망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계산성당, 동대구역, 오페라하우스 등은 조망축이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영역이 경관계획서 상에서는 별로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현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다.[20] 예를 들어,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문화적 상징성, 독특한 외관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변의 조건은 진입로에서만 조망할 수 있으며, 다른 도로에서는 '수목 등의 장애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고, '배후에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오페라하우스 광장에서의 조망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2-15] 계산성당 (위), 오페라하우스 (아래)의 조망 관련 현장 사진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80, 182)

18) '대로(25m) 이상의 도로에서 조망대상이 보이는 직선 구간에 선정'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68)
19)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상의 명칭은 우방타워이나 현재 명칭은 '대구타워'로 개정됨
20)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77-182.

[그림 2-16] 대구광역시 조망축 및 조망대상 (부분)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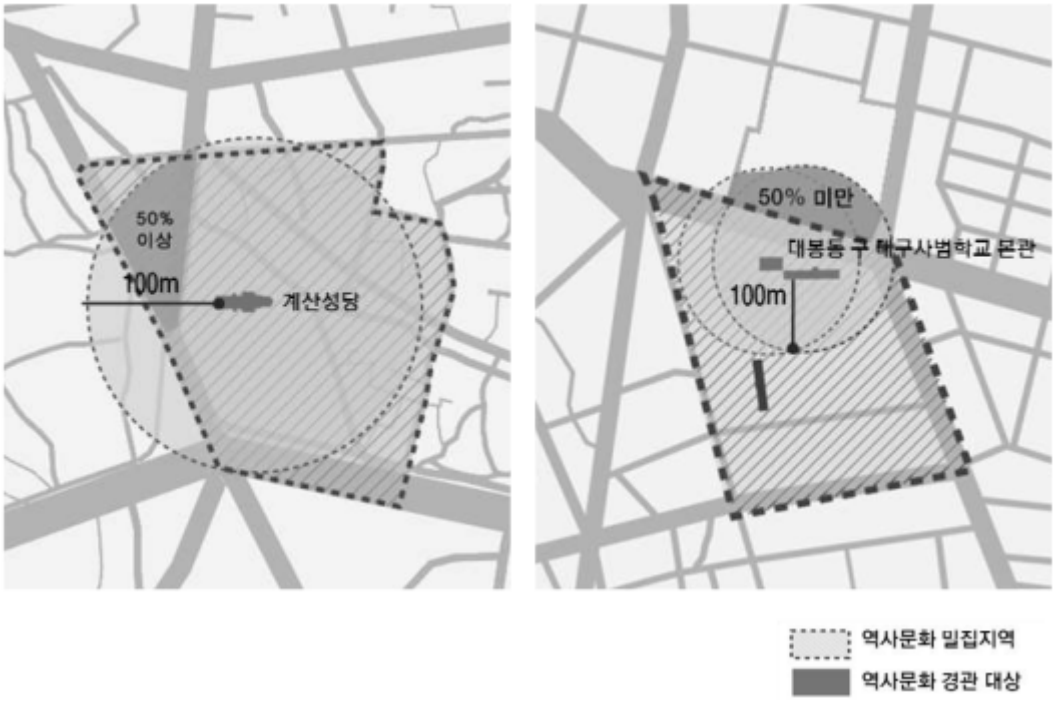
[그림 2-17] 대구광역시 가시권 분석 (부분)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그림 2-18] 대구광역시 조망축 계획안 예시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5) 역사문화경관 자원 주변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규정의 준용: 대구광역시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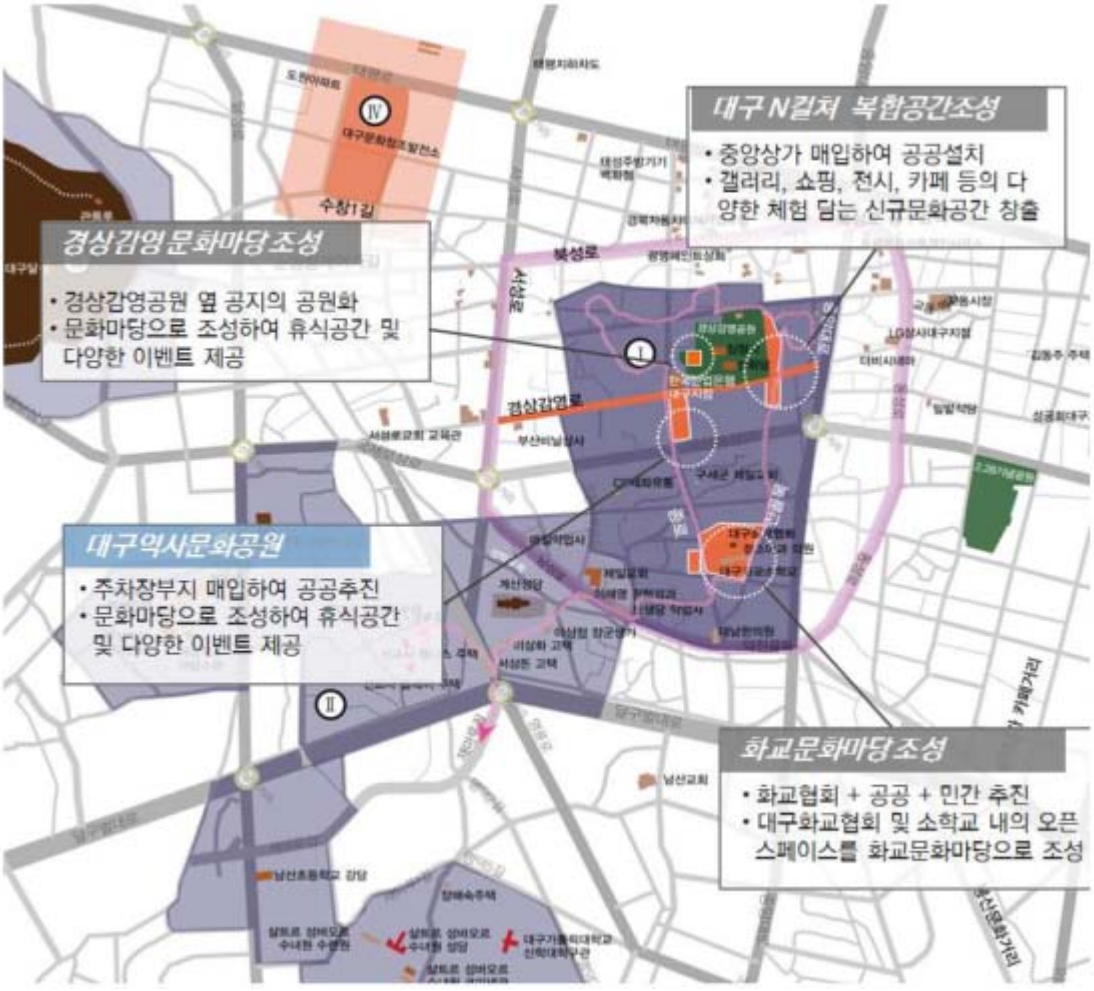
역사문화경관의 주요 요소인 문화재가 경관계획에서 갖는 의미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보다는 주로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관리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위치 기준('경관거점')인 경우가 많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구역 경계범위을 대부분의 경관계획은 준용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는 문화재 경계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구역을, 서울시의 경우는 100미터까지를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대상

[그림 2-19]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구역 설정 개념
(출처: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p.160, '역사거점 경관관리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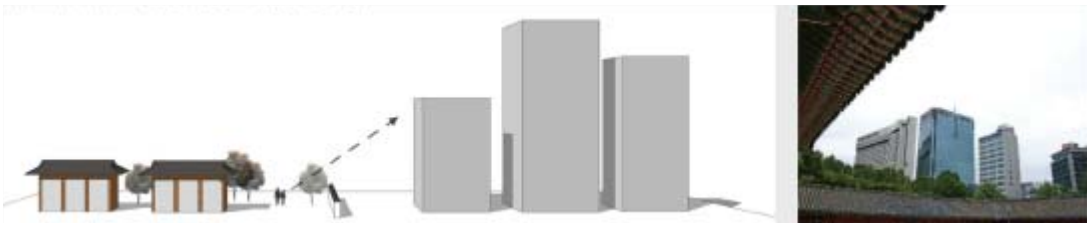


[그림 2-20]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구역의 설정의 실제
(출처: 대구광역시 역사문화특정경관계획,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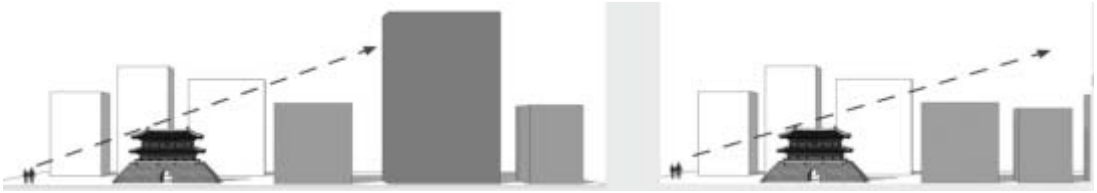
으로서 검토구역으로 적용한다. 그러한 접근은 경관계획이 문화재보호법이 가진 규제의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화경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관(형성)사업 대상 권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로 많은 경우 연결된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역사문화(특정)경관계획이 문화재가 가진 역사적 혹은 문화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당위를 제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뒷받침하여, 조망대상으로서의 문화재보다는 주변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적인 경관요소의 확보에 경관계획이 적극 개입하는 '사업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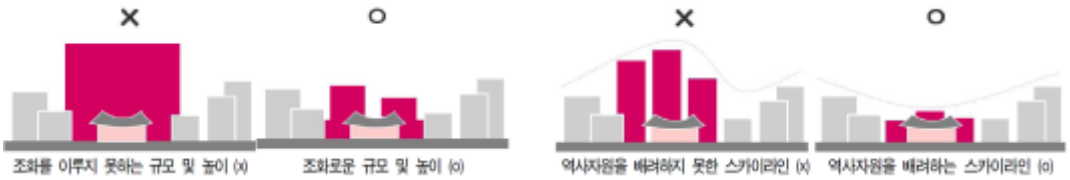
[그림 2-21] 대구 "원도심의 역사성 회복 및 중심성 강화" 계획 내용
(출처: 대구광역시 역사문화특정경관계획 p.95 부분)



[그림 2-22] 문화재 내부에서 외부 시가지의 경관을 관리하는 경우
(출처: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 p.152)



[그림 2-23] 문화재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 높이 규제 기준의 개념도
(출처: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 p.160)



[그림 2-24]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에 대한 기준
(출처: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부록, 역사특정거점 경관기본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p.19)

이러한 기준의 근거가 되는 시각축의 개념적 구도는 관리대상 관찰자와 문화재 사이에 있지 않으며, 관찰자가 문화재의 내부에 있거나 ([그림2-22] 문화재 내부) 문화재 바깥에 있더라도 관리대상의 건축물을 문화재를 시각적으로 둘러싸는 배경([그림 2-23] 문화재의 배경)으로서 정의한다. 서울시 경관기본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 내부에서의 조망점 2곳 이상, 문화재 조망이 가능한 주요도로 1곳을 경관시뮬레이션 지점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에서 대상 문화재의 배경이 되는 건축물의 형태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경계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허용되는 앙각 범위와 100미터 이내 혹은 500미터 이내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반드시 문화재 외부의 위치에 있는 관찰자가 문화재에 대한 조망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정 거리에서 관찰자가 문화재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6) ‘개방지수’ 또는 ‘차폐도’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 지침,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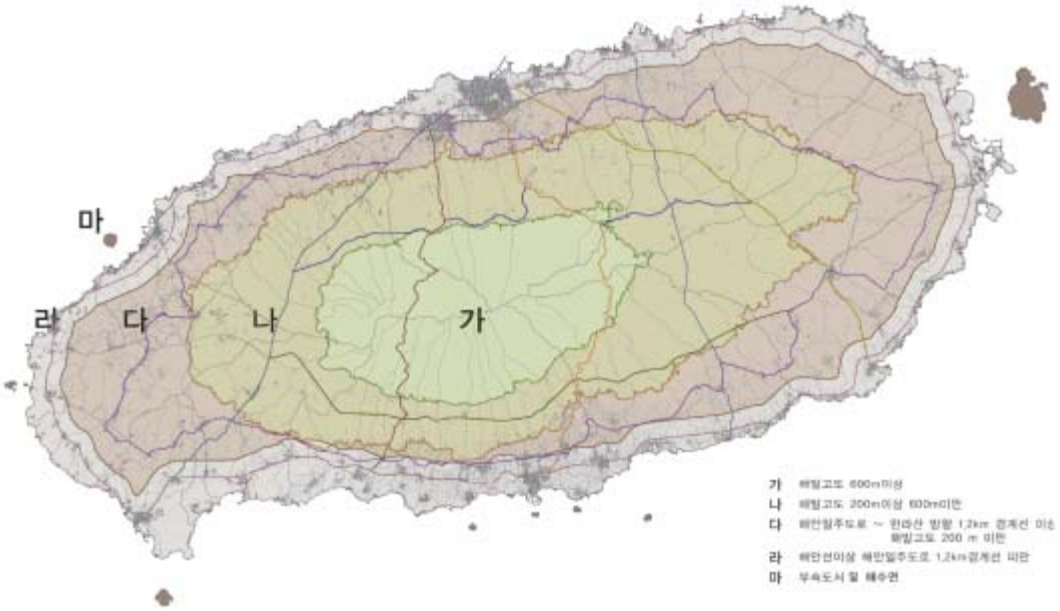
시지각 인지 논리의 주요한 기반은 관찰자의 위치와 조망 대상과의 사이 영역을 결정짓는 물리적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찰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단일한 조망대상을 전제로 단순화한 개념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현실에서 실제 관찰자가 경험하는 경관요소는 중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다. 관찰자 시점에서는 거리에 따라 근경, 중경, 원경 등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내용과 조건이 다른 요소들이 중첩되며, 의미있는 경관자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인공물이 해당 위치에서 시지각의 대상이 되는 복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자가 위치하는 현실의 장소에서 주요한 조망대상에 대하여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지각 환경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출되고 있는지가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경관계획이 목표로 하는 바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특정한 경관자원 요소만을 기준으로 단일한 수단에만 집중하는 경관관리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찰자를 둘러싼 근경, 중경의 모든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 점은 관찰자의 위치가 일상적으로 어떤 환경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지각적 인지 특성과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경관계획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선택적인 계획으로서의 전략이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관할하게 되는 영역 내의 모든 장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간판정비 사업, 가로시설물 디자인 규정이나 경관협정을 통한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의 경관관리 내용이 경관계획의 내용 중에서 주요하게 포함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관리지침은 특정한 경관자원 요소에 대한 전략적인 지침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주도 지역 내의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경관의 구성 원리로서 언급할만한 시지각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독특한 맥락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지침은 제주도 내의 모든 지점에 대하여 각자의 기준

코드가 부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주다운 사사적 풍경의 구축'을 제주 경관계획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원칙으로서 '연속된 풍경'을 발현하도록 한다는 전략이 경관관리지침에 반영된 결과이다. 바다와 해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오름과 평원,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자연 풍경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여, 제주 전역을 한라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섯 개의 경관단위로 구분하고 각 경관단위별로 경관을 구성하는 일반적 요소들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한경면 저지리의 마을복지회관의 경우, 첫째로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둘째,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중에서 저지리가 속하는 '다'경관단위의 일반지침이 적용되고, 특정 경관단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침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 틀에서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중에서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침과 그밖의 해당 경관요소들에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게 된다. ([그림 2-25] 제주시 경관관리지침 적용의 구조: 한경면 저지리 마을복지회관의 경우)



[그림 2-2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 경관단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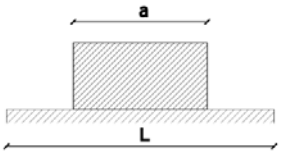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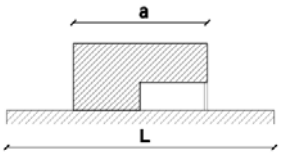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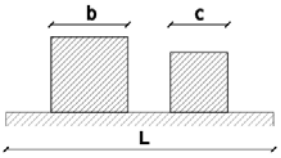
1 전체 경관단위 적용사항	2 기본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3 특정 경관단위 세부지침	4 경관요소별 경관계획 일반지침
	경관단위 ㉮ 경관단위 ㉯ 경관단위 ㉰ 경관단위 ㉱ 경관단위 ㉲	주요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 부지조성 - 좌향 - 높이 - 형태 - 재료 - 식생 - 경관색채 - 지역별 주요 조망점	- 개방지수 - 절성토량 - 재료 - 취락 - 가로 - 생산과 저장 - 돌문화 - 하천 - 자연식생 - 조경식재 - 바닥포장 - 경관단위별 색채 - 경관단위별 옥외광고물 - 경관단위별 야간경관	- 해당사항없음	- 주택 - 공공건축물 - 산업 및 저장시설 - 관광시설 - 도로 - 도시시설물 - 역사문화시설 - 가로수 및 가로녹지 - 대지안의 조경 - 도시공공오픈스페이스 - 바닥포장 - 옥외광고물 - 가로시설물 - 보행자용 안내판 - 야간경관 - 공공시설물 색채 - 대중교통시설 - 공공글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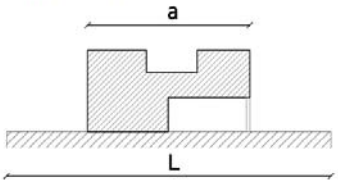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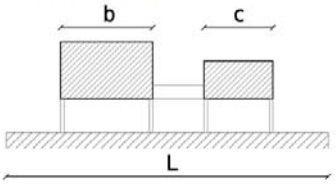
[그림 2-26] 제주시 경관관리지침 적용의 구조: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을목지회관 건축의 경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p.8)

이 일반적인 지침 중에는 관찰자의 근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좌향, 높이, 형태 등에 대한 지침 외에 근경의 요소임에도 그 특성에 의해 관찰자와 원경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지 내 건축물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개방지수'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다. 개방지수란 주요 조망대상의 방향을 기준으로 필지의 좌우 폭 중에서 건축물의 좌우폭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열려있는 틈의 비율로 정의된다. 개방지수를 모든 지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래의 지침에서 밝히는 대로 원경으로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근경 요소의 형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때 개방지수는 관찰자의 시지각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 **풍경의 공유**: 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향한 시각통로의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 방향으로 배치
- **근경과 원경의 고려**: 한라산, 오름,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로의 시각통로 확보는 대상 인공건축물과 인접한 경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인접 대지, 조성 대지의 형상, 기능, 기후 조건에 의하여, 방사선 방향에서 일정 각도가 있는 경우 건물의 일정 개방지수를 확보할 것[21]

21) 신정철, 신지훈,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국토연구원, 2003, p79, 임승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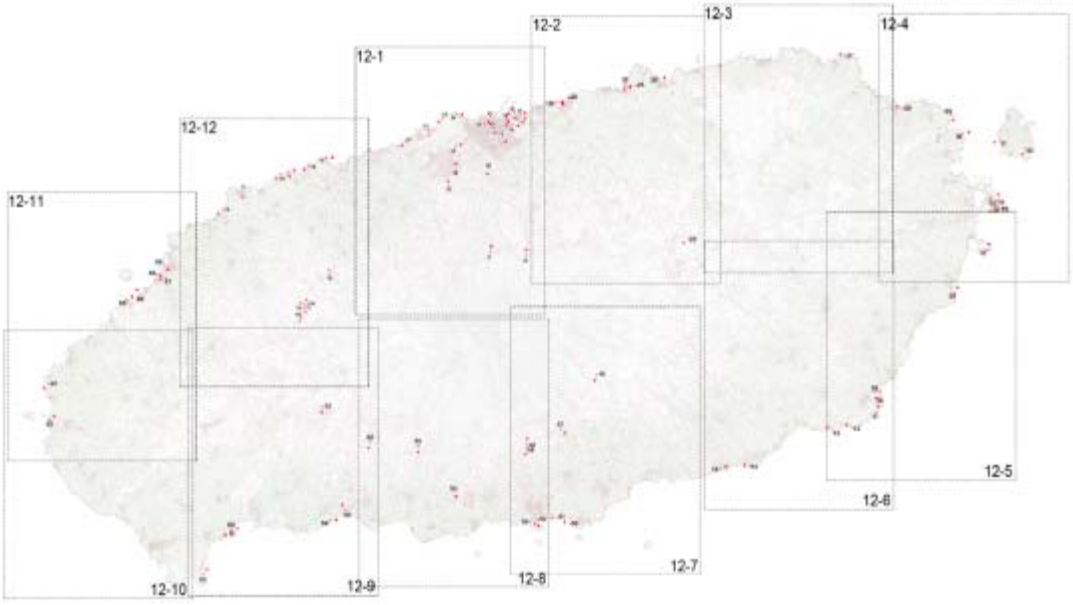
	
개방지수 50	
(1−a/L)×100=50	
형태분절 ×	
층부개방 X 	
개방지수 50	개방지수 50
(1−a/L)×100=50	(1−b+c/L)×100=50
형태분절 ×	형태분절 (b+c=a) ◎

저층부개방(필로티) ○ 	저층부개방(필로티) × 
개방지수 50	개방지수 50
(1−a/L)×100=50	(1−a/L)×100=50
형태분절 ○	형태분절 ◎
저층부개방 (필로티) ○	저층부개방 (필로티) ×
● 동간 이격거리 확보	

[그림 2-27] 개방지수 '50' 기준 적용 건축물 형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p.9-10)

도시경관계획론, 아산재단 연구총서, 집문당, 2008, p.123

이 경관관리지침에서는 시가지 및 주요 도로의 경승지, 해안선을 따라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100곳의 대표 조망점과 각 조망점 별로 '조망방향'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조망점들은 특정한 조망대상으로의 계획 대상이 아니라 위 경관관리지침이 적용될 때의 경관 관리를 위한 '통제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28]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조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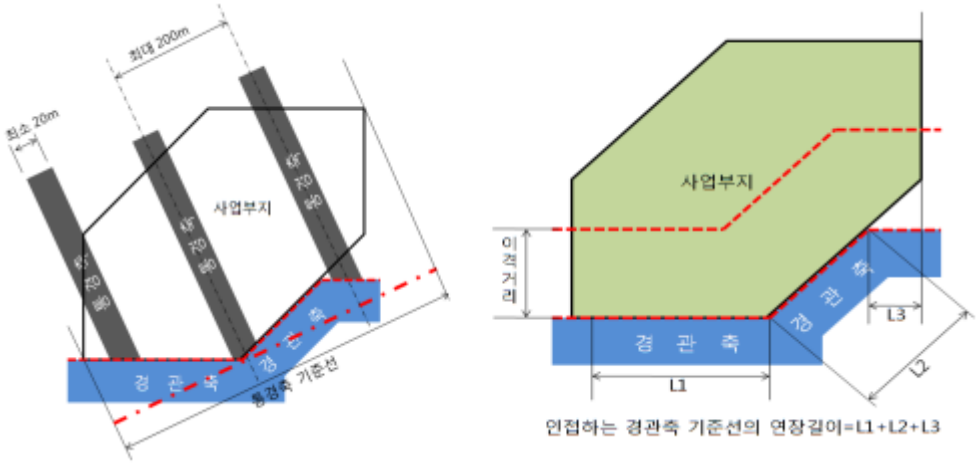


[그림 2-28]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조망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p.13)

한편, 개방지수에 대한 역개념으로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차폐도'를 제시한다. 차폐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관자원을 지칭하는 개념인 정관축에 인접한 영역에서의 건축물 배치 형태를 규정할 때로 정의된다. 차폐도를 "경관축에 면한 차폐부분의 합을 당해 부지가 저촉되는 통경축 기준선 길이와 최고 높은 건물의 높이를 곱하여 나눈 백분율"[22]로 정의하고, 경관축에 대한 관계에 따라 전면차폐도 (경관축의 전면에 인접하여 위치한 건축물들만으로 인한 차폐도)와 조망차폐도 (사업부지 내 전체 건물들로 인한 차폐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제 경관계획에서 이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특정하지 않았으며, 경관위원회가 "여건을 고려하여 차폐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폐도와 관련되는 통경축에 대해서는 경관축에 대하여 "직각방

2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중 경관관리계획 p.301

향의 ±30도를 유지하되 주변지역 시가지의 도로망 패턴 등 도시형태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통경축은 경관축 중심선을 기준으로 200미터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폭은 최소 20미터 이상으로 이도 경관위원회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통경축을 포함할 수 있는 필로티에 대해서는 지면에서 3개 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로 확보하도록 하며, 이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중 제3장 경관관리계획, 2절 경관관리방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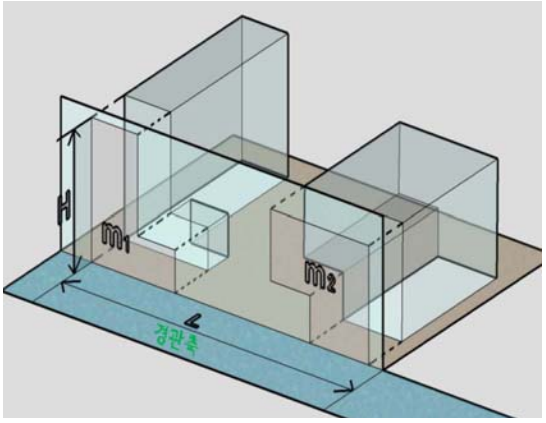
[그림 2-29] 통경축 및 기준선(좌)와 경관축 및 기준선 설정의 개념도
(출처: 전주기 기본경관계획, p.301)

$$\text{차폐도} = \frac{\sum(m1+m2+\cdots i)}{L\times H}\times 100$$

m = 당해 부분 건축물을 경관축 선상에서 가상 수직면에 수직 투영하였을 경우의 차폐 면적

L = 사업부지 양단부에서 경관축을 향해 긋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

H = 당해부분의 건축물 최고높이



[그림 2-30] 차폐도 산정공식
(출처: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p.302)

7) 시각회랑 개념의 적용: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원시 경관계획,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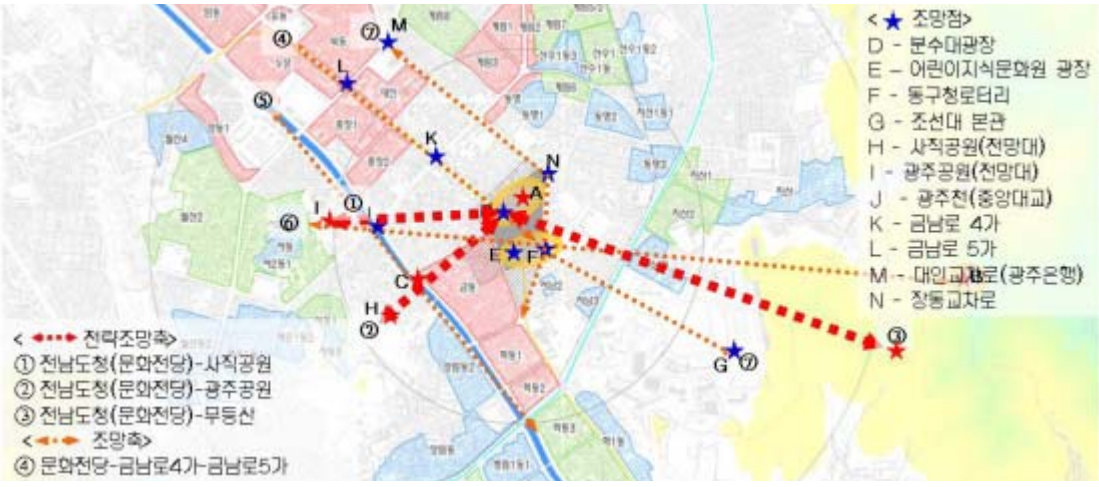
시각회랑(view cone, view corridor, view plane)[23]은 관찰자의 위치(또는 조망점)와 조망대상이 분명하게 정의되는 것을 전제로, 조망대상이 보이는 가시거리와 관찰자로부터 대상이 바라보이는 각도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경관관리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영역에 대한 관리의 내용은 주로 회랑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다. 그동안 주로 국내 도시의 경관계획들이 참조하는 대상으로서 서구 도시들에서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적 개념만으로 소개되어왔지만, 국내 경관계획 사례에서는 드물게 2008년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경관관리계획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광주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준용되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수원시와 전주시의 경관계획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경관계획은 문화전당과 그 주변을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진행하였던 주변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연구 내용을 준용하여 인용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문화전당의 부지 위치를 기준으로 사직공원, 광주공원, 무등산, 금남로 등 지역적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강한 조망대상과 조망축을 설정하였고, 이에 시각회랑의 개념을 적용하여 근경 (500미터 반경), 중경(1킬로미터까지의 반경), 원경(2킬로미터까지의 반경)의 범위를 각각 적용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다. 이 구역 내에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잠재적 목록을 파악하여, 관찰자 시점의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화전당에서 바라보이는 자연적인 능선이 구성하는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입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관계획에서는 문화전당 부지에 위치한 관찰자 시점을 기준으로 조망대상인 무등산 산정의 70% 높이를 경관보호면으로 설정하여 개발사업의 건축높이 한도로 제시하였으며, 문화전당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서도 관찰자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와 높이의 비를 고려하여 그 경관관리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

23) 해외 경관계획에 적용된 개념은 사례에 따라 view cone, view corridor, view plane 등으로 불린다. 특정 조망점의 위치와 조망대상을 정하고 그 사이의 건축물의 형태를 제어한다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공유하며, 각각 강조 또는 규제하려는 기준의 개념에 따라 달리 구분된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p.9 참조. 본 글에서는 각 사례에서 혼용 또는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시각회랑'으로 단일하게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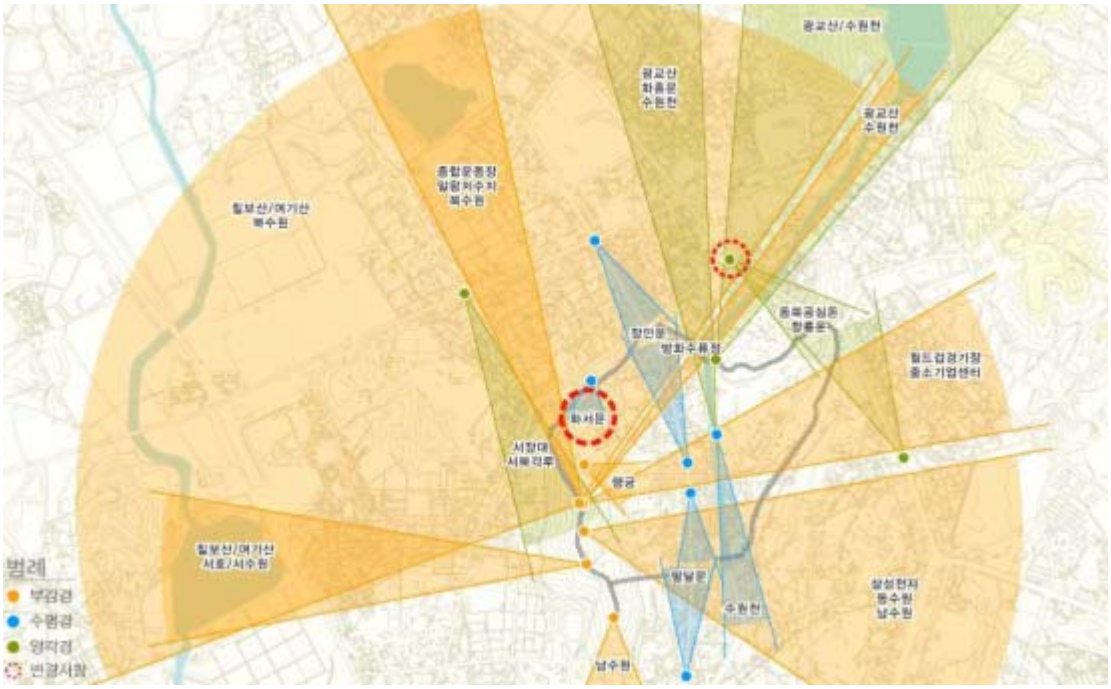


[그림 2-31] 조망점 및 조망축 설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p.32 부분)

[그림 2-32] 문화전당권 개발사업과 경관관리권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연구 요약보고서, p.45 부분)

수원시 경관계획은 2010년에 수립했던 기본경관계획의 주요한 조망점에 대한 계획 내용에 대하여 2015년에 검토, 수정, 재수립한 것이다. 경관계획 내용 중에 '조망경관계획'으로 구분된 내용으로 5년간의 변화에 대한 현장 검토, 조망점 현장에서 실제 조망한 장면을 통해 보다 타당성과 구체성을 더하였으며 향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상술하고 있다. 개별 조망점과 조망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도면상에서 시각회랑 지정, 최고높이 설정, 실제 경관변화의 추적, 시뮬레이션과 현장상황의 비교, 관리대상의 특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를 꾀한다는 점에서 시각회랑을 적용한 다른 사례와 대별된다.

[그림 2-33] 팔달산 서장대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바라본 경관 변화
(출처: 수원시 경관계획, p.145)



[그림 2-34] 역사적 조망점 계획도
(출처: 수원시 경관계획, p.168)

조망대상	경관 관리방안	
장안문		• 장안문 주변 가로수 이전 및 시설물 정비로 팔달문 상징성 강화 • 주변 상업지역 경관 정비를 통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그림 2-35] 장안문길에서 장안문 방향 경관관리방안
(출처: 수원시 경관계획, p.171)

조망대상	경관 관리방안		
광교저수지 제방			• 경기대학교 주변 상업지역 건축물 30m 이상 건축시 차폐 예상 • 장기적인 수변공간 확보를 위해 기 지정된 일반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활용 • 수원천 주변 식재 강화로 수경관축 강조
만석공원			• 만석공원 주변 학교(송원중학교,송정초등학교)입면 개선을 통하여 자연과의 조화 유도 •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광교산 스카이라인 보전
광교산			• 시곡면분석 결과 용도지역별 높이로 인한 조망 차폐 발생 우려 적음 • 광교산 하부 공동주택입면 정비를 통하여 자연과의 조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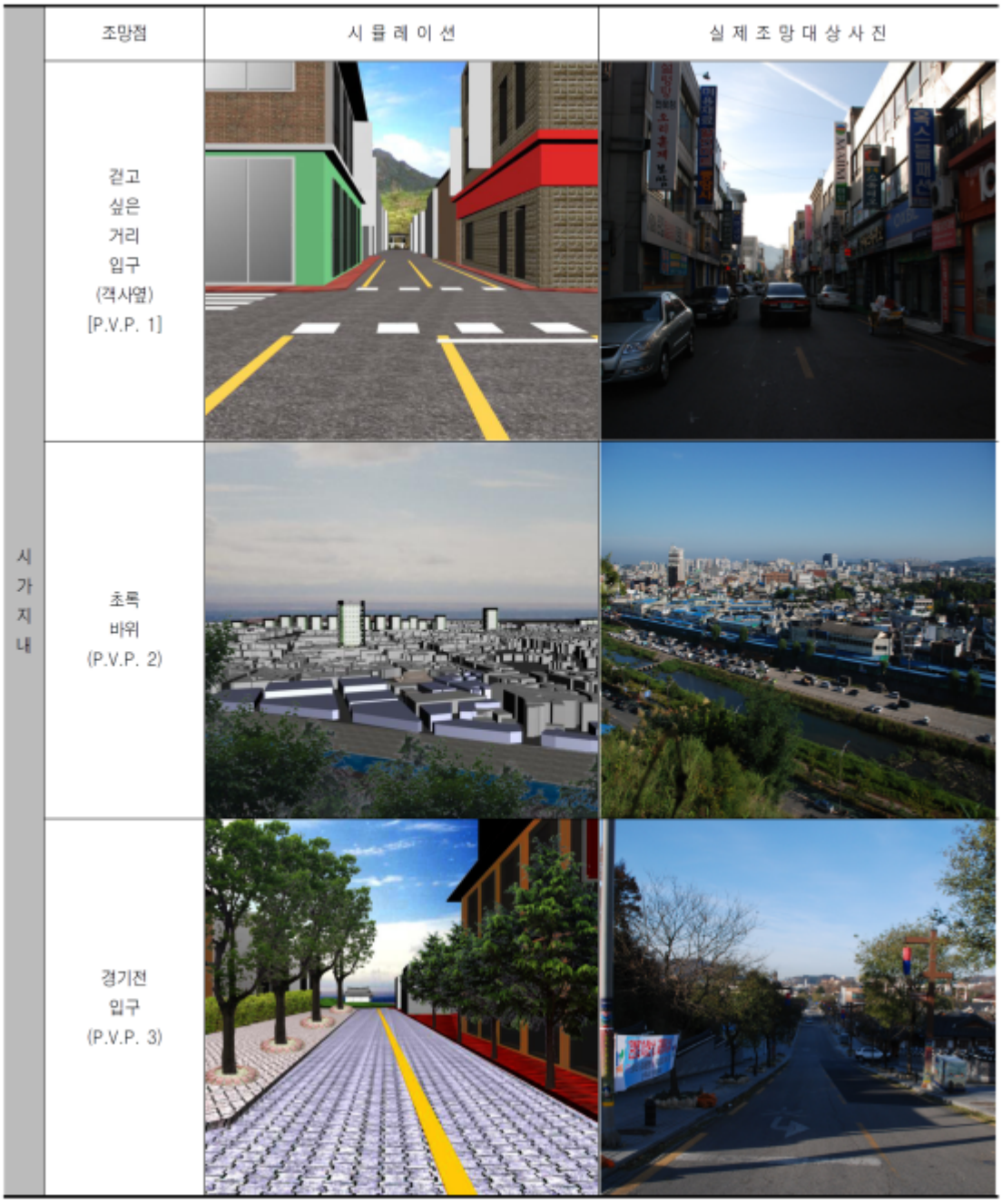
[그림 2-36] 서장대(조망점)에서 각 조망대상을 바라본 시각회랑의 관리방안
(출처: 수원시 경관계획, p.163)

다만, 조망점과 조망대상이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일부 조망점들은 상호 조망대상으로 교차됨으로써 시선의 축을 반대방향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망대상의 거리와 유형(예를 들어, 자연경관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단지 원경만을 '광역조망점'으로 개념화했고, 시선이 평면과 이루는 앙각에 따라 부감경,

수평경, 앙각경 등으로 개념적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경관관리 사항은 주로 건축물(군)의 최고 고도제한과 스카이라인 관리(view plane) 사항과 팔달문, 장안문 등을 향하는 접근도로(view corridor)에서의 가로수, 간판 등 가로·옥외시설물, 건축물의 입면 등에 대한 것 등이다. 조망대상과의 거리, 앙각의 각도, view cone의 각도, 능선에 대한 비율 등의 기하학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다른 경관계획의 사례와 달리 현장에서의 가시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방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조망대상이 산 정상 또는 능선과 같은 자연경관이거나 수원성과 같이 큰 면적 스케일을 가진 원경의 조망대상들이기 때문에 경관계획 내용에서 거리에 따른 경관인식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주시의 기본경관계획은 별도의 장으로 '조망축 기본계획'을 담고 있으며, 모악산, 월드컵 경기장, 풍남문, 전북도청사, 한옥마을을 조망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을 조망할 수 있는 복수의 장소를 특정하게 설정하였다. 풍남문의 경우 걷고 싶은 거리 입구, 초록바위,

[그림 2-37] 풍남문 조망축 및 뷰 콘, 코리더 계획도
(출처: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p.262, 부분)



[그림 2-38] 풍남문 조망점 시뮬레이션 및 실제 사진 비교
(출처: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p.261)

경기전 입구 등 세 곳을 조망점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풍남문을 바라보는 시각회랑을 규정하며, 그에 대한 경관관리의 내용은 조망점 주변과 시각회랑을 이루는 접근로,

조망대상 주변에 대한 경관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최고 고도 제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했던 앞선 두 사례의 시각회랑에 비하면, 규제방식의 관리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주요한 조망대상이 잘 보이는 장소를 찾아 조망축을 발굴하고 그곳을 경관사업 대상지로 지정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 각도, 폭, 높이 등 조망대상과 조망점을 잇는 시각회랑의 물리적 특성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6. 소결: 시지각 특성과 관련한 경관계획의 접근법

경관계획의 실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관계획의 주요한 요소들이 '관념적' 형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즉 경관계획이 그 대상 지역의 경관주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인지하는 방식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지각의 주체인 일상생활 속의 관찰자의 장면적 시점과 위치를 반드시 상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한 특징은 실제 경관계획 사례의 거의 대부분 내용 중에 담긴 분석, 또는 계획 이미지가 부감俯瞰의 시점, 전지적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것에 매우 자주 나타난다. 이점은 경관계획이 가진 몇 개의 현상과 연결된다. 먼저, 관찰자의 위치를 규정된 경관요소를 조망하기 위해 일상의 장소와는 거리가 있는 특별히 움직여야 하는 특정한 지점으로 설정되게 하는 은근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경관계획의 내용 중에서 일상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산 정상이나 차량을 타고 지날 수 밖에 없는 도로 상의 특정 지점으로 '조망 명소'를 정하는 경우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구체적인 시점을 상정하지 않고도 계획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관찰자가 시선을 통해 읽혀지는 전일적인 장면(scene)의 구상이 없이도 개념적인 경관요소를 지도상에 배치하는 것에 보다 경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의 경관계획은 그러한 경관요소를 '형성'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할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경관관리의 측면에서는 구체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찰자 시점이 경관계획의 근원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특히 경관계획수립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요소에 대한 형식적 규정이 있다. 지침을 표면적으로만 따르자면 경관계획의 내용은 관념적인 경관요소의 분석과 배열, 형성 등에 그칠 수 있다. 다른 계획과 달리 시지각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은 지침에서는 특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대응하는 다른 요인은 경관수립 대상지의 현실적인 조건이다. 보통의 관찰자 시점이 일상적으로 위치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조망과 관련한 계획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형태를 많은 부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경관관리의 기준을 세워 준수하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기에는 현재의 환경이 그 기준과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기준 수립의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특정 조망대상을 정하고 가시권 분석이라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을 역으로 계산해냈던 접근법이 주요하게 채택되었던 것에서 그러한 현실적인 난점을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조망 대상 자체를 현재의 조건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하는 방식은 조망과 관련한 계획이 현실적인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건임을 반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정된 조망점의 위치가 앞서 언급한대로 일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난 특수한 경우이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장면 속에서 조망 대상의 인지 특성과 경관요소로서의 의미나 매력도가 매우 떨어지는 경우는 조망계획의 수립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조건이 반영되는 경향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한 경관자원이 도심지 내에 존재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존에 지형 정보만 반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상세한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현실에 보다 근사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또한 경관계획이 수정, 재수립되면서 계획의 내용과 현실에서의 조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반영되고 있는 점도, 관찰자 시점의 시지각 인지특성이 경관계획에 보다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찰자의 시점과 그에 적용될 수 있는 시지각 인지특성과 직접 관련되는 조망계획들이 시도되는 것을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의 사례는 대부분 조망대상의 크기가 매우 큰 지형경관 요소로서 산 능선, 특정 지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정한 위치에 원경에 있는 복수의 조망대상을 바라보는 시각회랑들이 결집하는 조망계획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때 관찰자가 보게 되는 구체적 장면이 계획에서 검토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관리수단이 되는 기준으로서의 기술적 정의(문화전당 경관관리계획 및 부록 참조)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가진 틀은 근경을 이루는 상황적 요소(예들 들어, 가로수, 옥외시설물 등)들과 원경을 이루는 조망축의 구조 요소(거리, 조망대상의 형태 등)와 같이 관리를 위한 영역적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어, 장면을 이루는 전체 요소가 시지각에 미치는 중첩된 영향이 고려되거나 거리에 따라 조망대상의 경관요소로서의 의미가 조락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아직은 모델로만 제시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시지각 관련 내용의 기본 요소는 첫째, 관찰자의 위치로서 조망점, 둘째, 시지각 인지의 대상으로서의 조망대상, 셋째 조망점과 조망대상과의 관계로 인해 규제를 받는 대상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관찰자가 가진 인지(능력) 특성과는 별도로 이 근본적 요소들은 거리와 평면에서의 각도에 따른 상대적인 위치, 조망 대상의 크기, 높이 등의 물리적 형태, 시지각 축에 조망대상과 그 외 물리적 요소들이 배열되는 순서 등 복합적 조건의 조합에 따라 관찰자의 시지각 인지의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환경을 지각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관찰자의 시지각 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의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오지 않았던 관찰자의 시지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의 새로운 조합 조건을 탐색할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시지각 개념 및 실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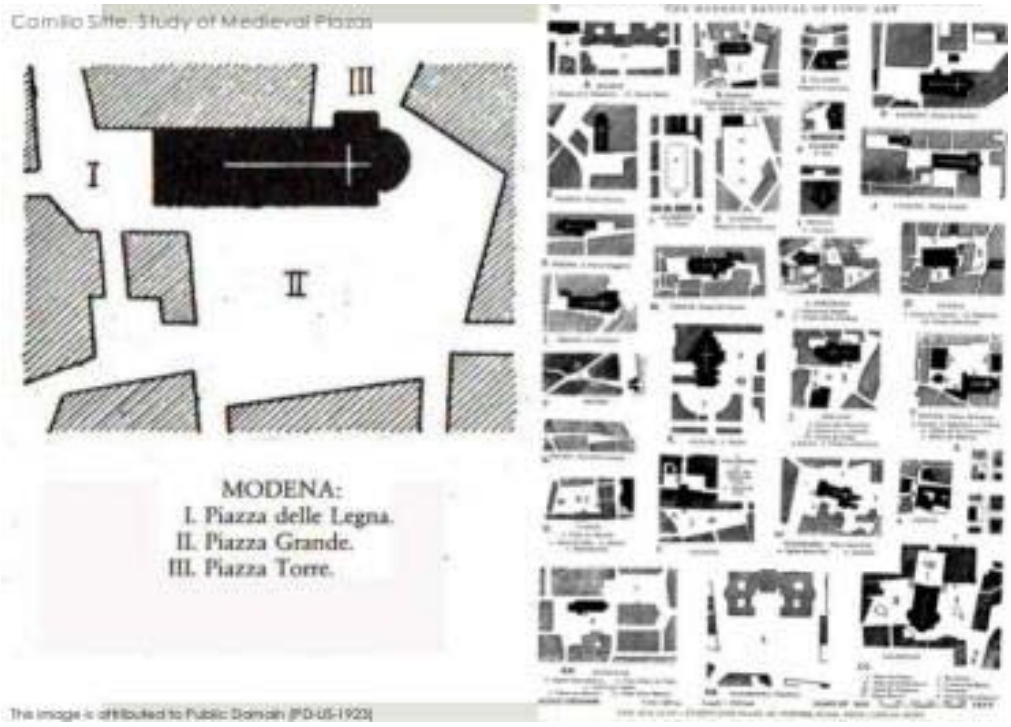
1. 공간측면에서의 시지각 개념
2. 인체측면에서의 시지각 개념
3. 시지각 실험의 구성

1. 공간측면에서의 시지각 개념

도시공간을 다루는 연구자 중 공간에서의 시각적 경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원리로서의 시각적 경험을 제시한 카밀로 지떼(Camillo Sitte)는 도시이론의 선구자중의 한명으로서 도시공간의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24] 카밀로 지떼는 도시에 대한 논의의 축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숙고하였으며, 실제로 건축물의 벽면을 통해 가로를 구성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와 경관의 구성에 대해 많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지떼가 제시한 도시공간의 구성원리들은 시지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공간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 행태적인 접근들을 앞서, 시지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가로의 축과 광장에서 만들어지는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시선은 자유로이 흘러나가서는 안된다고 보았으며 일정한 위요를 통해 , 특히 공간의 모서리와 중심을 정의함으로써 도시공간구조를 구현하고자 한 지떼의 시각은 공간측면에서의 시지각적 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24) Collins, G. R. and Collins, C.C(2006), Camillo Sitte: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Dover Books on Architecture,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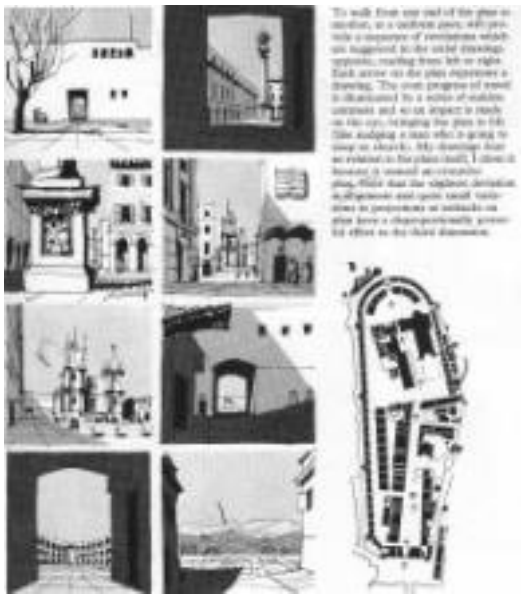


[그림 3-1] 카밀로 지떼의 건축적 벽면의 배치에 관한 연구
: 카밀로 지떼에게 건축물은 도시공간을 구현하는 수단이었다. 건축물, 정확히는 건축적 벽면의 배치를 통해 시민들이 경험하는 도시공간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출처: Camillo Sitte, Study of Medieval Plazas This image is attributed to Public Domain (PD-US-1923))

이러한 지떼의 논의는 고든 쿨렌(Gordon Cullen)의 타운스케이프(Townscape)에서도 이어지는데, 고든 쿨렌은 연속적인 시각적 경험이야 말로 도시설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질로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망보다도 하나의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이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관찰자의 시선을 도시공간 구성의 주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쿨렌의 주목은 개별적인 공간이 소외되고, 고립되어버린 모더니즘 시대의 도시계획, 도시공간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각을 통해 이전시대의 인간적 스케일, 유기적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떼의 고민을 재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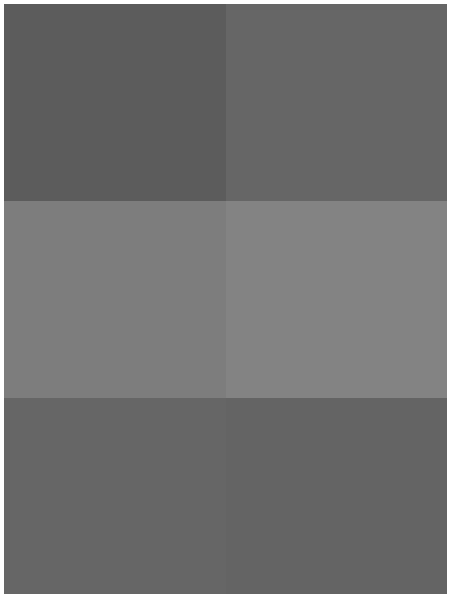
고든 쿨렌의 논의를 도시설계 방법론의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그의 저서 New Theory of Urban Design에서 공간의 시각적 호응이야말로 도시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며 산산히 조각날 수 있

는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통합하며 엮어내는 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간의 전일성(wholeness)를 주장하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공간을 엮어내지 못하는 근대주의 도시공간을 혹독하게 비판해 왔으며, 공간을 연속적으로 또한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로 시각적 접근성과 호응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와 연결된 부분, 부분에 호응하는 전체라는 시각적 네트워크가 도시설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주장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주장은 시지각적 원리를 도시공간 구성의 주요요소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카밀로 지떼와 고든 쿨렌이 제시한 사고의 흐름을 잇고 있다.



[그림 3-2] 고든 쿨렌의 연속적 장면

: 고든 쿨렌은 연속적인 시각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특질에 대해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출처 : Gordon Cullen, 1961, p.17)



[그림 3-3] 시각적 호응을 고려한 도시공간
: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분절된 공간을 통합시키는 원리로서 시각적 호응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Christoper Alexander, et. al., 1987, p.232)

지오프리 브로드아벤트(Geofrey Broadabent)는 Emerging Concepts of Urban Space Design에서 도시설계의 핵심적 가치는 도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연속적인 경험의 질을 도시공간내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별적이고 단속적인 일부 공간을 가꾸는 것에 도시설계가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든 쿨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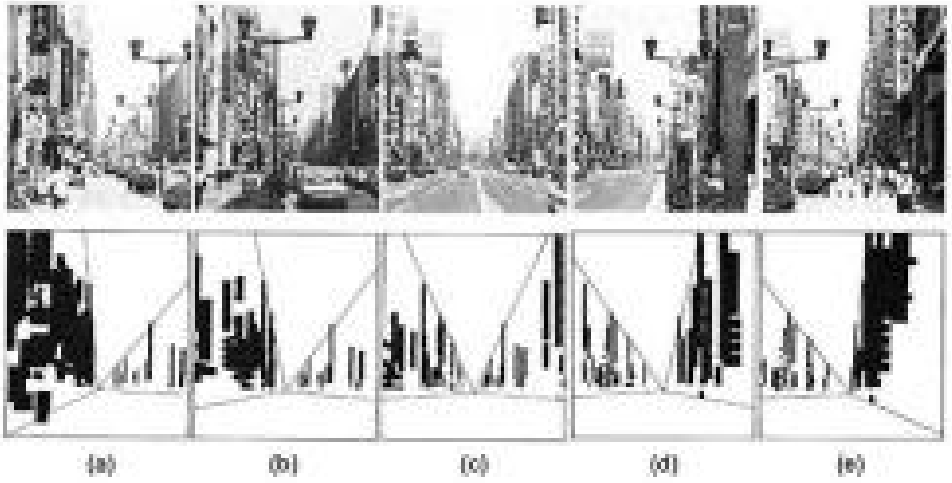
제기했던 연속적인 시각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연속적인 일반경험의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도시에 대한 체험은 시각적인 체험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시각외에도 청각이나 촉각, 후각, 때로는 미각도 포함될 수 있다. 지오프리 브로드아벤트의 주장은 시지각적 측면 이외의 것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간의 이용에 있어 단일한 장소나 건축물에 국한되지 않는 연속적인 공간의 이용을 통한 도시민의 체험을 어떻게 고려하고 개선할 것인가하는 것을 도시설계의 주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관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좀더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간적 외연을 확장한 야간경관, 감각적 외연을 확장한 소음경관, 후각경관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의 공공공간, 또는 가로에서 이동하고 경험하는 관찰자의 시점과 속도를 고려하면서, 즉 관찰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도시의 물리적 요소들을 조직하고 엮어내는 작업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경관계획에서 담아내는 것은 학술적, 실무적 전통에서 볼 때 너무도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설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공간자체의 이용과 구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반해, 공간을 이용하는 공간주체의 시지각적 체험, 특히 연속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도시설계나 경관계획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지각적 특성에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지각적 특성에 관련한 공간연구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획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한 연구성과들은 매우 제한적인데, 그러한 이유는 공간의 이용자들의 감각적 한계는 개인적인 특성, 물리적인 환경여건,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동향을 살펴 볼 때, 인간의 감각적 한계 또는 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식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공간에 대한 감각과 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식도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기존의 공간과 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연구자들로는 폴 슈프라이레겐(Paul Spreiregen)이나 요시노부 아시하라(Yoshinobu Ashihara)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관찰자의 시각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도 실증적인 연

구성과를 크게 거두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실증적인 근거의 중요성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전개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서는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에 있어 널리 인용되고 있으나 그 실험 과정과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일반적인 도시공간에서 시지각의 한계를 120m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실험결과에 따르면 도시공간 내에서 120m떨어진 물체는 매우 큰 고층건물이 아니면 인지조차 되기 어렵고, 상당한 정도의 고층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시야에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림 3-4] 도시공간 내 관찰자의 시각에 따른 경관 효과
: 아시하라는 도시공간 내에서 관찰자의 시각적 특성에 기반하여 경험하게 되는 경관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출처 : Yoshinobu Ashihara(1983), 「The Aesthetic Townscape」, pp.82-83)

이 연구에서는 이상으로 카밀로 지떼, 고든 쿨렌,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브로드아벤트 등 상호연관된 공간구성에 있어 인간의 시지각적 연계를 고려한 이들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전개와 연관성을 정리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론적 정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경관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계획원리 및 요소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슈프라이레겐이나 아시하라와 같은 기존 연구자들의 관찰자의 시지각 및 인지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증실험에 대한 설계의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인체측면에서의 시지각 개념

이 절에서는 인체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의 시지각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도시공간내의 관찰자로서의 인간 시지각의 공간적 한계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실증 실험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5] 시지각의 한계; 수평, 수직, 대각선으로 측정이 가능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gle_of_view.sv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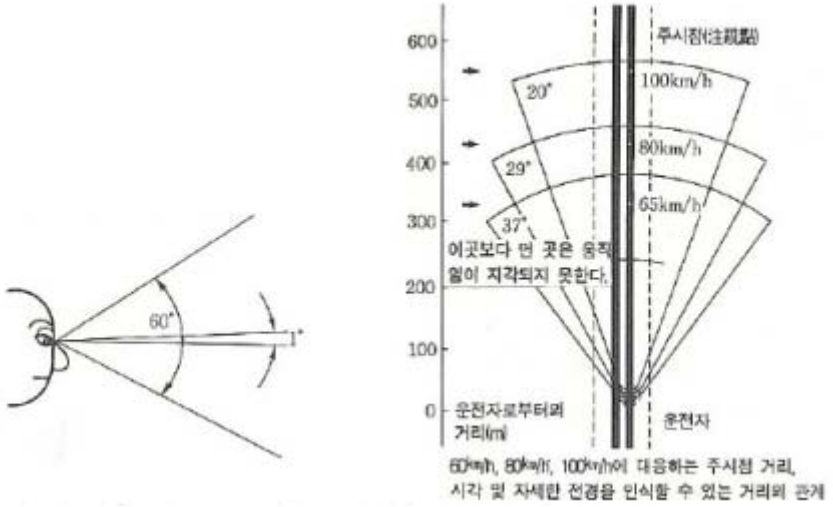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양안시의 환경에서 5.8도의 시각은 미터당 102mm로 환산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거가 10도 미만인 경우에는 m당 시지각 거리 M과 시지각 각도A의 환산은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따르고 있다.

$$A \approx \frac{360^\circ}{2\pi} \cdot \frac{M}{1000} \approx 0.0573 \times M$$

$$M \approx \frac{2\pi \cdot 1000}{360^\circ} \cdot A \approx 17.45 \times A$$

인간 안면의 수직 중심축에서 상하좌우 60° 범위의 시원추체가 판단이 가능한 인지 공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특정 상징물이 인지되는 한계는 5°-30°이며, 문자가 인지될 수 있는 한계는 5°-10°의 범위로 정리될 수 있다.[25] 시야 원추설은 시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점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속도에 의하여 시야는 변하게 된다.

이동 속도의 증가에 따라 동시야와 주시점 거리변화를 살펴보면 보통 속도증가에 동반하여 대상의 상세한 부분은 보이기 어렵게 되며 유효시야는 좁아지게 된다.[26]



[그림 3-6] 이동속도에 따른 시지각의 범위
(출처 : 시노하라 오사무,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배현미 외2 역, 대우출판사, 1999 p80)

인간의 시지각 능력은 게스탈트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단계로 연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1930년대 이후 많은 연구주제에서 제시되어 온 게스탈트 조직이론은 인간이 개별적인 부분을 하나의 조직된 전체로 시각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근접성, 유사성, 노출, 대칭, 공통성, 연속성 등이 게스탈트 구성과 과거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인지이론의 분석을 도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물리적인 도시공간에서 인간이

25) 한양대학교, 상가건물 facade와 장치물 및 간판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연구보고서, 1976R76-32(.PP13-18)
26) 시노하라 오사무,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배현미 외 공역, 대우출판사, 1999, p80, 인용 후 편집

가지는 시지각의 한계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의 시각은 시력은 일정한 제한이 주어진다. 시력은 대상이 전개되는 시각의 역수로 정의되며 대상의 크기(길이)의 약 3.438배의 거리로부터 해당 대상을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7]

인간이 가지는 시력의 한계로 인해 시지각 거리는 경관분석의 중요한 잣대가 되며 가까운 거리부터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표 3-1] **시지각 거리에 따른 경관요소의 특징**

구분	거리	경관요소와 특징
근경	5m 미만	-디테일한 경관요소의 특징 파악가능 -인간의 경우 표정인식과 활동식별이 가능하며, 건축물은 규모, 색채, 형태, 질감, 서체 등 건축적 인상을 식별 가능
중경	5m~10m	-조망 대상이외의 환경구성물이 시야에 들어옴 -수목의 형태가 인식 가능한 영역이며, 인간의 경우 존재를 인식 할 수 있는 정도. 건축물은 도시경관으로 파악 가능
원경	10m 이상	-다른 경관요소와 중첩의 특성과 전체적 조화의 여부 인식 -수목을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경우 군집 형태로 인지되고, 건물의 경우도 군집형태로 지형의 윤곽이나 스카이라인이 더 중요시 되는 영역

* 출처: 박우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경관계획 수법에 관한연구, 2005, p37; 엄소연, 시선축과 시지각 원리에 근거한 가로공간 특성연구, 2011, p21; 두 연구의 내용을 인용하여 편집

인간의 시각을 바라보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낮은 평야지대에서 높은 곳에 있는 대상을 볼 때와 산처럼 높은 곳에서 시가지를 내려 보는 경우, 거리에서 주변경관을 관찰할 때 모두 다른 시각적 특성을 지닌다.

오성훈 외(2003)의 『관찰자 기준의 도심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연구』에서는 물리적 기준의 높이제한이 아닌 관찰자의 시점을 고려한 문화재의 건축높이제한을 제시하

27) 박우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경관 계획 수법에 관한 연구, 2005, p28

기도 했었다. 아래 표는 조형물이나 건물의 정면을 관찰하여, 관찰시점에 따른 건물 상단부까지의 높이(H)와 시지각 거리(D)의 비율변화에 따른 인지적 특징을 상술하고 있다.[28]

[표 3-2] D/H비에 따른 공간의 인지

각도	D/H	인지적 특징
상향각 12~10°	4.5~4.7	대상이 포근하게 느껴지며 건물정면이 원경의 하나로 포함되고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음
상향각 18°	3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원경에서 대상물을 인식하게 됨
상향각 27°	2	전체를 전망하는 위치로 정면이 세부적인 것과 전체를 동시에 봄
상향각 45°	1	대상 전체를 볼 수 없고 건물 정면의 세부를 봄

* 출처: 유현석 외2,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P18

경관, 조망점 등을 논할 때, 관찰대상이 되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관찰가능영역을 산정하는 것과 일정한 관찰자들의 조망점, 조망영역을 산정하고, 그 관찰지점에서 관찰가능한 경관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은 기준점은 서로 상이하지만, 결국은 관찰자의 시지각적 한계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지각적 한계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28) 유현석 외2,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02, p.17

3. 시각적 실험의 구성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공간속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많은 변수가 개입되어 명확한 인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그중 본 연구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험 설계의 구성에 참고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고찰

□ Davies, A. and Laing, R. (2012)의 연구[29)]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각 실험에서 8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9개 버전의 이미지군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용한 전체 이미지는 가로경관 36장, 녹색경관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워포인트로 피실험자에게 제시하고 물리적인 대상, 비물리적인 대상, 대상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사전에 언급된 내용이 실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실제로 이미지에 대한 인지내용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실험방법적으로 볼 때 이 연구는 사진을 이용한 PPT실험을 주로 하고 있는데, 유사한 연구들을 볼 때, 실험 의도에 적합한 실험환경을 제작하고 피실험자에게 반복하여 실험을 시행하기 용이한 점이 있으나, 피실험자 입장에서 현장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Morteza Asgarzadeha. et al.(2012)의 연구[30)]

이 연구에서는 15m, 30m, 60m의 다른 높이의 건축물, 15개의 서로 다른 나무와 거리로 조합된 영상을 피실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실험을 진해앟고 있다. 이를 통해 압박감의 인지, 압박감으로 인한 불편함, 개방성, 개방성으로 인한 불편함, 편안함 등을 질문하여 답변을 끌어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 질문을 시행하는 방법은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대규모 영상을 기울여 설치한 후 피실험자에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영상이 가지는 현장감의 저하를 최대한 장비로 회피하고자 시도한 부분이 차별적이다.

---

29) Davies, A. and Laing, R., "Images and Stated Preferences: Do people need to be told what the attributes are or do they notice them anyway?", IAPS Conference Proceeding, 2012, pp.139~148.

30) Morteza Asgarzadeha, et al., "Measuring oppressiveness of street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012, pp.1~11

영상 속의 높이, 거리에 따른 인지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로 본 연구와 내용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영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7] 대형 영상장비를 활용한 시각인지 실험
(출처 : Morteza Asgarzadeha, et al., "Measuring oppressiveness of street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012, p.5)

□ Philip Thiei.(1986)의 연구[31)]

이 연구는 Sequential-Experience Notation, 즉 걸어가면서 보이는 주변의 건축적인 자극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을 피실험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나의 건축적 대상 주변을 가상적으로 영상을 통해 돌아보면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공간의 기록을 위한 코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코드는 향후 여러가지 연구에서도 인용되어 그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실제 실험에서는 선분으로만 그려진 1점 투시도와 실제 바닥, 벽, 천정 등이 그려진 투시도를 비교하도록 하였으며, 공간적인 개방감의 변화를 준 투시도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배열한 후 개방감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각적 인지의 변화를 그림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는데, 역시 현장에서의 설문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31) Philip Thiel, "The Perception of Spatial Enclosure as a Function of the Position of Architectural Surfaces", Environment and Behavior, 1986, pp.227~245

□ Jon Cooper. et al.(2013)의 연구[32)]

이 연구에서는 가로의 시각적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진으로 실시하여 경관축에 대한 프랙탈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의 연구이지만 영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시각적 질에 대한 설문평가를 시행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는데, 연구 자체는 설문결과는 간단히 도출하고, 프랙탈 분석결과와의 연계를 통한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 Gabriele Garnero. et al.(2015)의 연구[33)]

이 연구는 시각적 한계를 근거로 핵심적인 경관자원의 최대 조망가능영역을 3차원적으로 계산하는데, 계절별 가시거리에 대한 고려를 통한 GIS를 통한 맵핑을 방대한 계산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 역시 건축물과 지형에 의한 차폐를 바탕으로 한 시각적 차단을 근거로 한 가시영역, 또는 조망영역을 도시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물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시지각적 한계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일정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8] 가시거리 1.6km로 가정한 가시영역도면

(출처 : Gabriele Garnero et al., "Visibility analysis in urban spaces: a raster-based approach and case studies ",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15, p.700

32) Jon Cooper et al., "The Influence of Fractal Dimension and Vegetation on the Perceptions of Streetscape Quality in Taipei: With Comparative Comments Made in Relation to Two British Case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13, pp.13-62.

33) Gabriele Garnero et al., "Visibility analysis in urban spaces: a raster-based approach and case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15, pp.688-707.

□ Jan, Ketil . Rød .et al.(2009)의 연구[34)]

이 연구는 고층건물에 대한 시각적 접근과, 압도감에 대한 연구로 기존건축물과 가로수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실험은 기존 가로를 촬영한 사진과 다른 요소들을 합성한 사진을 비교하면서 심리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질문을 시행하였다. 이는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여 경관요소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로 경관요소 자체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경관적 변화가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이다.

□ Denis J Dean. et al.(2007)의 연구[35)]

이 연구는 산림벌채시 경관의 미적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각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여러 버전의 사진을 벌채지점 주변에서 만들어서, 사진별 쌍대비교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 또한 장애물에 의한 시선차단, 거리에 따른 인지가능성 저하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어, 지형과, 거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지각적 한계를 다루고 있다.

□ Philp Steadman.(2004)의 연구[36)]

이 글은 Space Syntax의 기본적인 전제의 변화; 사람들은 Axial map에서의 축선을 인지하고 움직일 것인가? 인지거리의 한계개념을 적용할 경우, Space Syntax의 변화방향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간구문론에서 개별적인 네트워크의 재현물과 다른 교통모형간의 차이는 심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도시지역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거리한계를 적용하지 않는 축선도를 상정하는 공간구문론은 실제로는 시지각 한계에 의해서 한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기존의 통합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장이다.

---

34) Jan Ketil Rød et al., "Visibility and Dominance Analysis: Assessing a High-Rise Building Project in Trondheim",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09, pp.698-710.

35) Denis J Dean et al., "Modeling the Magnitud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Aesthetic Impacts",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07, pp.121-138.

36) Philip Steadman, "Developments in space syntax",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04, pp.483-486

2) 선행연구 시사점 및 시각적 실험 구성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실험이 매우 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연구의 틀에 있어 거리를 기준으로 시각적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영상을 주로 시행되고 있는 공간적 인지에 대한 실험에 비해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며, 또한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인지의 변화양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경관영향 요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거리와 각도에 대한 기본적인 시지각 한계가 도출되면 실제 경관계획에서 고려되는 개별적인 조망점과 조망가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물리적인 한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경관계획의 경관요소가 조정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지각 특성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도시 경관계획에서 설정된 조망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관찰자들을 대상으로 경관인지결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관계획상의 시지각 특성의 적절성에 일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시지각특성의 한계를 도출하고, 그러한 한계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기존의 경관계획의 개선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으로 경관계획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경관자원 중 선적인 자원을 배제하고, 중요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점적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강도의 변화에 대한 측정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선적인 경관자원은 점적인 경관자원에 대한 변화가 측정된다면, 다시 그 결과를 선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선형으로 확장한 결과에 대한 검증은 다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부분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실험방법으로는 다수의 피실험자를 다수의 경관자원이 입지한 현장에 인솔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설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명의 인솔자가 10명의 피실험자를 인솔하여, 선정된 경관자원에 접근하여, 주요 접근로에서 경관자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고, 각 관찰지점을 20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실험자들이 인지강도에 대한 설문응답을 하는 것을 여

러 경관자원에 대해 반복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실험에 대한 잠정적인 예상결과는 관찰자의 위치변화에 따라,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강도, 의미의 중요도, 색채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이 관찰거리가 증가하면서 각각 상이한 gradient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 추정되는 시지각 한계거리를 기존의 조망축 및 경관자원 주변의 계획범위에 적용하여, 기존의 경관계획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관자원의 관점에서는 관찰영역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각적인 보호한계를 명확히 하여, 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의 구체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Space Syntax에의 함의도 가지고 있어 시각적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Axial map,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도의 산정 등을 확률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4장 시지각특성 실험 및 결과

1. 실험의 개요
2. 실험의 결과
3. 통계적 분석
4. 소결

1. 실험의 개요

1) 실험의 목적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지각 특성 실험은 인공적인 경관자원의 시지각적 인지특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구축하여,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시지각 인지특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실험 방법

□ 실험항목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항목에 대한 시지각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인지강도로서, 경관자원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주변 경관 속에서 쉽게 인지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두 번째는 색채강도로서, 경관자원의 색상이 두드러지는지, 그 색상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의미강도로서, 경관자원이 경관 속에서 주요한 요소로 느껴지는지를 측정하였다. 네 번째는 경관평가로서, 경관자원을 포함한 경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 경관평가는 모두 리커르트 9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 주요내용

시지각특성 실험은 주요 유형별 경관자원에 대해 거리증가에 따른 시지각 인지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실험대상자를 인솔하여 개별 경관자원 위치에서 거리에 따른 인지변화를 측정하였다. 인지에 대한 실험내용은, 경관자원에 대한 기존의 인지여부, 상징성에 대한 설문 후,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가능성, 경관자원의 색채에 대한 인지가능성, 인지된 경관에서의 중요도 등이 관측거리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강도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 실험계획

주요 유형별 경관자원에 대해 관측거리 증가에 따른 시지각 인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여러 도시의 다양한 유형의 경관자원을 선정하고 경관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물리적, 상징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선정된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12인의 인솔자와 각 인솔자당 10명의 피실험자를 섭외하여, 개별 경관자원으로부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12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각각 경관자원 촬영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하나의 경관자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인접한 경관자원으로 이동하여 동인한 설문을 반복하였다.

총 12명의 인솔자당 5개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중복된 경관자원 10개를 제외하면 총 50개의 경관자원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 실험의 목적 및 의의

일반적인 시지각특성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도시 경관계획에서 설정된 조망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관찰자들을 대상으로 경관인지결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관계획상의 시지각 특성을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경관자원의 시지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시지각 특성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 한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기존의 경관계획의 개선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지각 특성 실험은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거리 증가에 따른 인지도, 의미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정량화함으로써, 관찰자의 관점에서 경관가자원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경관에 대한 관찰자의 시지각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경관계획에서 고려되는 개별적인 조망점과 조망가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물리적인 한계에 기반해서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경관계획의 경관요소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피실험자 특성

피실험자는 총 149명으로, 남성이 63명, 여성이 9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피실험자의 평균 신장은 167.1cm이며, 평균 연령은 24.5세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지만, 신장은 160~179cm(155명 중 109명, 70.3%), 연령은 20대(155명중 112명, 72.3%)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피실험자의 모집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4-1] 피실험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피실험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63	40.6%
	여성	92	59.4%
	합계	155	100.0%
신장	150~159cm	29	18.7%
	160~169cm	62	40.0%
	170~179cm	47	30.3%
	180~189cm	17	11.0%
	합계	155	100.0%
연령	10대	24	15.5%
	20대	112	72.3%
	30대	7	4.5%
	40대	9	5.8%
	50대	2	1.3%
	60대	1	0.6%
	합계	155	100.0%

4) 대상 경관자원

경관자원 유형은 크게 건축물, 조형물로 분류하였으며, 건축물 41개소, 조형물 8개소로 총 49개소의 경관자원을 대상으로 시지각 특성 실험조사를 수행하였다. 경관자원별 평균 응답 수는 14.6건이며, 건축물을 대상으로 602건, 조형물을 대상으로 117건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피실험자 수와 응답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명의 피실험자가 5~6개의 경관자원에 대해 응답하였기 때문이며, 총 155명의 피실험자가 총 777건 응답하였으며, 응답 수의 유효표본은 총 719건이었다.

[표 4-2] **경관자원별 응답 수**

경관자원명	응답 수	경관자원명	응답 수
광화문	11	신도중학교	33
숭례문	10	은평제일교회	10
독립문	22	이마트트레이더스(아산점)	24
장안문	8	일민미술관	23
팔달문	9	천안 종합운동장	54
화서문	7	중앙우체국	10
금성당	6	진관동 주민센터	11
동십자각	11	천안박물관	23
보신각	8	천안시청	23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32	천안아산역	8
서울시청 구청사(서울도서관)	32	테마공원기념관	10
서울시 (신)시청	33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11
서울특별시의회	19	화성행궁	8
서울역(문화역서울 284)	10	흥국생명빌딩	21
세종문화회관	10	우리금융아트홀	8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12	88서울올림픽 조형물	
갤러리아 백화점(아산점)	11	가상의구	
동남구보건소	11	세계평화의 문	25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2	세종대왕동상	12
롯데몰 은평점	10	양천공원 조형물	10
목동종합운동장	12	올림픽운동조형물	10
새빛 둥둥섬	8	이순신동상	10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13	청계천'스프링'(조형물)	10
수원역	11	파리공원 조형물	8
수원종합운동장	8	합계	719

2. 실험조사 결과

1)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의 평균점수 변화

□ 인지강도

인지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표 4-3]는 각 인지강도의 응답율 분포가 거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거리의 변화에 따른 경관자원에 대한 인지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강하게 인지가 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인지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20미터에 도달하면 인지강도가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이 20m지점에 비해 응답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관자원이 대체로 중간이하의 인지강도를 가진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적었으며, 이러한 답변을 한 응답비율은 거리가 증가하더라도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인지강도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40m에서 60m로 변화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인지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인지강도		20m		40m		60m		80m		100m		120m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약	1	1	0.1%	0	0.0%	0	0.0%	3	0.4%	7	1.0%	3	0.4%
	2	5	0.7%	3	0.4%	1	0.1%	3	0.4%	13	1.8%	3	0.4%
	3	14	1.9%	9	1.3%	12	1.7%	20	2.8%	19	2.6%	20	2.8%
	4	20	2.8%	23	3.2%	17	2.4%	25	3.5%	52	7.2%	25	3.5%
중	5	48	6.7%	41	5.7%	61	8.5%	69	9.6%	74	10.3%	69	9.6%
	6	62	8.6%	63	8.8%	89	12.4%	107	14.9%	111	15.4%	107	14.9%
	7	132	18.4%	142	19.7%	150	20.9%	147	20.4%	160	22.3%	147	20.4%
	8	129	17.9%	199	27.7%	199	27.7%	190	26.4%	134	18.6%	190	26.4%
강	9	308	42.8%	239	33.2%	190	26.4%	155	21.6%	149	20.7%	155	21.6%
합계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 색채강도

색채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표 4-4]는 각 색채강도의 응답율 분포가 거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거리의 변화에 따른 경관자원에 대한 색채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지강도에 비해 덜 강하게 인지가 된다는 답변이 많았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색채강도는 인지강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20미터에 도달하면 인지강도가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이 20m지점에 비해 응답율이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색채강도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9, 8 등의 최고 강도의 수준에 답변이 집중되어 있어 실험대상자가 관찰한 경관자원이 가지는 색채강도가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0m에서 60m로 진행하면서 색채강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파악된다.

[표 4-4] **색채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색채강도		20m		40m		60m		80m		100m		120m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약	1	2	0.3%	0	0.0%	0	0.0%	4	0.6%	11	1.5%	21	2.9%
	2	9	1.3%	7	1.0%	9	1.3%	11	1.5%	20	2.8%	45	6.3%
	3	20	2.8%	30	4.2%	30	4.2%	38	5.3%	44	6.1%	62	8.6%
	4	37	5.1%	40	5.6%	47	6.5%	62	8.6%	68	9.5%	76	10.6%
중	5	62	8.6%	51	7.1%	70	9.7%	88	12.2%	119	16.6%	117	16.3%
	6	97	13.5%	108	15.0%	109	15.2%	126	17.5%	145	20.2%	115	16.0%
	7	117	16.3%	152	21.1%	176	24.5%	150	20.9%	116	16.1%	109	15.2%
	8	157	21.8%	156	21.7%	163	22.7%	153	21.3%	113	15.7%	94	13.1%
강	9	218	30.3%	175	24.3%	115	16.0%	87	12.1%	83	11.5%	80	11.1%
합계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 의미강도

의미강도에 대한 응답 구성율의 변화[표 4-5]는 각 의미강도의 응답율 분포가 거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거리의 변화에 따른 경관자원에 대한 의미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색채강도에 비해 다소 강하게 인지가 된다는 답변비율이 크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의미강도는 인지강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20미터에 도달하면 색채강도가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이 20m지점에 비해 응답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색채강도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미강도의 분포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 보다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시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40m에서 60m로 진행하면서 의미강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5] **의미강도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의미강도		20m		40m		60m		80m		100m		120m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약	1	2	0.3%	3	0.4%	3	0.4%	10	1.4%	13	1.8%	30	4.2%
	2	9	1.3%	8	1.1%	17	2.4%	12	1.7%	24	3.3%	35	4.9%
	3	36	5.0%	33	4.6%	24	3.3%	40	5.6%	61	8.5%	80	11.1%
	4	33	4.6%	39	5.4%	57	7.9%	71	9.9%	67	9.3%	71	9.9%
중	5	77	10.7%	82	11.4%	87	12.1%	80	11.1%	96	13.4%	89	12.4%
	6	95	13.2%	106	14.7%	85	11.8%	111	15.4%	118	16.4%	110	15.3%
	7	138	19.2%	125	17.4%	159	22.1%	134	18.6%	115	16.0%	89	12.4%
	8	108	15.0%	150	20.9%	157	21.8%	145	20.2%	116	16.1%	109	15.2%
강	9	221	30.7%	173	24.1%	130	18.1%	116	16.1%	109	15.2%	106	14.7%
합계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 경관평가

경관평가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표 4-6]는 각 지점에서의 경관평가에 대한 응답율 분포가 거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거리의 변화에 따른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평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 등에 비해 덜 강하게 인지가 된다는 답변이 많았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도 다른 응답에 비해 변화의 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가 높은 응답의 구성율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평가가 낮는 응답의 비율은 일정수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거리가 늘어날수록 경관에 대한 평가의 분포가 다소 평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관평가는 거리에 증가에 따른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변화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평가결과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상관성도 명확하게 표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표 4-6] **경관평가에 대한 구성율의 변화**

경관평가		20m		40m		60m		80m		100m		120m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응답수(%)	
약	1	19	2.6%	14	1.9%	14	1.9%	18	2.5%	30	4.2%	46	6.4%
	2	21	2.9%	25	3.5%	25	3.5%	38	5.3%	40	5.6%	46	6.4%
	3	56	7.8%	55	7.6%	48	6.7%	45	6.3%	58	8.1%	70	9.7%
	4	59	8.2%	54	7.5%	59	8.2%	73	10.2%	84	11.7%	86	12.0%
중	5	92	12.8%	90	12.5%	111	15.4%	114	15.9%	113	15.7%	111	15.4%
	6	129	17.9%	128	17.8%	125	17.4%	111	15.4%	117	16.3%	97	13.5%
	7	107	14.9%	132	18.4%	135	18.8%	130	18.1%	98	13.6%	88	12.2%
	8	107	14.9%	123	17.1%	130	18.1%	115	16.0%	100	13.9%	83	11.5%
강	9	129	17.9%	98	13.6%	72	10.0%	75	10.4%	79	11.0%	92	12.8%
합계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7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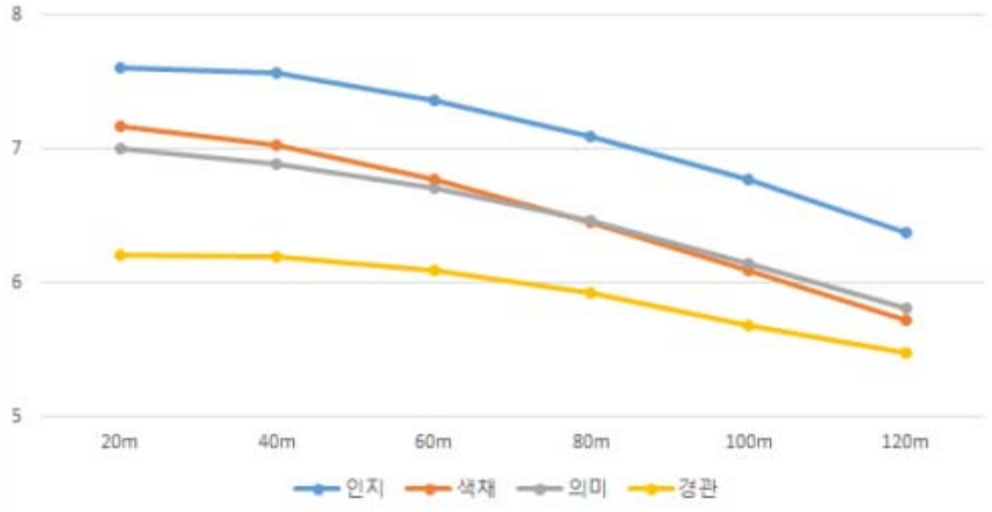
□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 및 경관평과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인지강도와 색채강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지강도에 비해 색채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강도는 인지가도와 색채강도에 비해 다소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거리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경관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 평균점수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인지강도	7.61	7.57	7.37	7.09	6.77	6.37
색채강도	7.17	7.03	6.77	6.45	6.10	5.72
의미강도	7.00	6.89	6.71	6.46	6.14	5.81
경관평가	6.21	6.19	6.09	5.93	5.68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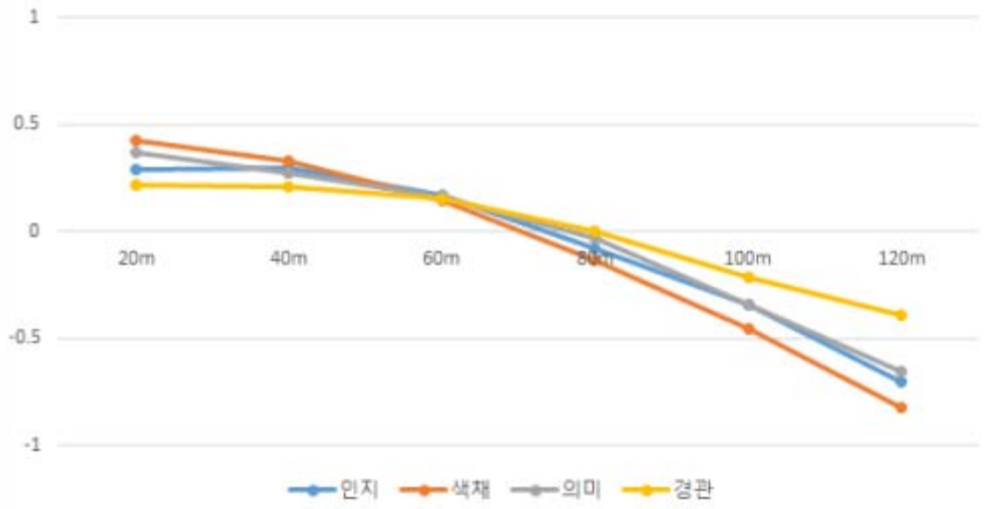
[그림 4-1]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색채·의미·경관평가의 평균 변화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 및 경관평과 결과를 표준화하여 살펴보면 역시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표준화된 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거리에 따라 색채강도가 가장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경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변화하고 있다.

인지강도는 의미강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변화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0m가 넘어서는 지점에서는 모든 강도에 대한 평가가 평균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 강도 및 평가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인지강도	0.29	0.30	0.17	−0.08	−0.34	−0.70
색채강도	0.43	0.33	0.15	−0.13	−0.45	−0.82
의미강도	0.37	0.27	0.17	−0.03	−0.34	−0.66
경관평가	0.22	0.21	0.16	0.01	−0.21	−0.39



[그림 4-2] 거리에 따른 경관자원의 인지·색채·의미·경관평가의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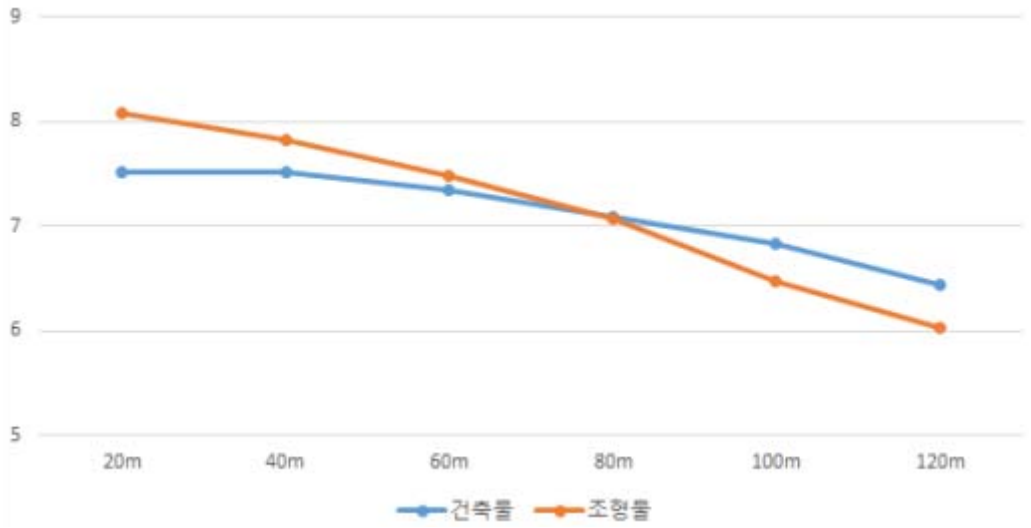
2)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인지강도 변화

이 절에서는 건축물과 조형물은 경관자원으로서의 성격이 다르므로, 유형을 분류하여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에 대한 인지강도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 오히려 조형물에 대한 인지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이 가지는 고유한 외관 등이 근거리에서 인지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건축물에 비해서는 폭 등이 좁기 때문에 인지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9]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평균점수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7.52	7.52	7.34	7.10	6.83	6.44
조형물	8.09	7.82	7.49	7.08	6.47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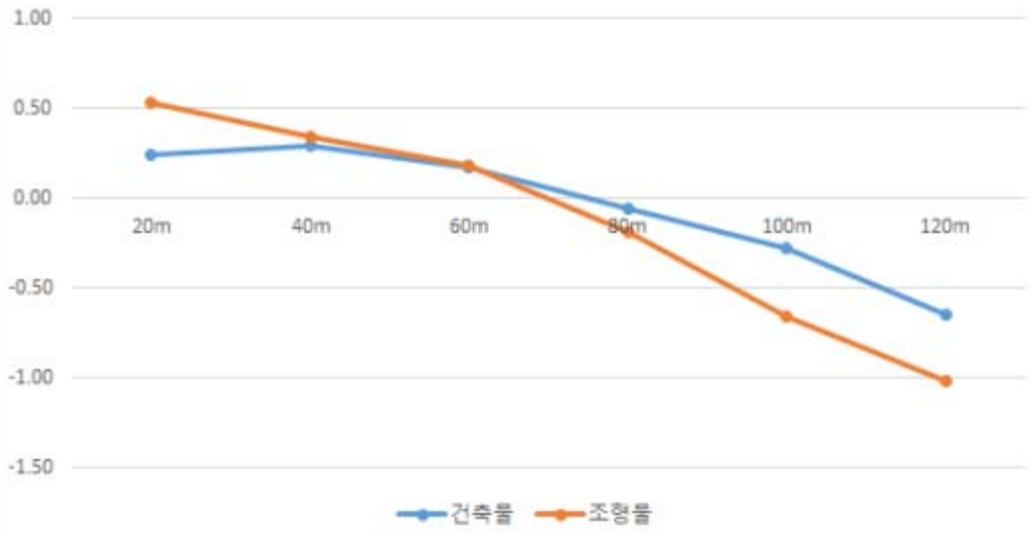
[그림 4-3]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평균점수 변화

표준화를 한 응답에 대한 비교에서는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에 대한 인지강도의 변화가 더욱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인지강도의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거리 60m를 지나면서 인지강도 감소경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지강도의 경우에도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에 대한 강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는 조형물에 비해서 더 늦게 인지강도가 떨어지고, 절대적으로도 더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0]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0.24	0.29	0.17	-0.05	-0.28	-0.64
조형물	0.53	0.34	0.18	-0.19	-0.66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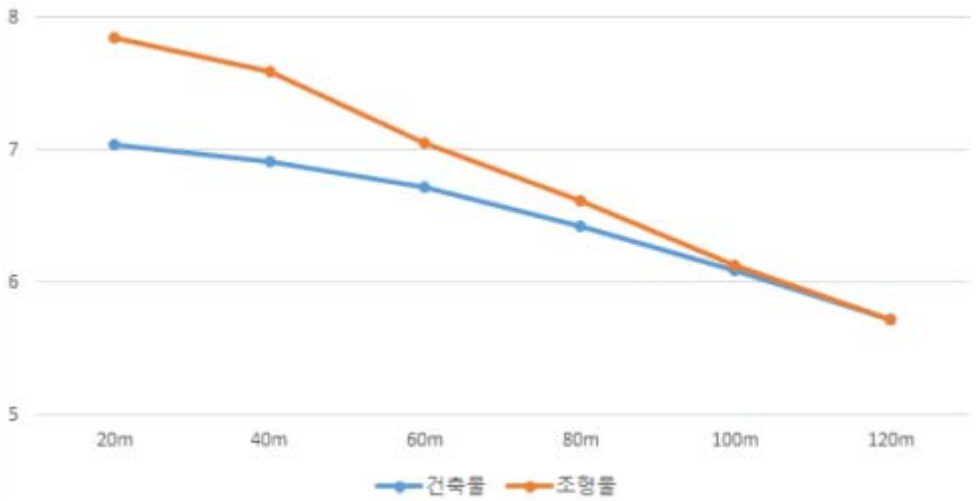
[그림 4-4]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인지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3)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색채강도 변화

색채강도의 경우 근거리에서는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에 대한 색채강도가 더 높게 인지되고 있으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0m이상의 거리가 되면 건축물과 조형물에 있어서 유형별 색채강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색채에 대한 인지가 100m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1]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평균점수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7.04	6.92	6.72	6.42	6.09	5.72
조형물	7.85	7.59	7.05	6.62	6.13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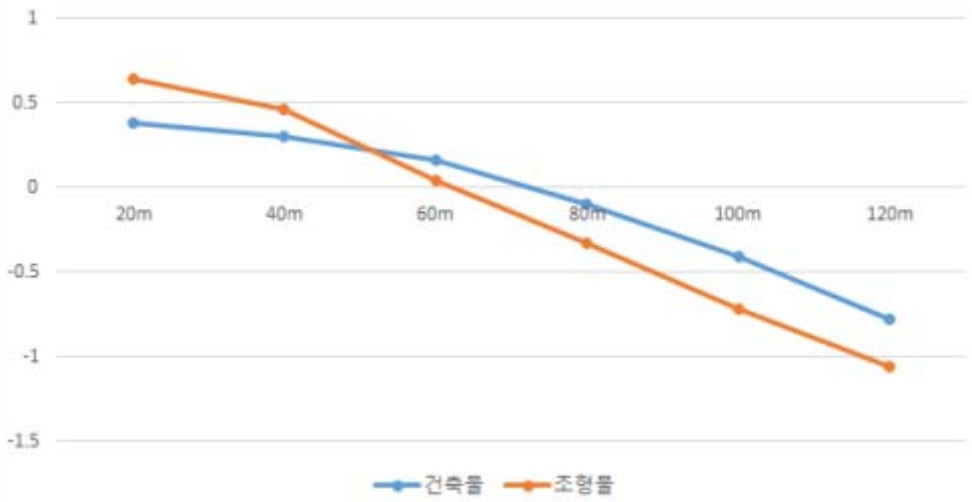


[그림 4-5]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평균점수 변화

표준화된 색채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형물의 경우 변화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형물은 40m이후, 건축물은 60m이후에 표준화 점수의 감소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2]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0.39	0.31	0.17	−0.09	−0.40	−0.78
조형물	0.64	0.46	0.05	−0.33	−0.7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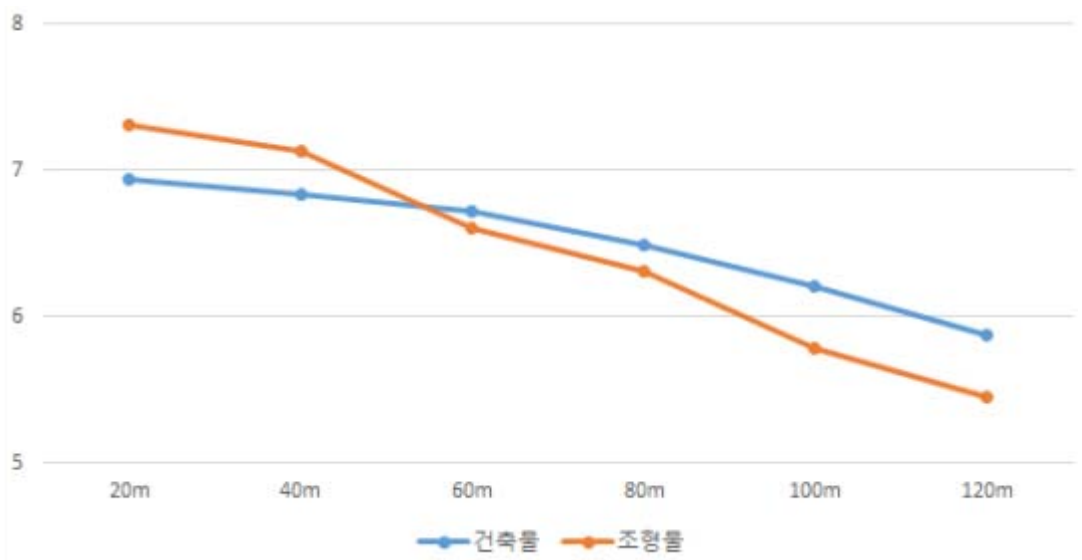
[그림 4-6]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색채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4)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의미강도 변화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에 대한 의미강도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지강도와 마찬가지이며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 조형물에 대한 의미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지강도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이 가지는 랜드마크로서의 시인성 등이 근거리에서 의미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건축물에 비해서는 폭 등이 좁기 때문에 의미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3]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평균점수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6.94	6.84	6.72	6.49	6.21	5.88
조형물	7.31	7.13	6.61	6.32	5.79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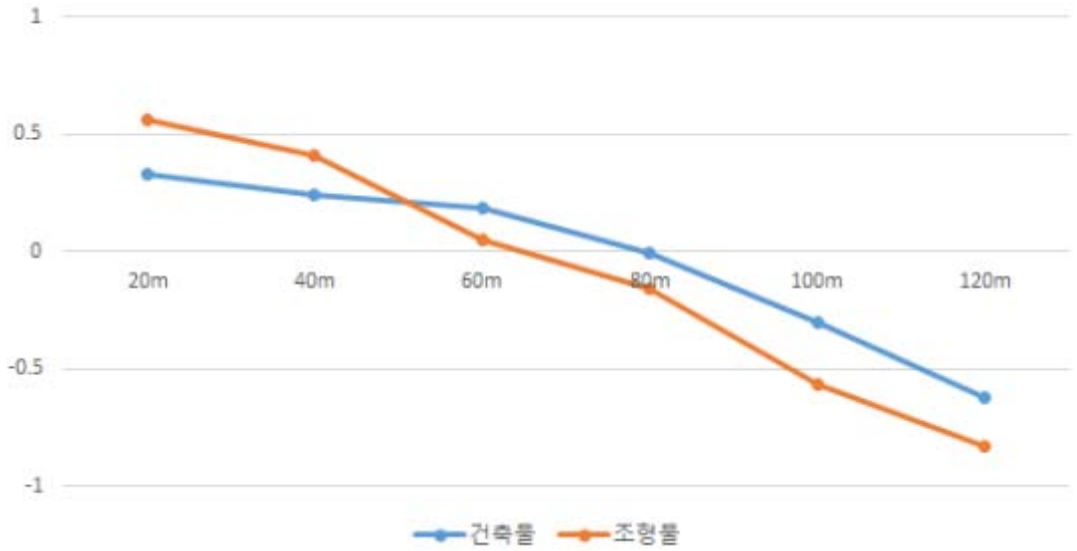
[그림 4-7]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평균점수 변화

표준화된 점수에 의한 의미강도의 변화 또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건

축물의 경우 60m이상의 지점부터 의미강도 감소의 경향이 다소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이 더 거리에 따라 의미강도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0.33	0.25	0.19	−0.01	−0.30	−0.62
조형물	0.56	0.41	0.05	−0.16	−0.57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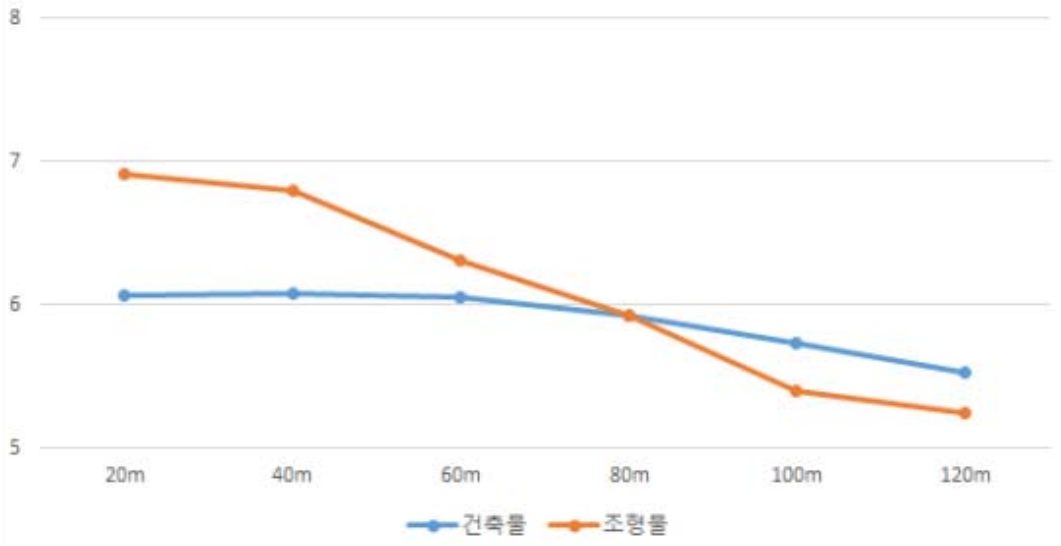
[그림 4-8]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의미강도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5) 거리 및 경관자원 유형별 경관평가 변화

건축물에 비해 조형물에 대한 경관평가 결과도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변화와 유사하게 조형물 유형의 경관자원의 경우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경우는 80m에 이르기 까지 경관평가의 값에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조형물의 경우는 40m가 넘어서면서 급격한 경관평가 결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5]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평균점수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6.07	6.08	6.05	5.93	5.74	5.52
조형물	6.91	6.79	6.32	5.93	5.39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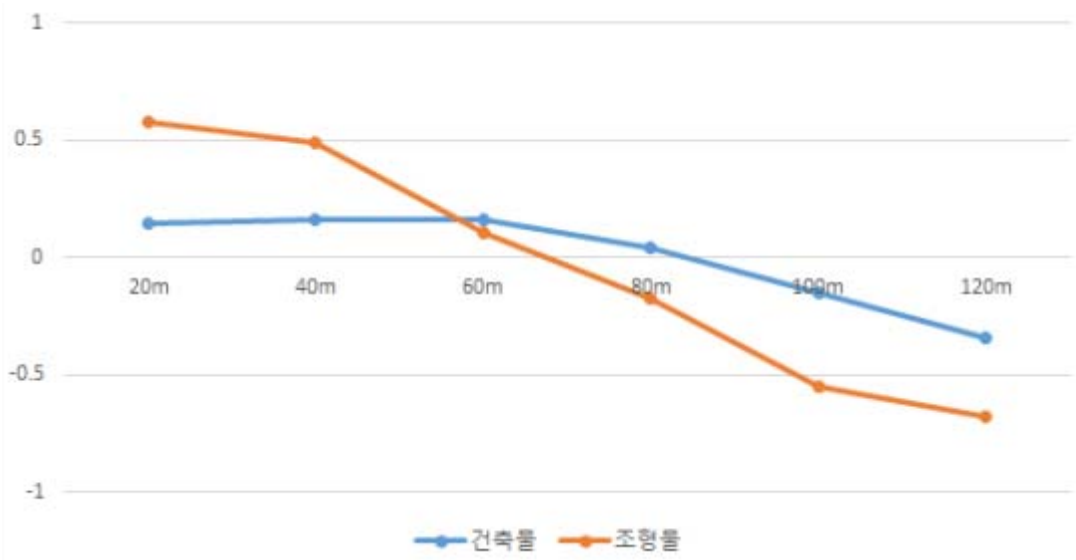
[그림 4-9]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평균점수 변화

표준화 이후의 분석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 60m까지는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건축물의 폭이나 높이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경우 좀더 긍정적인 경관평가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형불의 경우는 인지강

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변화와 유사하게 경관평가의 결과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구분	20m	40m	60m	80m	100m	120m
건축물	0.15	0.16	0.17	0.04	−0.15	−0.34
조형물	0.58	0.49	0.11	−0.18	−0.55	−0.67



[그림 4-10] 경관자원 유형별 거리에 따른 경관평가 표준화 점수 평균 변화

3. 통계적 분석

1) 분석개요

이 절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여, 개별 강도와 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도출하고, 거리에 따른 강도의 변화 및 임계점 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개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거리가 미치는 영향력과 경사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여 실제 공간의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관분석을 통해 개별 강도(인지·색채·의미·경관)와 상관성이 나타난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크게 경관자원, 관찰자 특성, 관측거리 부문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경관자원에서는 경관자원의 높이 및 폭, 관찰자 특성으로는 시력, 키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관측거리와, 상하 탄젠트값, 좌우 탄젠트값 또한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하 탄젠트값은 ((경관자원의 높이)÷2)÷(관측거리)로 계산된 값이며, 좌우 탄젠트값은 ((경관자원의 폭)÷2)÷(관측거리)로 계산하였다. 이는 독립변수 간 독립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만, 관측거리와 경관자원의 특성(높이 및 폭)을 함께 고려한 변수로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간 상관성을 파악하여 관측거리, 경관자원의 높이 및 폭, 상하/좌우 탄젠트값의 상관계수가 큰 변수를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17] **통계분석의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지강도	경관자원	높이
색채강도		관찰측의 폭
의미강도		
경관평가		
	관찰자특성	시력
		키
	관측거리	
	상하 탄젠트값	((경관자원의 높이)÷2)÷(관측거리)
	좌우 탄젠트값	((경관자원의 폭)÷2)÷(관측거리)

2) 인지강도

인지강도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상관분석(이변량 상관계수)을 수행한 결과, 경관자원의 높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측거리가 인지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강도에 대한 관측거리의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지강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측거리와 경관자원의 폭 및 높이로 산출되는 좌우 및 상하 탄젠트(Tangent) 값은 관측거리, 폭 및 높이 변수와 매우 큰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관측거리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관측거리를 독립변수로 선택하고 상하/좌우 탄젠트 값은 독립변수로 선택하지 않았다.

[표 4-18] **인지강도 상관분석 결과**

구 분		인지강도	관측거리	키	시력_좌	시력_우	좌우_tan	상하_tan	높이	폭
인지강도	Pearson 상관계수	1	-.260**	.123**	.095**	.096**	.128**	.073**	-.022	.065**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188	.000
관측거리	Pearson 상관계수	-.260**	1	.000	.000	.000	-.462**	-.575**	.000	.00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1.000	1.000	.000	0.000	1.000	1.000
키	Pearson 상관계수	.123**	.000	1	.127**	.065**	-.033	.037*	.060**	-.047**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	.051	.028	.000	.005
시력_좌	Pearson 상관계수	.095**	.000	.127**	1	.874**	-.055**	.001	.001	-.079**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1	.976	.961	.000
시력_우	Pearson 상관계수	.096**	.000	.065**	.874**	1	-.049**	.007	.012	-.07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3	.662	.480	.000
좌우_tan	Pearson 상관계수	.128**	-.462**	-.033	-.055**	-.049**	1	.586**	.262**	.697**
	유의확률(양쪽)	.000	.000	.051	.001	.003		0.000	.000	0.000
상하_tan	Pearson 상관계수	.073**	-.575**	.037*	.001	.007	.586**	1	.619**	.233**
	유의확률(양쪽)	.000	0.000	.028	.976	.662	0.000		0.000	.000
높이	Pearson 상관계수	-.022	.000	.060**	.001	.012	.262**	.619**	1	.376**
	유의확률(양쪽)	.188	1.000	.000	.961	.480	.000	0.000		.000
폭	Pearson 상관계수	.065**	.000	-.047**	-.079**	-.070**	.697**	.233**	.376**	1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5	.000	.000	0.000	.000	.000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측거리, 키, 시력(좌/우), 경관자원의 폭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지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096으로, 인지강도에 대해 약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에 대한 계수를 살펴보면, 시력(좌)만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관분석에서도 가장 큰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던 관측거리의 계수는 -0.013으로, 관측거리가 100m 멀어질수록 인지강도는 1.3점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측거리가 0m일 때 인지강도가 가장 강한 9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m에서는 인지강도가 5점(4점 하락)으로, 관측거리가 300m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 600m 거리에서는 인지강도가 약 8점 하락하여 경관자원의 형상이 거의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9] **인지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11	.096	.095	1.6464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301	.527		6.265	.000
	관측거리	−.013	.001	−.260	−16.260	.000
	키	.023	.003	.119	7.379	.000
	시력_좌	.106	.192	.018	.553	.580
	시력_우	.451	.192	.078	2.349	.019
	폭	.004	.001	.078	4.851	.000

3) 색채강도

색채강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인지강도와 마찬가지로 높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색채강도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강도와 마찬가지로 관측거리가 색채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관계수의 크기가 -0.280으로 인지강도의 -0.260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 관측거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0] **색채강도 상관분석 결과**

구 분		색채강도	관측거리	키	시력_좌	시력_우	좌우_tan	상하_tan	높이	폭
색채강도	Pearson 상관계수	1	−.280**	.068**	.078**	.087**	.125**	.104**	−.013	.05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444	.002
관측거리	Pearson 상관계수	−.280**	1	.000	.000	.000	−.462**	−.575**	.000	.00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1.000	1.000	.000	0.000	1.000	1.000
키	Pearson 상관계수	.068**	.000	1	.127**	.065**	−.033	.037*	.060**	−.047**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	.051	.028	.000	.005
시력_좌	Pearson 상관계수	.078**	.000	.127**	1	.874**	−.055**	.001	.001	−.079**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1	.976	.961	.000
시력_우	Pearson 상관계수	.087**	.000	.065**	.874**	1	−.049**	.007	.012	−.07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3	.662	.480	.000
좌우_tan	Pearson 상관계수	.125**	−.462**	−.033	−.055**	−.049**	1	.586**	.262**	.697**
	유의확률(양쪽)	.000	.000	.051	.001	.003		0.000	.000	0.000
상하_tan	Pearson 상관계수	.104**	−.575**	.037*	.001	.007	.586**	1	.619**	.233**
	유의확률(양쪽)	.000	0.000	.028	.976	.662	0.000		0.000	.000
높이	Pearson 상관계수	−.013	.000	.060**	.001	.012	.262**	.619**	1	.376**
	유의확률(양쪽)	.444	1.000	.000	.961	.480	.000	0.000		.000
폭	Pearson 상관계수	.051**	.000	−.047**	−.079**	−.070**	.697**	.233**	.376**	1
	유의확률(양쪽)	.002	1.000	.005	.000	.000	0.000	.000	.000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측거리, 키, 시력(좌/우), 경관자원의 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중회귀모형은 약 10%(R^2=0.09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모델의 계수 중 시력(좌)만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측거리의 계수값은 -0.015로, 관측거리가 100m 멀어질수록 색채강도는 1.5점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측거리가 0m일 때 색채강도가 가장 강한 9점이라고 가정 시, 약 270m에서는 색채강도가 5점(4점 하락)으로 관측거리가 270m를 초과할 때부터 경관자원의 색채는 잘 인지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30m 거리에서는 색채강도가 8점 하락하여 경관자원의 색채는 거의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1] **색채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305	.093	.092	1.78467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564	.571		7.992	.000
관측거리	-.015	.001	-.280	-17.469	.000
키	.014	.003	.065	4.016	.000
시력_좌	-.030	.208	-.005	-.146	.884
시력_우	.572	.208	.091	2.748	.006
폭	.003	.001	.060	3.762	.000

4) 의미강도

의미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관자원의 높이와 관측거리로 산출되는 상하 탄젠트값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강도, 색채강도와 마찬가지로 관측거리가 의미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관계수의 크기가 -0.210으로 인지강도(−0.260), 색채강도(−0.280) 보다는 다소 작게 나타나 관측거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 의미강도 상관분석 결과

구 분		의미강도	관측거리	키	시력_좌	시력_우	좌우_tan	상하_tan	높이	폭
의미강도	Pearson 상관계수	1	−.210**	.065**	.122**	.109**	.097**	.029	−.086**	.042*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000	.088	.000	.013
관측거리	Pearson 상관계수	−.210**	1	.000	.000	.000	−.462**	−.575**	.000	.00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1.000	1.000	.000	0.000	1.000	1.000
키	Pearson 상관계수	.065**	.000	1	.127**	.065**	−.033	.037*	.060**	−.047**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	.051	.028	.000	.005
시력_좌	Pearson 상관계수	.122**	.000	.127**	1	.874**	−.055**	.001	.001	−.079**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1	.976	.961	.000
시력_우	Pearson 상관계수	.109**	.000	.065**	.874**	1	−.049**	.007	.012	−.07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3	.662	.480	.000
좌우_tan	Pearson 상관계수	.097**	−.462**	−.033	−.055**	−.049**	1	.586**	.262**	.697**
	유의확률(양쪽)	.000	.000	.051	.001	.003		0.000	.000	0.000
상하_tan	Pearson 상관계수	.029	−.575**	.037*	.001	.007	.586**	1	.619**	.233**
	유의확률(양쪽)	.088	0.000	.028	.976	.662	0.000		0.000	.000
높이	Pearson 상관계수	−.086**	.000	.060**	.001	.012	.262**	.619**	1	.376**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961	.480	.000	0.000		.000
폭	Pearson 상관계수	.042*	.000	−.047**	−.079**	−.070**	.697**	.233**	.376**	1
	유의확률(양쪽)	.013	1.000	.005	.000	.000	0.000	.000	.000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의미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수행을 위해 추출된 독립변수는 관측거리, 키, 시력(좌/우), 경관자원의 폭 및 높이이며, 그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8%(R^2=0.079)로 인지강도 및 색채강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의미강도와 가장 큰 상관성으로 나타낸 관측거리 변수의 계수값은 -0.012로, 관측거리가 100m 증가할 때마다 의미강도는 1.2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 330m 지점에서 의미강도는 보통(5점) 수준으로 나타나며, 670m 지점에서 경관자원의 의미를 거의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의미강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81	.079	.077	1.8952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283	.607		7.061	.000
	관측거리	-.012	.001	-.210	-13.025	.000
	키	.014	.004	.063	3.837	.000
	시력_좌	.647	.221	.098	2.929	.003
	시력_우	.184	.221	.028	.834	.404
	폭	.005	.001	.103	5.879	.000
	높이	-.020	.003	-.129	-7.374	.000

a. 종속변수: 의미강도

5) 경관평가

경관평가는 경관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한 평가로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로는 관측거리, 키, 시력(좌/우), 상하 탄젠트 값, 경관자원의 높이 및 폭으로 나타났다. 인지·경관·의미 강도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관측거리는 경관평가에서도 가장 큰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은 −.0141로 인지·경관·의미강도의 경우에 비해 그 절대값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관평가에서 관측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부문에 비해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24] **경관평가의 상관계수**

구 분		경관평가	관측거리	키	시력_좌	시력_우	좌우_tan	상하_tan	높이	폭
경관평가	Pearson 상관계수	1	−.141**	.101**	.116**	.108**	−.011	−.062**	−.178**	−.076**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000	.527	.000	.000	.000
관측거리	Pearson 상관계수	−.141**	1	.000	.000	.000	−.462**	−.575**	.000	.00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1.000	1.000	.000	0.000	1.000	1.000
키	Pearson 상관계수	.101**	.000	1	.127**	.065**	−.033	.037*	.060**	−.047**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	.051	.028	.000	.005
시력_좌	Pearson 상관계수	.116**	.000	.127**	1	.874**	−.055**	.001	.001	−.079**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1	.976	.961	.000
시력_우	Pearson 상관계수	.108**	.000	.065**	.874**	1	−.049**	.007	.012	−.070**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0.000		.003	.662	.480	.000
좌우_tan	Pearson 상관계수	−.011	−.462**	−.033	−.055**	−.049**	1	.586**	.262**	.697**
	유의확률(양쪽)	.527	.000	.051	.001	.003		0.000	.000	0.000
상하_tan	Pearson 상관계수	−.062**	−.575**	.037*	.001	.007	.586**	1	.619**	.233**
	유의확률(양쪽)	.000	0.000	.028	.976	.662	0.000		0.000	.000
높이	Pearson 상관계수	−.178**	.000	.060**	.001	.012	.262**	.619**	1	.376**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0	.961	.480	.000	0.000		.000
폭	Pearson 상관계수	−.076**	.000	−.047**	−.079**	−.070**	.697**	.233**	.376**	1
	유의확률(양쪽)	.000	1.000	.005	.000	.000	0.000	.000	.000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관평가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8%(R^2=0.075)로 인지·색채·의미강도의 모형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경관평가와 가장 큰 상관성을 보인 관측거리 변수의 계수값은 -0.09로, 관측거리가 100m 증가할 때마다 경관평가는 0.9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 440m 지점에서 경관평가는 보통(5점) 수준으로 나타나며, 약 890m 지점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5] **경관평가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281	.079	.077	1.8952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01	.644		3.729	.000
거리	-.009	.001	-.141	-8.740	.000
신장	.024	.004	.102	6.193	.000
시력_좌	.370	.234	.053	1.579	.114
시력_우	.405	.235	.058	1.726	.084
폭	.000	.001	.008	.434	.664
높이	-.030	.003	-.188	-10.715	.000

4. 소결

이상의 실험을 통해 경관자원으로부터의 조망거리 변화에 따른 관찰자의 시각적 인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인지의 내용적 분화에 따른 차이, 그리고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각적 인지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관찰지점에서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응답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요인의 측면에서의 실험은 일반적인 시지각적 인지과정에 대한 이론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인데, 실질적인 대상물에 대한 지각과 색채에 대한 지각능력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대상물을 전체적인 배경속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능력은 인지과정에서 다시 심리적으로 한단계 더 처리되어야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지과정에서의 한계변화가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거리에 따른 경관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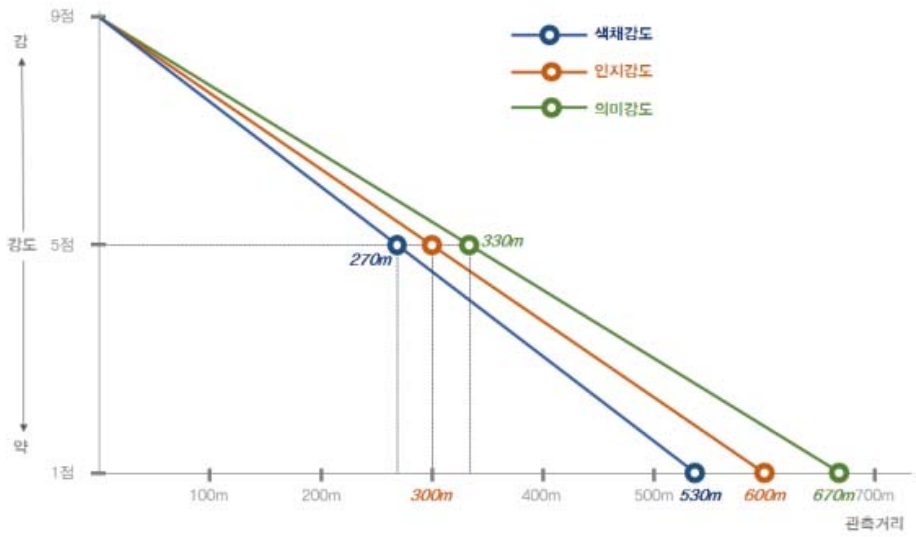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든 강도들이 거리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강도와 색채강도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강도가 절대적인 강도는 일정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강도의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리의 증가에 따른 의미강도의 변화는 인지강도와 색채강도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지와 색채에 대한 지각한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처리과정을 거치는 의미의 차원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평가결과의 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각-해석-평가의 심리적인 처리과정에 따라서 환경에서 부여된 외부자극에 대한 심리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적인 적응성을 보여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관측거리에 대한 경관자원의 시지각 한계 추정 결과,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색채에

대한 강도는 1.5점/100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형태에 대한 강도(인지강도)가 1.3점/100m, 의미에 대한 강도(의미강도)가 1.2점/100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색채에 대한 시지각 한계는 270m를 기점으로 인지가 잘 되지 않다가 530m 부터는 인지가 거의 불가능한 시지각 한계로 추정된다. 인지강도와 의미강도에 대한 시지각 한계는 각각 600m, 670m로,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1] 색채강도, 인지강도, 의미강도의 거리에 따른 시지각 한계 추정 결과

인지·색채·의미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하나의 경관자원에 대해 형태 및 색채를 인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 외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경관자원 주변의 건축물 특성(높이, 색채 등), 가로수·녹지와 같은 자연요소 등을 하나의 통합된 장면으로서 경관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조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지·색채·의미 강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관측거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은 거리에 따른 시지각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2. 결론

1. 시사점

도시공간과 가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자의 시지각적 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해야만 한다. 기존 경관계획의 실제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관계획의 주요한 요소들이 '관념적' 형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즉 경관계획이 그 대상 지역의 경관주조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경관축, 경관거점 등을 인지하는 방식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시지각의 주체인 일상생활 속의 관찰자의 장면적 시점과 위치를 반드시 상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의 경관계획은 경관요소를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경관관리의 측면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실제 조건이 반영되는 경향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한 경관자원이 도심지 내에 존재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기존에 지형 정보만 반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상세한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현실에 보다 근사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찰자의 시점과 그에 적용될 수 있는 시지각 인지특성과 직접 관련되는 조망계획들이 시도되는 것을 사례분석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기존 경관계획에서 정

리할 수 있었던 시지각적 특성에 관련된 기본 요소들은 첫째, 관찰자의 위치로서 조망점, 둘째, 시지각 인지의 대상으로서의 조망대상, 셋째 조망점과 조망대상과의 관계로 인해 규제를 받는 대상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행한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색채에 대한 강도는 1.5점/100m 감소, 형태에 대한 강도(인지강도)가 1.3점/100m 감소, 의미에 대한 강도(의미강도)가 1.2점/100m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거리로 시지각 강도의 차원에서 지각가능한 한계거리로 환산해 보면, 주변에 비해 특별히 잘 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중립적인 평가수준이 5점을 기준으로 볼 때, 색채강도의 경우 270m, 인지강도의 경우 300m, 의미강도의 한계는 330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경관계획의 관점에서 적용한다면, 조망점의 선정 이후, 조망가능영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망대상의 선정영역, 그리고 조망점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망대상의 거리한계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경관심의에서 사용되는 경관시뮬레이션의 경우에도 무한한 시야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조망점 및 조망대상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지각적 한계를 색채의 경우 270m, 인지강도나 의미강도의 경우는 300m내외를 넘어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상대적으로 반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의 설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결론

우리나라의 경관이 가지는 가치와 고유한 특성을 가꾸기 위한 경관계획들이 경관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관을 조망하는 관찰자에 대한 면밀한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적인 물리적인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 가로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경관계획의 내용이 한정되는 것은 기존의 도시설계나 때로는 개발계획의 내용과 큰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경관계획에서는 관찰자, 조망점, 조망영역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경관자원 및 건축물 등의 제어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망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경관자원들의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고, 가꾸는데 현재의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경관자원으로부터의 조망거리 변화에 따른 관찰자의 시각적 인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인지의 내용적 분화에 따른 차이, 그리고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각적 인지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지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의 측면에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관찰지점에서의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응답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요인의 측면에서의 실험은 일반적인 시지각적 인지과정에 대한 이론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인데, 실질적인 대상물에 대한 지각과 색채에 대한 지각능력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대상물을 전체적인 배경속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능력은 인지과정에서 다시 심리적으로 한단계 더 처리되어야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지과정에서의 한계변화가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거리에 따른 경관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든 시지각적 반응 강도들이 거리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강도와 색채강도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강도가 절대적인 강도는 일정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강도의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리의 증가에 따른 의미강도의 변화는 인지강도와 색채강도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지와 색채에 대한 지각한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처리

과정을 거치는 의미의 차원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평가결과의 분포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시지각적 인지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평가는 고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관평가에 대한 이러한 보수적인 분석결과는 지각-해석-평가의 심리적인 처리과정에 따라서 환경에서 부여된 외부자극에 대한 심리적 연산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적인 적응성을 보여주는 기존 심리학 이론이 일정부분 적용가능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경관자원 주변의 건축물 특성(높이, 색채 등), 가로수나 녹지와 같은 자연요소 등을 하나의 통합된 장면으로서 경관을 인식하기 때문에, 관찰지점으로부터의 조망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시지각적 한계 및 인지특성을 도출하고자 한 이 연구는 경관인식측면의 전반적인 설명력의 측면에서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자원에 대한 대규모의 실증실험 및 분석을 통해 인지, 색채, 의미 강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관측거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것은 거리에 따른 시지각의 한계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경관계획에서의 조망점 및 조망권 계획에 있어 조망가능거리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관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판단에 더 부합되는 시각적 한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경관계획 분야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경기도(2010),「경관계획」

경상북도(2011),「2020 경관계획」

경주시(2010),「2020 기본 경관계획」

광주광역시(2011),「도시경관기본계획」

광주시(2014),「2020 기본경관계획」

구리시,「2020 기본경관계획」

국토교통부(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교통부(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교통부(2014), 「경관심의운영지침」

국토해양부(2012), 「경관심의제도 운영 및 경관계획 내실화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09), 「경관축 유형별 실행계획모형 개발연구」

군포시,「2020 기본경관계획」

김자은 외 2인(2013),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연속적 경관분석과 건축물 높이 규제 방안", 「대한건축학회지」, v.29(12), pp. 239-247

김진일(1979), "상가건물 facade와 장치물 및 간판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21(2), pp.49-54

논산시(2015),「2020 기본경관계획」

대구광역시(2010), 경관심의기준

대구광역시,「2020 기본경관계획」

대구광역시,「2020 기본경관계획 경관계획설계지침」

대구광역시,「2020 기본경관계획 신천·금호강특정경관계획」

대구광역시,「2020 기본경관계획 역사문화특정경관계획」

대전광역시,「2025 경관계획」

대전광역시,「2025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08),「문화전당권 경관관리방안 수립 연구」

박우림(2005),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경관 계획 수법에 관한 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부산광역시(2015),「야간경관계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특정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09),「기본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10),「수변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10),「역사문화경관계획」

서울특별시(2010),「자연녹지경관계획」

세종특별자치시(2014),「경관계획」

수원시(2015),「2025 경관계획」

시노하라 오사무(1999),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배현미 외 공역, 대우출판사

엄소연(2011), 「시선축과 시지각 원리에 근거한 가로공간 특성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연석 외2인(2002),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윤영미 외 2인(2009), "조망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준거설정 연구", 「국토계획」, v.44(4), pp.161-174

인천광역시,「2020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보고서

울산광역시(2010),「경관계획」

전주시,「2021 기본경관계획」

전주시,「2021 야간경관계획」

전주시(2015),「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09),「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2009),「경관 및 관리계획 요약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2010),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

한국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화순군(2013),「기본경관계획」

Gorden Cullen(1995), The Concise Townscape

Geoffrey Broadbent(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Christopher Alexander(1987), A New Theory of Urban Design

Yoshinobu Ashihara(1983), The Aesthetic Townscape

Paul Spreiregen(1965), Urban Design: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Davies, A. and Laing, R., "Images and Stated Preferences: Do people need to be told what the attributes are or do they notice them anyway?", IAPS Conference Proceeding, 2012, pp.139~148,

Morteza Asgarzadeha, et al., "Measuring oppressiveness of street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012, pp.1~11

Philip Thiel, "The Perception of Spatial Enclousre as a Function of the Position of Architectural Surfaces", Environment and Behavior, 1986, pp.227~245

Jon Cooper et al., "The Influence of Fractal Dimension and Vegetation on the Perceptions of Streetscape Quality in Taipei: With Comparative Comments Made in Relation to Two British Case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13, pp.13-62

Gabriele Garnero et al., "Visibility analysis in urban spaces: a raster-based approach and case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15, pp.688-707

Jan Ketil Rød et al., "Visibility and Dominance Analysis: Assessing a High-Rise Building Project in Trondheim",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09, pp.698-710

Denis J Dean et al., "Modeling the Magnitud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Aesthetic Impacts",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07, pp.121-138

Philip Steadman, "Developments in space syntax", Environment and Planning B, 2004, pp.483-486

Visual Recognition Experiment on Urban Landmarks for Cityscape Planning Improvement

Oh, Sunghoon
Lee, Jong Min
Lee, Min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ityscape planning based on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observer who uses urban space and landscape in reality, and to support the plan to be improved so a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andscape plan at the viewpoint of the observers who routinely experience urban cityscape We will conduct a review of the factors. Based on the empirical understanding of observer perception of cityscape resources and the existing urban design theories,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arrange the plan elements within the range of perceivable visibility of observers, and as a result, I would like to suggest measures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In the background where the observer's view does not become a fundamental standard of cityscape planning, there are formal regulations on the cityscape planning element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tyscape Act and the Cityscape Act, in particular the Cityscape Planning Guidelines.

In the case that the main cityscape resources are located in the urban area, more active cityscape management plan is being established and the simulation technique including the detailed building information is changed to be closer to reality than the previous cityscape information was reflected. The basic elements of visual perception related to the existing cityscape plan are as follows: (1) view point as a position of an observer, (2) viewpoint as a subject of visual perception, (3) viewpoint as a viewpoint, It can be compressed in three ways.

It can be seen from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experiments on the field

are very uncommon, and the research to derive the visual limit based on the distance is not common in the framework of the study. In this study, the experiment is conducted on the spot rather than existing experiments which is mainly applied to photographs and images, and the change of cityscape perception along the distance is experimentally confirmed.

As a concrete experimental method, we planned to conduct a questionnaire survey by moving a group of persons to a site where cityscape resources were located and moving the observing location at regular intervals. However, To approach the selected cityscape resources, to measure the distance from the cityscape resources in the main access road, and to relocate the observation points every 20m, while the experimenter responds to the questionnaire about the cognitive intensity. It was decided to repeat.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how the visual cognitive change of the observer according to the view distance change from the cityscape resources,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tiation of cognition, and the estimation limit of the visual cognition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 Particularly, in the content aspect of cogni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erms of cognitive intensity, color intensity, and semantic intensity, and a response to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scenery at the observation point was also requested. These experiments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general perceptual cognitive process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f actual objects and the perception ability of color, and the perceptual object is meaningful in the whole background. And the ability to distinguish them from each other is a situation that occurs only after one more psychological step in the cognitive proces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hange in the evaluation of cityscape according to the distance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the limit change in the cognitive process on the evaluation of the overall cityscape.

As a result of the visual perception limit of the cityscape resources on the observation distance, the intensity of the color decreased by 1.5 points / 100m on the basis of the 9 point scale, and it was analyzed to be the most sensitive to the distance. Next, the strength (cognitive strength) of the form was 1.3 points / 100m, and the strength (meaning strength) of the meaning was 1.2 points / 100m. Based on this, the visual perception limit for color is not well recognized based on 270m, but

it is estimated that visual perception limit is almost impossible to recognize from 530m. The visual perception limits for cognitive intensity and mean intensity are 600m and 670m, respectively. Nevertheless, it is suggested that correlations with the observation distance variables, which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recognition, color, and semantic intensity, are present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we show the changes of the visual perception of the observ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view distance from the cityscape resources through the experiment, and the estimation of the limit of the visual perception based o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ontent differentiation of the cognition and the experimental result . Particularly, in the content aspect of cogni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erms of cognitive intensity, color intensity, and semantic intensity, and a response to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scenery at the observation point was also requested.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all the visual perception reaction intens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distance, and the perceived intensity and color intensity decreased at regular intervals and showed high correlation. The absolute intensity of color intensity appears to be similar to the change in cognitive intensity, though it is somewhat low. In addition, the change of the mean intensity with distance increases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of cognitive intensity and color intensity. This is because, despite the perception limits of cognition and color, It can be seen that the difference is relatively reduced.

In the general evaluation of cityscape, although the distribution of evaluation results is widened as the distance increases, in general, it is found that the value is relatively fixed compared to the change of visual perception. The result of this conservative analysis of cityscape evaluation is that the existing psychological theory showing the psychological adaptability of the external stimulus given to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perception − interpretation - evaluation is applicable to some extent.

Although this study has theoretical limitations in terms of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cityscape awareness, it correlates with observation distance variables that are highly correlated with cognitive, color, and semantic strength through large-scale

demonstration experiments and analysis of cityscape resourc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oncept of the viewable distance in the view point and the view plan in the existing cityscape plan, In the simulation, we tried to improve the field of cityscape planning by suggesting a basis to apply the visual limit more appropriate to realistic judgment.

Keywords : visual recognition, cityscape planning, urban landmark, perception intensity

부록 1.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자의 인지강도 실험조사

실험조사의 목적

주요한 도시 내 경관자원에 대한 관찰자의 인지강도가 관찰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여 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실험조사의 수행단계

수행단계	작업유형
1. 경관자원의 선정	사전작업
2.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3. 피실험자의 모집 및 일정조정	
4. 경관자원들에 대한 동선계획	
5. 현장도착 및 설명	현장작업
6. 경관자원으로부터의 거리측정 및 표시	
7. 개별 관측지점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사진촬영	
8. 가장 가까운 관측지점으로부터 조사표작성	
9. 다음 경관자원으로 이동 후 조사반복	
10. 조사자료 및 조사표의 제출	사후작업

실험 수행단계별 유의사항

□ 경관자원의 선정

- 경관자원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으나, 역사적인 건축물, 공공청사, 대규모 기념탑 등 점적인 건축물, 시설물에 한정함
- 10층 이하의 높이로 한정하며, 아파트 단지 등 집단적 건축물군은 제외함
- 평소에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경관자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120미터 가량의 직선 접근로가 있는 경관자원을 선정해야 하며 무성한 가로수나 간판, 가로시설물 등으로 시각적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함 (피치못할 경우 100미터까지만 실험허용)
- 경사가 급한 위치에 있는 경관자원은 피하고, 되도록 평지에 있는 경관자원을 선정
- 실험시 여러 경관자원을 이동해야 하므로, 경관자원이 인접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 경관자원에 대한 개요를 조사
- 경관자원의 높이 등 물리적 현황 조사
- 경관자원에 대한 전경사진 촬영 또는 입수
- 선정된 경관자원 각각에 대하여 양식1 경관자원 개요를 작성하고 피 실험자에게 배포

□ 피실험자의 모집 및 일정조정

- 피실험자의 모집 10인 내외
- 다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 우천이나 강풍, 안개 등의 기후를 피하며, 일출이나 일몰 무렵도 피해야 함
- 선정된 피실험자에 대하여 양식2 피실험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경관자원들에 대한 동선계획

- 경관자원 각각에 대한 실험을 종료하고 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전에 이동에 필요한 보행경로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미리 조사하여 피실험자에게 공지

□ 현장도착 및 설명

- 피실험자들에게 경관자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 피실험자에게 실험의 취지와 수행의 유의점에 대해 전달
- 이동시 교통사고 등에 유의하도록 함

□ 경관자원으로부터의 거리측정 및 표시

- 줄자 등을 이용하여 경관자원으로부터 20미터 간격으로 관찰지점을 표시함

□ 개별 관찰지점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사진 촬영

-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개별 관찰지점에서 경관자원에 대한 사진촬영
- 줌 기능 등을 이용하지 않고, 관찰지점을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촬영
- 동일한 화각하에서 촬영하여 거리에 따른 변화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고해상도로 촬영
- 사진촬영 결과는 양식1 경관자원 개요에 삽입하여 제출

□ 가장 가까운 관측지점으로부터 조사표 작성

- 별첨된 설문조사표에 일련번호와 인솔자명, 경관자원명을 기입하여 피실험자에게 배포
- 일련번호는 인솔자가 주관하는 모든 설문조사표의 갯수와 일치하도록 부여함
- 인지강도, 색채강도, 의미강도, 경관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를 시작
- 경관자원과 가장 가까운 20m 관측지점부터 실험을 시작하여, 120m 지점까지 진행한 후, 다시 20m지점으로 돌아가면서 중복관찰 시행
- 작성된 조사표를 수거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지점 실험을 종료함

□ 다음 경관자원으로 이동 후 조사반복

- 계획한 경로대로 다음 경관자원으로 인솔후 5) 현장도착 및 설명으로 돌아가서 반복시행

□ 실험종료 즉시 조사자료 및 조사표의 제출

- 개별 경관자원별로 양식1 경관자원 개요를 제출
- 양식2 피실험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시행된 설문조사표의 수량 및 일련번호 확인 및 설문조사표 제출
- 본 매뉴얼 하단에 확인일자 및 인솔자의 서명 후 제출
- 모든 자료는 이미지왜곡 또는 훼손이 없는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결과확인 후 원본 폐기)

[표 1] 경관자원(건축물) 목록(45건)

구분	경관자원명	위치	주요용도	최고높이	관찰지점 폭	주요색상
1	광화문	서울 종로구	문화재	–	–	혼합
				12m	29m	베이지색
				18.93m	75m	검정, 아이보리
2	숭례문	서울 중구	유적지	12.5m	30m	혼합
				16m	32m	검정, 회색
				19m	10m	밝은 갈색 어두운 회색
3	독립문	서울 서대문구	역사적 기념비	15m	12m	밝은회색
4	장안문	수원 팔달구	역사문화시설	13.5m	30m	짙은회색
5	팔달문	수원 팔달구	성문	19.5m	20m	짙은회색
6	화서문	수원 팔달구	역사문화시설	6m	15m	짙은회색
				4~6m	4m	황토색
7	금성당	서울 은평구	문화재	3.5m	21m	청색
8	동십자각	서울종로구	유적지	지상4층	12m	베이지색
				–	–	혼합
9	보신각	서울 종로구	건축물/종각	10m	25m	초록, 빨강
				11m	20m	붉은색
10	예술의전당오페라 하우스	서울 서초구	공연장	15m	40m	회색,검은색
11	서울시청 구청사 (서울도서관)	서울 중구	도서관	–	57m	회색
				–	50m	베이지
				20m	55m	회색
				20m	80m	밝은갈색
				33m	180m	연한갈색
12	서울시(신)시청	서울 중구	공공청사	지상13층	53m	청록색
				–	–	옥색
1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 중구	공공청사	33m	–	아이보리
14	서울역(문화284)	서울 중구	문화공간/기차역	2층	30m	살구색
				16m	40m	붉은색
15	세종문화회관	서울 중구	문화공간	지상6층	70m	베이지색
				10.2m	–	고동색 밝은회색
				–	–	연회색
16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서초구	터미널	30m	70m	연한자주색, 아이보리색
17	갤러리아백화점 아산점	천안 서북구	상업시설	9층	90m	회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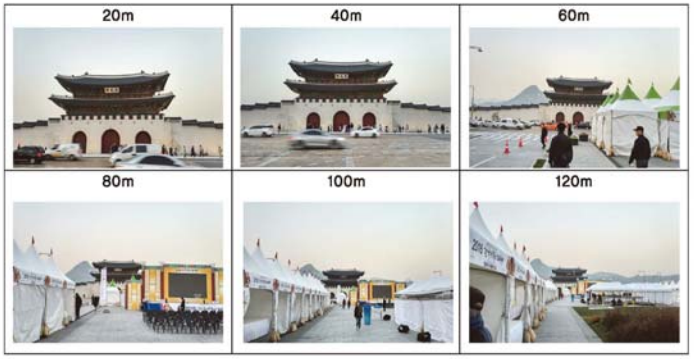
구분	경관자원명	위치	주요용도	최고높이	관찰지점 폭	주요색상
18	동남구보건소	천안 동남구	보건소	3층	26m	황토색,회색
19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서울 중구	복합 문화공간	29m	20m	회색
20	롯데몰 은평점	서울 은평구	상업시설	28m	230m	흰색
21	목동종합운동장	서울 양천구	종합운동장	-	측면	회색
22	새빛 둥둥섬	서울 서초구	문화컴플렉스	13m	44m	흰색, 투명
23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수원 팔달구	미술관	5m	25m	회색
24	수원역	수원 팔달구	기차역, 지하철	39.53m	18m	회색
25	수원 종합운동장	수원 장안구	종합운동장	12m	5m	연노랑색
26	신도중학교	서울 은평구	학교	15m	60m	주황색
27	은평제일교회	서울 은평구	종교시설	12m	30m	회색
28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산 배방읍	상업시설	7층	92m	연두색, 회색
29	일민미술관	서울 종로구	미술관	19.2m	-	살구색
30	종합운동장	천안 서북구	체육시설	2층	160m	회색
31	중앙우체국	서울 중구	우체국	60m	65m	회색, 투명
32	진관동주민센터	서울 은평구	공공청사	9m	35m	갈색
33	천안박물관	천안 동남구	박물관	2층	80m	파랑,회색
34	천안시청	천안 서북구	업무시설	7층	170m	파랑,회색
35	천안아산역	아산 배방읍	역사	3층	350m	파랑,회색
36	테마공원 기념관	천안 동남구	기념관	3층	70m	파랑,회색
37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울 중구	박물관	10m	50m	회색,검정
				16m	48m	미색
38	화성행궁	수원 팔달구	역사문화시설	5m	125m(광장) 18m(길)	적색, 갈색
				2.32m	18m	적색, 갈색
39	흥국생명빌딩	서울 중구	업무시설	27m	88m	밝은회색
40	우리금융아트홀	서울 송파구	경기장	8.7m	34m	회색
41	흥인지문	서울 종로구	보물	20m	20~10m	밝은회색 어두운 회색
42	고척 스카이돔	서울 구로구	야구장	67.59m	200m	회색
43	사루비아빌딩 (구 린나이 빌딩)	서울 서대문구	상업시설	36m	85m	하늘색 밝은회색
44	수원화성 박물관	수원 팔달구	문화시설	9m	15m	어두운 회색 연두색
45	양천문화회관	서울 양천구	문화센터	20m	정면	회색

1. 광화문 개요

경관자원명	광화문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요용도	유적지
최고높이	12m	관찰지점 방향의 폭	29m	주요색상	베이지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395년(태조 4년) 9월에 창건되었다. 석축기단에 3개의 홍예문를 만들고 그 위에 정면 3칸의 중층우진각 지붕으로 된 목조문루를 세웠다. 목조건축의 양식은 다포식으로 상하층이 모두 외이출목·내삼출목, 외부는 제공(諸工) 뿌리를 쇠서로 하고, 내부는 운공을 만들었으며, 첨차 양측면에는 모두 파련초각을 하였다. 이 건물은 섬세한 수법과 웅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장려한 외관을 지닌 가장 뛰어난 궐문으로 평가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270여년 간 중건되지 못하다가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으로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았다. 한일병합 후 1927년 조선총독부가 해체하여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북쪽에 이전시켰고, 설상가상 6·25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1968년에 전통적인 광화문의 모습을 상실한 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복원시켰다. 그나마 도로확장을 위해 위치도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2006년 12월부터 광화문 복원 및 이전 공사가 시작되어 전통적인 옛 모습을 찾기 시작했으며 2010년 8월에 완공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복궁 광화문 [Gyeongbokgung Gwanghwamun Gate, 景福宮 光化門] (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현재 한국의 수도이며, 조선 600년 수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을 가장 대표하는 경관자원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광장과 역 또한 그 이름을 사용할 만큼 사회적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건물이다.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의 중심 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서 많은 주요 기관, 건물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고, 가장 한국적인 미와 형태가 드러난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광화문
전경사진	



2. 숭례문 개요

경관자원명	숭례문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남대문로4가 29)			주요용도	유적지
최고높이	12.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30m	주요색상	다양한 색상 (짙은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으로, 남대문으로 불린다. 1395년(태조4)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7)에 완성, 1447년(세종29)에 개축하였고 1479년(성종10)에 대규모 보수공사가 있었다.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화재로, 2010년 2월 착공식을 거행하고 복구작업을 시작하여 2013년 5월에 현 모습으로 복구되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으로, 1962년 12월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고, 서울의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다. 화재이후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전통방식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제 시대에 일본에 의해 변형된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데 주력한 역사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숭례문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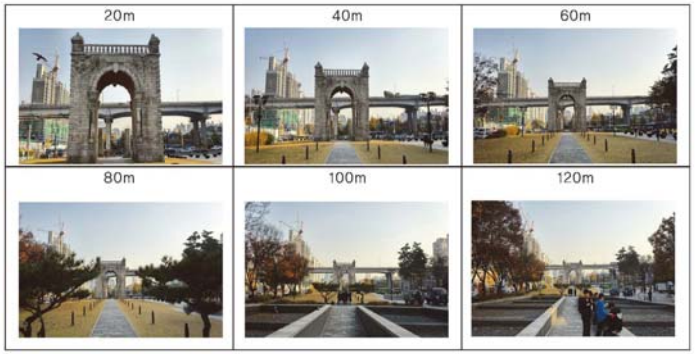
3. 독립문 개요

경관자원명	독립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			주요용도	역사적 기념비
최고높이	1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12m	주요색상	밝은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건축배경 및 역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한양을 찾아오는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장소인 영은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1897년 독립협회가 건립하였다. 국민모금행사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만들어진 15m 높이의 문은 파리 개선문을 본뜬 모습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 안에 있는 문이다. 원래는 종로구 교북동(橋北洞)에 있던 것을 1979년 이곳으로 이전하여 복원했다. 프랑스의 에투알개선문을 본떠서 서재필(徐載弼)이 스케치한 것을 근거로 독일공사관의 스위스인 기사가 설계를 하였다. 공역(工役)은 건축기사 심의석(沈宜碩)이 담당하고 노역(勞役)은 주로 중국인 노무자들을 고용하였다. 공사비는 주로 기부금으로 충당, 1897년에 준공하였다.(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청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을 허문 자리에, 독립문이 건축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강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는 서대문의 대표적인 문화재 중 하나로서, 공원과 지하철역을 통해 장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ROTC임관과 같은 행사, 지역행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기념비 이상의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경관자원으로써, 국내 및 국외여행객들의 관광지가 되기도 한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독립문

전경사진



4. 장안문 개요

경관자원명	장안문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10			주요용도	역사문화시설
최고높이	약13.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30m	주요색상	짙은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장안문은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이다. 보통 성의 남문을 정문으로 삼으나, 화성은 임금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이다. 장안문의 이름은 중국의 옛 왕조인 전한, 수,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따온 것으로 이는 당나라 때의 장안성처럼 화성 또한 융성한 도시가 되라는 정조의 뜻이 담겨 있다 1794년 2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여 9월 5일 완공하였다.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말이자 백성들의 안녕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서울의 국보 제1호 숭례문보다도 큰 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이다. 성문의 바깥에는 반원형의 옹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항아리를 반으로 쪼갠 것과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행궁동을 가로지르는 정조로의 북쪽 시작 관문인 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남북의 축을 연결하는 중요 길목으로써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답게 랜드마크적 요소가 강하며, 장안문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 체험관, 행궁동 벽화마을 등의 문화컨텐츠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행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과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지역 주민들이 항시 분비는 곳이다. 도로의 축에 위치해 도심내에 방향성과 위치를 확인해주는 요소로써 사람들에게 깊게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수원 장안문

전경사진

5. 팔달문 개요

경관자원명	팔 달 문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132-5			주요용도	성문
최고높이	19.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20m	주요색상	짙은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964년 9월 3일 보물 제402호로 지정된 팔달문은 화성의 4대문 중 남쪽 문으로 남쪽에서 수원으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조대왕과 당대 국왕들이 현륭원을 가기 위해 이곳을 통과했다고 한다. 1794년(정조 18) 2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여 9월 15일에 완공하였다. 팔달문은 모든 곳으로 통한다는 '사통팔달'에서 비롯한 이름이며 축성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었다. 성문의 바깥에는 반달모양의 옹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항아리를 반으로 쪼갠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옹성은 1975년 복원공사 때 고증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또한 문의 좌우로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도로를 만들면서 헐어버려 지금은 성문만 남아 있다. 수원 화성 안쪽에 있는 여러 건물 중 가장 크고 화려하며, 발달된 조선 후기의 성문 건축형태를 고루 갖추고 있는 문화재이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팔달문은 수원지역 최대 지하철역인 수원역에서 수원 화성으로 바로 잇는 행궁동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팔달문 시장, 지동시장, 수원 영동시장 등 상업시설이 모여 복잡한 번화가에서 중심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고 있다. 팔달문에 인접해 생겨난 시장들과 주변에 인접한 수원 행궁은 팔달문 중심으로 상권을 발달시켜 주변에 수원 통닭거리와 행궁동 벽화마을등 문화적 거점의 의의도 갖는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팔 달 문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6. 화서문 개요

경관자원명	화서문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4			주요용도	역사문화시설
최고높이	6m	관찰지점 방향의 폭	15m	주요색상	짙은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화서문은 화성의 4대문 중 서쪽 대문이다. 1795년(정조 19) 7월 21일 공사를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1월 8일 마쳤다. 화성 서쪽의 남양만과 서해안 방면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3호로 지정되었다. 편액은 초대 화성유수였던 채제공(蔡濟恭)이 썼으며 옹성 안 홍예문 좌측 석벽에는 성문공사를 담당하였던 사람과 책임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화서문을 모델로 수원시의 마크를 만들었다. 현지 화성어차의 출발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이다. 관광객들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하여 관광에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화서문에는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을 기록한 공사실명판이 새겨져 있어, 기록 문화에 충실했던 조선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수원 화서문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

7. 금성당 개요

경관자원명	금성당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75-836			주요용도	문화재
최고높이	3.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21M	주요색상	청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880년대 이전 건축, 2010년 복원 완료 조선시대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가 죽음을 당한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신당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서울시에서는 보기 드문 무속관련 건축물 19세기 무속신앙의 단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전통양식 아파트 단지와의 조화를 이룸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금성당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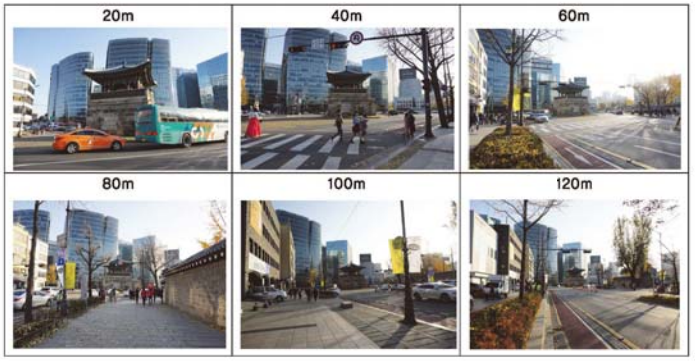
8. 동십자각 개요

경관자원명	동십자각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8			주요용도	문화재
최고높이	13m	관찰지점 방향의 폭	10.2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건축배경 및 역사는 다음과 같다. 경복궁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하며 궁궐의 망루였다. 이 목조누각은 1867년(고종 4) 경복궁 복원 당시에 세웠으며, 동십자각에는 원래 망루를 오르는 계단이 있었고 경복궁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를 건립하면서 철거되었다. 망루의 기둥은 하방(下枋)과 창방(昌枋)을 매우 간단하게 돌렸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벽채가 없이 트였다. 공포는 2익공으로, 기둥 사이에는 장화반(長華盤)만을 두었으나, 45도 각도로 짜여진 귀에만은 추녀 뒷부분을 받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 앞으로 길이 나면서 경복궁이 훼철되었고 길 한가운데 동십자각만 달랑 남게 되었다. 현재는 사직로와 삼청로가 만나는 길 가운데 위치한다. (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한때 망루와 같은 돈대의 역할을 했던 동십자각은, 현재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경복궁에서 분리되어, 도로의 한 가운데 독립되어 위치한 동십자각은 교통섬과 결합하여 도로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로를 통해 접근하는 운전자는 운전 중 부담없이 유적지를 볼 수 있다. 또한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유도, 적절한 상충지점 분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일반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또한 해당 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방향과 위치를 표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동십자각

전경사진



9. 보신각 개요

경관자원명	보신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45-5			주요용도	종각
최고높이	약11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20m	주요색상	붉은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보신각종을 걸어 놓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이다. 조선시대 한양(漢陽)에 종을 처음 건 것은 1398년(태조 7)으로, 광주(廣州)에서 주조한 종을 청운교(靑雲橋) 서쪽 종루에 걸었다. 1413년(태종 13)에 종루를 통운교(通雲橋:종로 네거리)로 옮기고 1458년(세조 4)에는 새로 대종(大鐘)을 주조하여 달았으나 임진왜란으로 종루는 소실되고 종도 파괴되었다. 그후 1619년(광해군 11)에 종각을 다시 짓고 종을 걸었는데 이때 세운 종각은 임진왜란 전의 2층 종루가 아니고 1층 종각이었으며 여기에 건 종은 명례동(明禮洞) 고개에 있었던 것을 옮겨왔다고 한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1468년 만들어진 보신각 종은 제작시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범종으로 보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파루(오전 4시)에 28번, 인정(오후 10시)에 33번 울리며 도성 4대문의 여닫는 시각을 알리던 종은 그 수명이 다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지금의 종은 1986년 제작된 '서울대종'으로 매년 새해 첫날이면 20t의 육중한 몸을 울려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보신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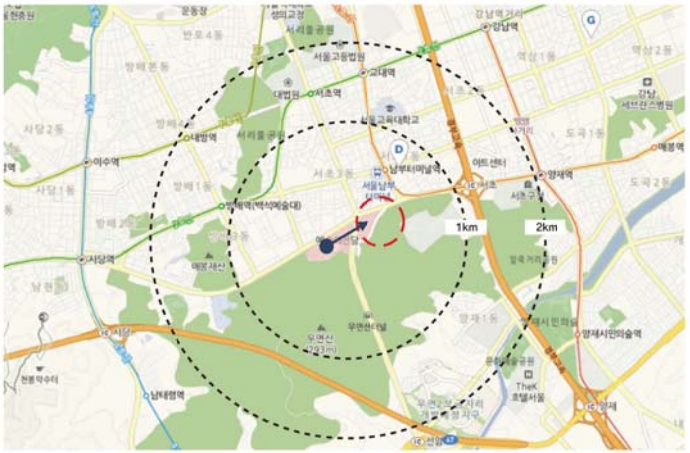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10.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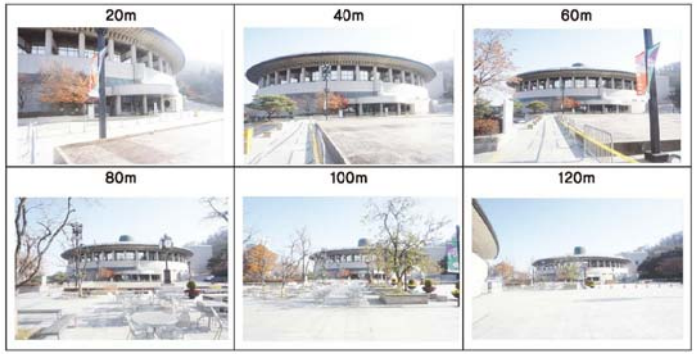
경관자원명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주요용도	공연장
최고높이	1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40m	주요색상	회색, 검은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부지 7만 597평, 건축 연면적 3만 6522평의 규모이다.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서예관, 미술관, 예술자료관 등의 옥내 공간과 장터, 놀이마당, 한국정원, 우면지 등을 갖춘 복합 예술공간이다. 1982년 1월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제교류 증진과 국민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건립이 발의되었으며, 198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예술의전당(Seoul Arts Center) 건립본부를 발족하였다. 1984년 5월 국제 지명 공모를 통하여 김석철(金錫撤)을 주 건축가로 선정하여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1987년 2월 15일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으로 운영체계를 갖춘 뒤, 1988년 2월 15일 1단계로 음악당과 서예관을 개관하였다. 1990년 2단계로 미술관과 자료관을 개관하고, 3단계로 1993년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하여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완성되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오페라극장은 자주색과 금색이 주를 이룬 화려한 실내, 고전식 말굽형 극장과 현대식 오디토리엄이 조화된 객석을 갖추고 있다. 주무대 외에 후무대와 좌우 측무대의 신속한 무대 교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신 공연 지원 시스템과 첨단 과학장비 및 부대시설을 갖춘 완성도 높은 무대로서 오페라는 물론 전통 창극, 뮤지컬, 현대 창작 음악극 등 모든 음악극 장르와 전통 발레까지를 수용하는 전문 공연장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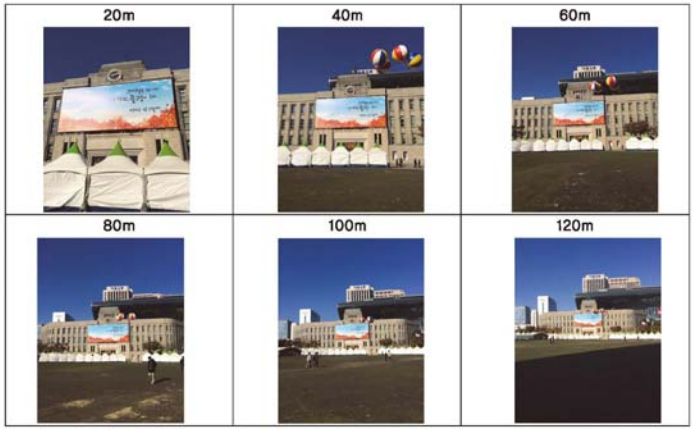
11. 서울도서관(서울시청 구청사) 개요

경관자원명	서울도서관 (서울시청 구청사)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주요용도	공공도서관
최고높이	약 2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55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2년 10월 13일 신축된 신청사 건물로 서울시청이 이전 개청하면서, 신청사 앞의 옛 서울시청사 건물에는 '서울도서관'이 설치되었고, 서울도서관은 2012년 10월 26일 개관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 준공된 옛 서울시청사 건물은 2003년 6월 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옛 서울시청사 건물의 건립 당시 외벽·홀·중앙계단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리모델링하였다. 지상 1층부터 4층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18,711m2, 순면적 9,499m2의 건축물로, 지하 3~4층의 보존서고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출입통제구역이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설립목적이 '서울의 정보중심, 도서관의 중심도서관'을 목표로 하는 서울의 대표 도서관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서울 지역 도서관의 중심도서관이자, 새로운 지식정보 및 서울학 등 시정 전문 정보자료를 보급·지원하는 서울의 정보중심 도서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울시의 320여 개 도서관을 총괄·지원·협력하는 '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도서관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서울자료실 및 서울기록문화관과 시장실 복원공간, 기획전시실, 세계자료실 등의 특별전시공간도 운영되고 있다. 건물의 주요 부분은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당시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서울도서관 (서울시청 구청사)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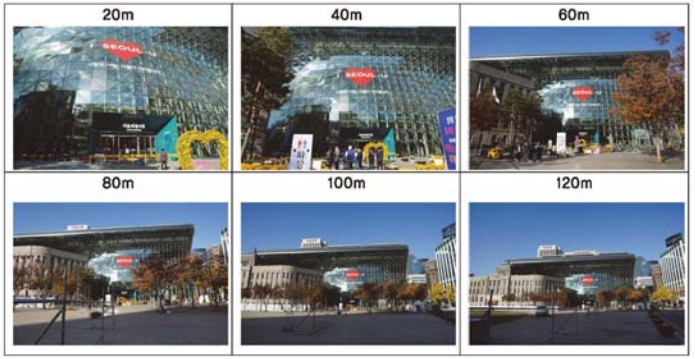
12. 서울시(신)시청 개요

경관자원명	서울시청 신청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새종대로 110			주요용도	공공청사
최고높이	5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전체 114m 중 54m 관찰	주요색상	옥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건축배경 및 역사는 다음과 같다. "수도 서울의 상징성과 역사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에 따라 당초 착공 예정된 서울시 신청사를 재설계하였다. 2008년 2월 18일 서울시 신청사 설계경기에서 유걸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건물 앞부분의 상층부는 곡선 모양으로 튀어나오도록 설계됐으며, 신청사 전체 공간 가운데 30% 정도는 다목적 홀, 스카이라운지 등 문화공간으로 이용된다. 신청사에는 시민문화공간과 함께 종합민원센터인 다산프라자 등 관련 업무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2012년 5월에 완공되었다. 설계자 유걸 씨는 "새 건물의 핵심 키워드는 전통, 시민, 미래"라며 "우리 전통건축 양식이 가진 저층의 수평적 요소와 처마지붕의 깊은 음영 및 곡선미를 재해석해서 옛것에 대한 친근감을 살렸다"라고 말했다. 중간에 서울시청측과 문화재청의 '보존과 해체'로 대립이 있었으나 철거 후 새로운 청사 건물이 들어섰다. (위키피디아)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기존의 근대식 건축물에서 벗어나 현대식 건축물의 서울시청이 생겨났다. 기존의 서울시청의 바로 옆에 건축되어, 위치변화에 따른 불편사항은 생가나지 않았다. 신청사는 기존의 청사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간들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다. 서울시청에서 바로 지하철역과 연결되며, 지하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개방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사는 고안된 건축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구청사와는 다른 새로운 경관의 모습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구청사와 같이 위치함에 따라, 공공청사의 존재감과 경관적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서울시청 신청사

전경사진



13. 서울특별시의회 개요

경관자원명	서울특별시의회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주요용도	입법기관
최고높이	33m	관찰지점 방향의 폭	40m	주요색상	아이보리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시의회의 건물은 1935년 경성부 부민관으로 건립되었으나 8.15 광복 후 미군정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오랫동안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어왔다. 현관은 철거되고 내부벽체 등이 개조되었으나 건물의 전체 외형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로서 사용하고 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한국의 남아있는 근대건축물로써 부민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어왔기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또 2002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서울특별시의회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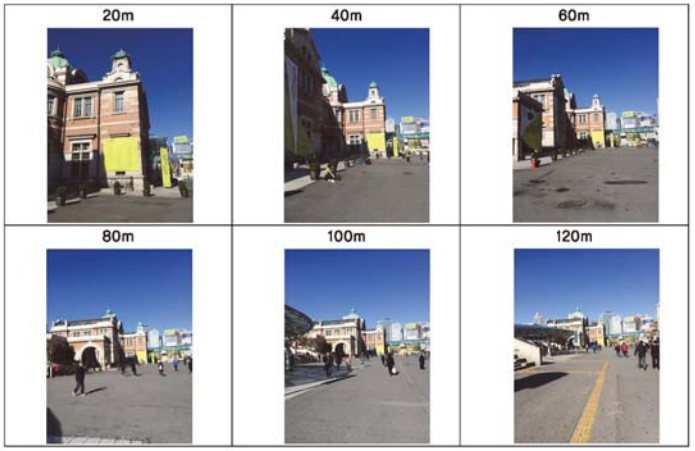
14. 서울역(문화284) 개요

경관자원명	서울역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주요용도	기차역
최고높이	약16m	관찰지점 방향의 폭	40m	주요색상	붉은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역은 근대식 건물로 1925년 10월 15일 준공되었다. 서울역사는 현재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외관을 갖고 있어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은 돌, 벽돌 혼합 건물로, 서양에서 18세기 이래 유행한 절충주의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1900년 경성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05년 남대문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3년 다시 경성역으로 바뀌었고, 1925년 역사(驛舍)가 준공되었다. 1946년 광복 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명칭인 경성부를 서울시라 칭하기로 한 서울시 현장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서울역이라 부르게 되었다. 2003년 12월 완공된 신축 역사에는 백화점이 입점하고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등 여행과 쇼핑을 겸할 수 있는 복합역으로 조성되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하루 평균 9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철도의 중추 간선노선인 경부선과 경의선의 시종착역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서울역

전경사진



15. 세종문화회관 개요

경관자원명	세종문화회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새종대로 175			주요용도	문화공간
최고높이	10.2m	관찰지점 방향의 폭	80m	주요색상	고동색, 밝은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건축배경 및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55년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아호를 딴 우남회관건립위원회가 조직되어 391평의 건물이 1961년 10월 완공되었으나, 1961년 시민회관으로 개칭하여 개관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72년 서울 시민회관이 불타 없어진 뒤,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974년 착공하여 1978년에 준공, 개관하였다.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건축 연면적은 1만 6122평, 부지면적은 5,611평이다. 건축양식은 한국의 옛 건축양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용하여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설계는 건축가 엄덕문이 하였다. 원래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였으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1999년 7월 1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세종문화회관은 대극장, 미술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며 시민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 관찰의 대상이 된 경관자원의 부분은 대극장을 포함하는 장소이다. 경관적으로 가장 큰 특색을 가지며, 도시 미관에 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세종문화회관은 경관자원, 미관 등의 이유로 의의를 갖기보단, 문화공간으로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문화적 의의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웅장하고 우아한 외관은 도시민의 눈을 만족시키는 경관자원의 역할을 한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세종문화회관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16.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개요

경관자원명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주요용도	터미널
최고높이	약 3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70m	주요색상	연한자주색, 아이보리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5년 01월 고속버스 화물통합 운영, 01월 화물영업소 발송/도착 업무통합 및 사무실 이전 2014년 12월 31일 본관 상업시설 새단장, 11월 25일 승차홈, 권역별 노선 조정, 07월 경영이념 선포식, 04월 프리패스 제도 시행, 04월 제20대 대표이사 최병용 사장 취임 2013년 04월 빈곤국돕기 재활용품 기부 2012년 12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갤러리 개관(하차장 지하1층) 2011년 12월 제19대 대표이사 윤영민 사장 연임, 10월 10층 옥상공원(서편)조성_터미날 하늘공원 2010년 11월 10층 옥상공원(동편)조성_터미날 하늘공원, 07월 01일 조직개편(5팀->4팀) .... 1981년 10월 20일 지하1층, 지상10층의 본관건물 준공 1975년 11월 14일 설립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대표적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체로서, 전국적인 노선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사람들이 서울로 모일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17. 갤러리아백화점 아산점 개요

경관자원명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시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27 갤러리아백화저센터시티점			주요용도	상업시설
최고높이	9층	관찰지점 방향의 쪽	약 90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0년 12월 1일 개장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백화점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갤러리아 백화점 센터시티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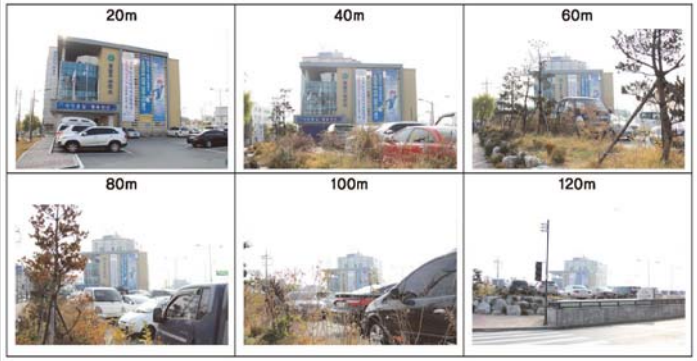
18. 동남구보건소 개요

경관자원명	동남구 보건소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주요용도	보건소
최고높이	3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26m	주요색상	황토색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4.12.26 동남구 보건소를 신축하였으며, 2015.02.02에 보건소가 이전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천안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지소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동남구 보건소

전경사진



1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요

경관자원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7가 2-1 (을지로 281)			주요용도	복합 문화공간
최고높이	29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20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와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상업·문화 활동 등의 추진으로 건립된 복합문화 목적의 공간 2006년 9월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8월 국제 지명초청 현상설계경기방식을 통해 작품을 선정한 뒤,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11월 준공. 2014년 3월 21일에 개관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전 동대문운동장의 향수와, 역사적·문화적·도시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을 한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컨벤션, 시사회, 패션쇼, 전시관,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로 디자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등의 서울 시민의 복합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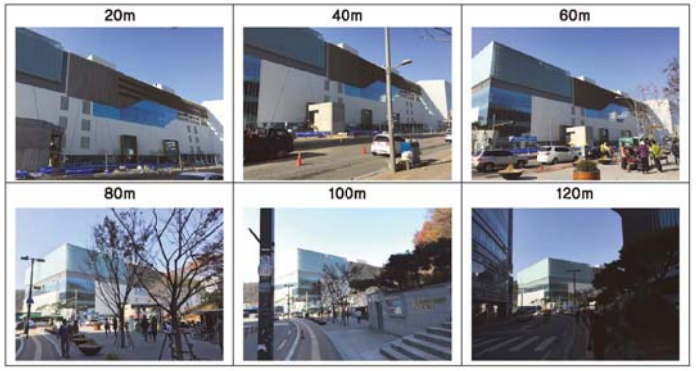
20. 롯데몰 은평점 개요

경관자원명	롯데몰 은평뉴타운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9-15			주요용도	상업시설
최고높이	28M	관찰지점 방향의 폭	230M	주요색상	흰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6년 12월 준공완료 알파로스 사업 좌초 후 롯데자산개발에 의해 복합쇼핑몰로 개발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향후 쇼핑과 의료, 교통의 삼각축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 중심상권으로 부상할 곳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롯데몰 은평뉴타운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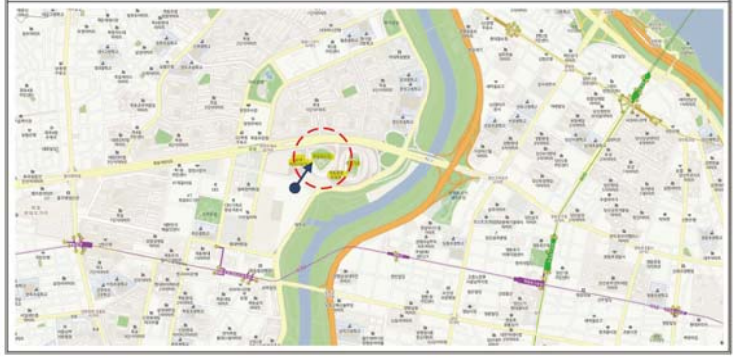


21. 목동종합운동장 개요

경관자원명	목동운동장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주요용도	종합운동장
최고높이	2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측면 (60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 시설개요 ▸ 건립연혁 착공: 1987. 12. 9 준공: 1989. 10. 31 (인조잔디구장: 2006. 6. 9) 공사비: 85억원 시공사: 한보철강(주) 용도: 축상 등 각종 체육경기 무희 및 종교 행사 등 ▸ 시설규모 경기장 면적(㎡): 13,465 건축 연면적(㎡): 22,124 좌석 수(석): 20,236 수용인원(명): 30,000 ▸ 이용현황 목동운동장은 서울시가 생활체육의 확대 및 야구 활성화를 위해 1987년에 건립한 체육시설입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목동운동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방상장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동운동장에서의 스포츠 경기를 통해 목동주민들이 스포츠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상장의 경우 레슨도 하지만, 주말등에는 자유롭게 방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목동 주민들의 체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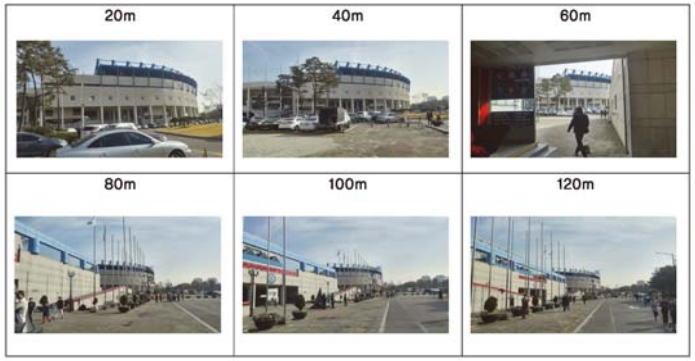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건/일	인원
계			295/236	178,770	419/234	119,155	320/257	120,167	409/317	158,578
체육경기			6/10	24,310	10/18	6,860	20/31	7,510	26/49	13,385
체육외경기			97/109	151,420	93/101	106,319	79/93	109,126	78/107	141,440
연습사용			192/117	3,040	316/115	3,976	221/133	3,531	305/161	3,753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목동운동장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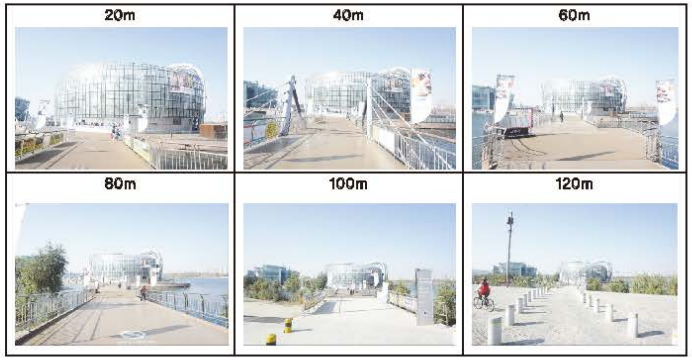
22. 세빛둥둥섬 개요

경관자원명	세빛둥둥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주요용도	문화컴플렉스
최고높이	13m	관찰지점 방향의 폭	44m	주요색상	흰색, 투명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06년 11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 2009년 11월 에빛섬 완공(미디어아트 갤러리) 2011년 4월 세빛섬 전체 완공, 5월 전망공간 일부 개장 2014년 5월 가빛섬 개장, 7월 채빛섬 개장, 10월 세빛섬 전면개장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서울 시민의 하루의 삶을 상징하며 서울과 한강을 비추고 있습니다. 채빛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활기찬 하루를 여는 찬란한 빛입니다. 솔빛은 한낮의 해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온 사방을 비춥니다. 가빛은 해질녘 노을빛처럼 하루의 끝을 갈무리하며 아름답고 우아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아트갤러리 예빛은 밤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과 같은 예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세빛둥둥섬

전경사진



23. 수원아이파크 개요

경관자원명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			주요용도	미술관
최고높이	약 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25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건축배경〉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지역작가를 후원 발굴하고 국내외 새로운 미술경향을 소개합니다. 전시, 작품수집, 교육, 지역미술 연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고 세계와 연결하고 창의를 나누는 미술관이 되고자 설립함. 〈건축역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쉼터가 되고자 2015년 10월 8일 개관함.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화성행궁과 팔달산, 팔달문 그리고 장안문 사이에 길게 늘어진 도시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통로이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전까지는 수원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여가활동 및 문화수준 증진에 도움을 준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24. 수원역 개요

경관자원명	수원역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주요용도	기차역 지하철
최고높이	39.53m	관찰지점 방향의 폭	18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905년 1월 1일 보통 기차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75년 12월 31일 전철 역사를 준공하였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포함한 모든 여객 열차가 정차하며, 2010년 11월 1일 부터 KTX도 정차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11월30일 이 역까지 분당선이 연장 개통되어 수도권전철 1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이며, 분당선의 종점이다.2013년 5월15일 왕복 2편성 중부내륙열차가 이 역에서 시·종착한다. 한때 수도권전철 1호선은 모두 이 역에서 시·종착하였으나, 병점역과 그 이남 노선 개통 이래 1호선 열차는 현재는 이 역에서 시·종착하지 않는다. 1996년 1월 1일 수인선 영업을 중지하였고 협궤역사를 폐쇄하였으며 2003년 2월 민자역사를 준공하였다. 역 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역 가까이에는 경기도청이 있으며 각종 행정기관도 밀집해 있다. 2013년 11월 30일 분당선 연장개통과 함께 수원(분당)역이 영업을 개시하였고 한 역사 내 수도권서부본부와 동부본부로 소속이 다른 유일한 역이었으나, 2014년 6월 서부본부 수원역으로 흡수되어 하나의 소속으로 관할을 일원화 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수원역은 1905년부터 수원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했다. 기차역으로 시작하여 새마을호, 무궁화호, KTX가 정차하고 지하철 1호선, 분당선의 환승역으로 수원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에서 오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이 거쳐가는 버스환승소도 있다. 수원역에는 두 개의 대형백화점이 있고 역전에는 수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가 있다. 수원역은 수원시민들에게 교통의 중심이자 상업의 중심지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수원역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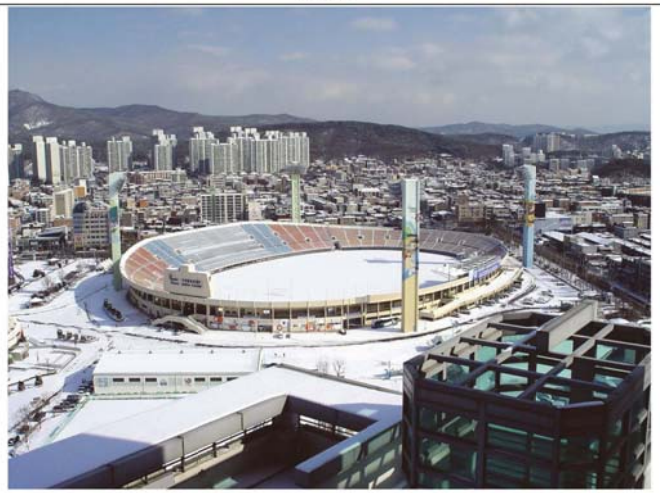
25. 수원종합운동장 개요

경관자원명	수원종합운동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요용도	종합 운동장
최고높이	약 12m	관찰지점 방향의 폭	5m	주요색상	연노랑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건축배경〉 쾌적하고 한층 향상된 종합체육시설을 수원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주경기장, 야구장, 수원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 야외농구장, 리틀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축역사〉 1971.10 공설운동장 신축 1984.10 체육관 신축 1986.09 주경기장 증/개축 1988.10 야구장 신축 2000.11 인조잔디구장 설치 2003.12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2004.04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탁운영 2014.11 국민체육센터 개관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수원종합운동장은 체육증진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부터 수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훈련장, 경기장 및 체육 꿈나무들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주경기장, 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여러 체육시설을 증축, 개축하면서 수원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최근에는 수원시 야구단 창단으로 수원시민에 국한하지 않고 체육증진을 꾀하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수원종합운동장

전경사진



26. 신도중학교 개요

경관자원명	신도중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15			주요용도	학교
최고높이	1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60M	주요색상	주황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0년 5월 19일 개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공립중학교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은평뉴타운 2지구에 위치하고, 이곳에서는 중학교 1개시설이 존재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신도중학교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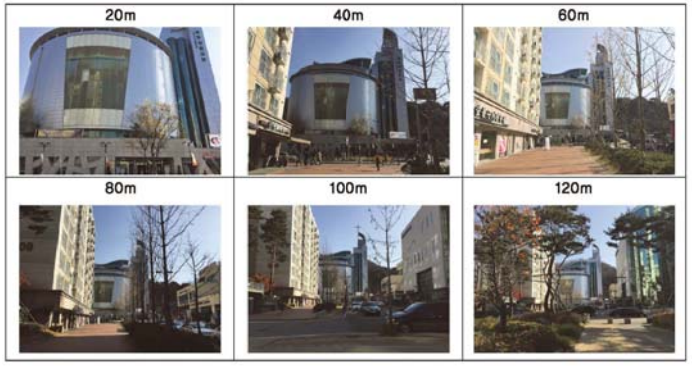
27. 은평제일교회 개요

경관자원명	은평제일교회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1			주요용도	종교시설
최고높이	12M	관찰지점 방향의 폭	30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981년에 은평구 불광동에서 창립 2010년 은평뉴타운으로 이전, 2500평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은평뉴타운의 주민 뿐 아니라 불광동 등의 타 지역의 사람 또한 흡입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은평제일교회

전경사진



28.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요

경관자원명	이마트 트레이더스(천안아산점)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33			주요용도	상업시설
최고높이	7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92m	주요색상	연두색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2년도 이마트 아산점을 폐점하면서 창고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스로 전환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할인마트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이마트 트레이더스(천안아산점)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29. 일민미술관 개요

경관자원명	일민 미술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			주요용도	미술관
최고높이	약19.2m	관찰지점 방향의 폭	32m	주요색상	살구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일민미술관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동아일보 사옥으로 세워져 수차례의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지며 1992년까지 66년간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장소로 쓰였다. 동아일보가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일민문화재단은 1994년 이 건물에 일민문화관을 열었고 1996년 12월, 미술관 승인을 받아 일민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이후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쳐 2002년 2월, 건축물의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현대적인 기능과 감각을 더한 지금의 모습으로 재개관했다. 2010년에는 서울의 10대 근대건축 문화재로 선정되는 등 일민미술관의 건축적 가치는 지속해서 조명되고 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일민미술관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첨단 빌딩들과 고궁들, 청계천 물길이 어우러진 서울 광화문 지역은 역사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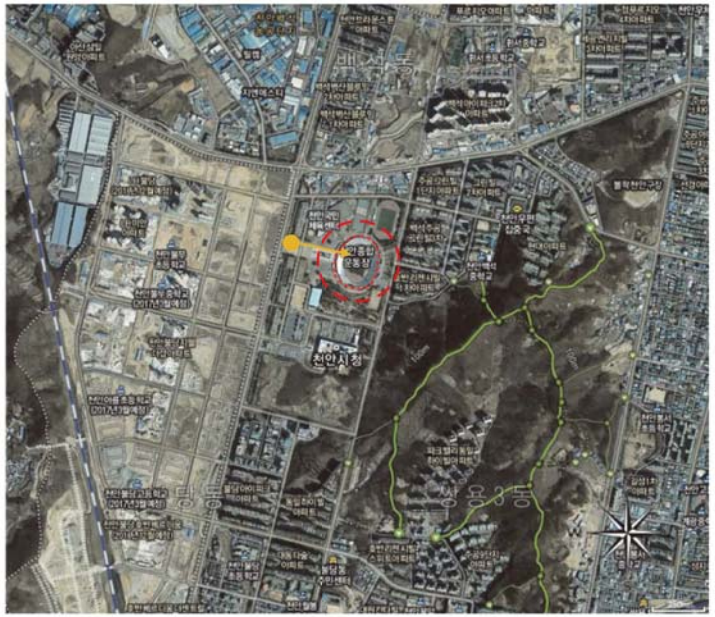
경관자원명	

전경사진

30. 천안 종합운동장 개요

경관자원명	천안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55-1			주요용도	체육시설
최고높이	2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160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998년 12월에 기공식을 하여 2001년 7월 완공되었고, 2007년 FIFA U-17 월드컵이 열리기도 하였으며, 2010년에는 2022년 월드컵을 유치신청한 대한축구협회가 개최구장으로 선정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천안시내 스포츠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이며, 생활체육시설로도 사용되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천안 종합운동장(주경기장)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31. 중앙우체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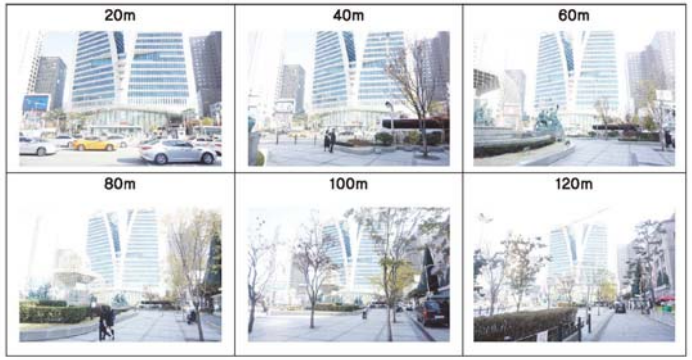
경관자원명	서울중앙우체국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주요용도	우체국
최고높이	6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65m	주요색상	회색, 투명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884년 11월 18일 우정총국 설치(종로구 견지동, 현 체신기념관) 1884년 12월 06일 갑신정변으로 업무 중단 1895년 07월 22일 한성우체사(종로구 세종로 위치)설치로 업무 재개 1905년 07월 01일 경성우편국으로 개칭(현위치) 1939년 10월 01일 경성중앙우편국으로 개칭 1949년 08월 13일 서울중앙우체국으로 개칭 1959년 03월 01일 야간창구 업무 개시 2003년 07월 21일 청사개축 및 임시청사 분리사용(야간창구 업무 : 서울중앙->광화문) 2007년 09월 17일 신축청사(포스트타워)에서 업무 개시(야간창구 업무 : 광화문->서울중앙) 2010년 07월 01일 휴일(09:00 ~ 13:00) 및 야간(평일 18:00 ~ 20:00) 우편창구 운영 폐지 2013년 10월 01일 토요일(09:00 ~ 13:00) 우편창구 운영 폐지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우체국은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등의 첨단 통신시설이 대중화되면서 우체국 고유의 우편업무는 갈수록 그 의미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겪고 있다. 옛날부터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중앙우체국

전경사진

출처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http://www.heerim.com/



32. 진관동주민센터 개요

경관자원명	진관동 주민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8			주요용도	공공청사
최고높이	9M	관찰지점 방향의 폭	35M	주요색상	갈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진관동이라는 동명은 진관사에서 유래 법정동 진관외동과 진관내동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7년에 진관동으로 통합되면서 진관동 주민센터가 지어짐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은평뉴타운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진관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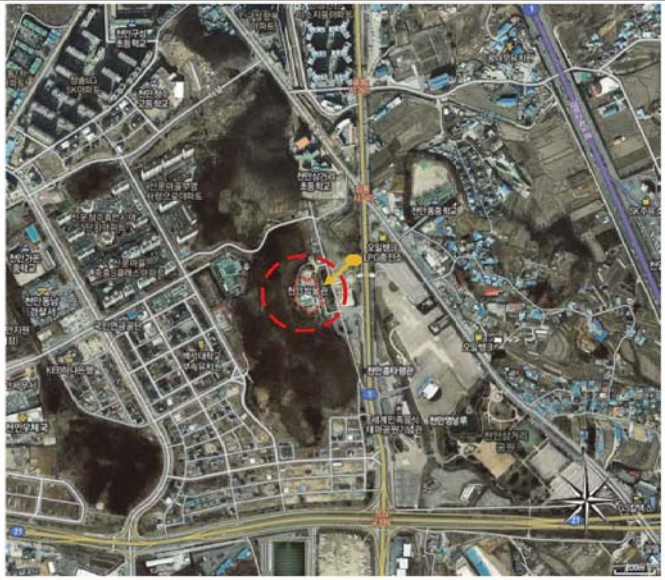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33. 천안박물관 개요

경관자원명	천안박물관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29-13 천안박물관			주요용도	박물관
최고높이	2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80m	주요색상	파랑색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04년 12월 23일 천안 박물관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5년 11월에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결정[정롱 공원]하였다. 2007년 11월 27일 건축 준공을 하였다. 2008년 3월 11일에 박물관 전시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 22일에 천안 박물관이 개관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천안 박물관은 천안의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 시기까지의 역사는 물론이고 천안 삼거리의 설화와 천안의 민속 소개, 시대별 교통 운송 수단을 테마별로 전시하는 테마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전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역사 문화 대학, 전통 공예 등을 배우는 박물관 교실,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뮤지엄 데이 등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립 예술단 상설 공연과 영화 상영 등 토요 상설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천안박물관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34. 천안시청 개요

경관자원명	천안시청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주요용도	업무시설
최고높이	7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170m	주요색상	파란색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천안시청은 동남구 문화동 1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가 2005년 9월 30일에 시조례 제692호로 불당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천안시청은 천안 지역 전체를 관할하며 국가의 위임 업무와 자치 단체에 자치권이 있는 고유 업무 및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천안시청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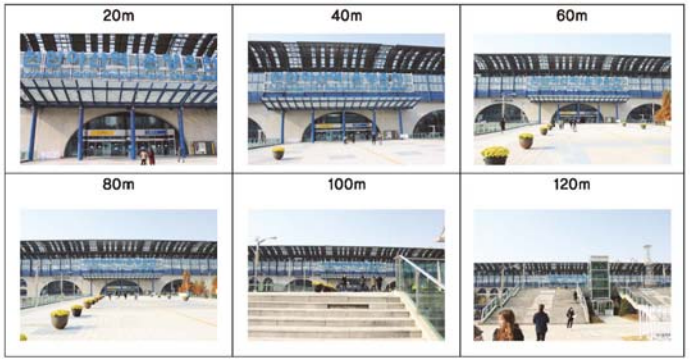
35. 천안아산역 개요

경관자원명	천안아산역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주요용도	역사
최고높이	3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350m	주요색상	파랑색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993.06.14 역사 위치 확정 1995.07.22 역사신축착공 2003.08.21 천안아산역으로 역명 결정 2003.11.20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역명 변경 2004.04.01 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2007.03.30 장항선 아산역과 환승통로 개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지하철 1호선, 일반기차 및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천안아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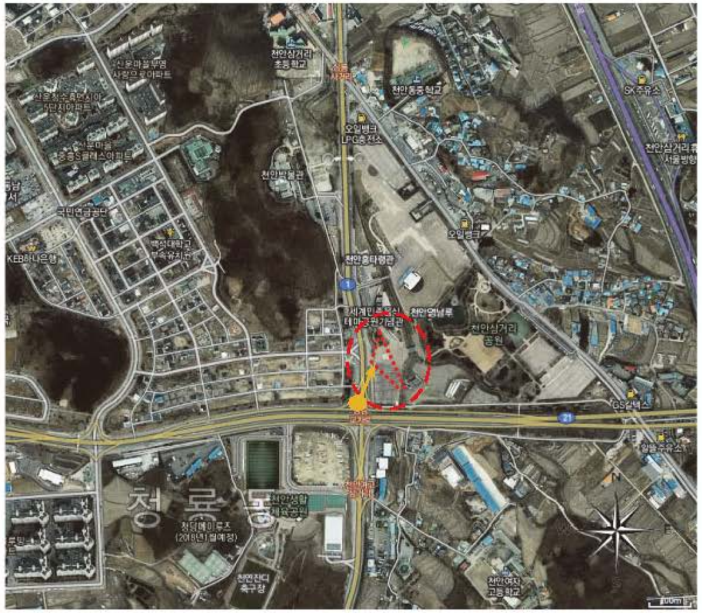
전경사진



36. 테마공원 기념관 개요

경관자원명	천안시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기념관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주요용도	기념관
최고높이	3층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70m	주요색상	파랑색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행사의 주제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축제후 리모델링하여 2014년 재개장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천안향토음식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태국, 터키 등 9개국의 대표 음식 판매관을 두어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천안시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기념관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37.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개요

경관자원명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번지 한국은행 본관 1층			주요용도	박물관
최고높이	약 1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50m	주요색상	회색, 검은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한국은행 옛 본관건물의 준공 당시 명칭은 조선은행(朝鮮銀行) 본점이다. 일제는 본격적인 대한(對韓) 침략정책에 따라 1905년부터 정부 국고금의 취급, 화폐 정리, 은행권의 발행 등을 담당할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의 한국 총지점인 경성 지점(京城支店)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1909년 10월 한국은행을 설립하면서 한국은행은 제일은행 경성지점의 업무를 인계 받아 중앙은행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으로 한국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고, 조선총독부 직속 금융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이 건물은 광복 직후 화재로 내부 일부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폭격 등으로 내부가 거의 파괴되었으나 1956년 5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복구되었다. 1981년 9월 25일에는 국가 중요문화재(사적 제280호)로 지정되었다. 1987년 12월 이 건물 후면에 한국은행 신관(현 본관)이 준공되면서, 1989년부터 이 건물은 원형 복원되어 2001년부터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1912년에 지어진 것으로, 르네상스양식을 바탕으로 한 절충식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적 제280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외 화폐 4,500여 점과 한국은행이 하는 일, 화폐의 제조과정, 위변조 화폐의 식별방법, 돈과 나라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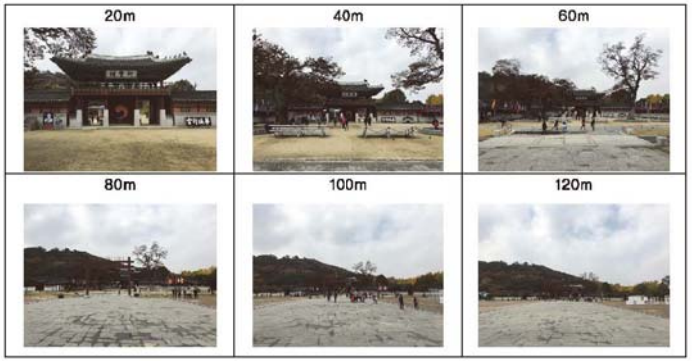
38. 화성행궁 개요

경관자원명	화성행궁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2			주요용도	궁궐
최고높이	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125m(광장) 약 18m(길)	주요색상	적색, 갈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은 1789년(정조 13년) 수원 신읍치 건설 후 팔달산 동쪽 기슭에 건립 되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륭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으며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화성부 유수(留守)가 집무하는 내아(內衙)로도 활용하였다. 정조는 1789년 10월에 이루어진 현륭원 천봉 이후 이듬해 2월부터 1800년(정조 24년) 1월까지 11년간 12차에 걸친 능행(陵幸)을 거행하였다. 화성행궁은 576칸으로 정궁(正宮) 형태를 이루며 국내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낙남헌을 제외한 시설이 일제의 민족문화와 역사 말살 정책으로 사라졌다. 1980년대 말,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꾸준하고 적극적인 복원운동을 펼친 결과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마침내 482칸으로 1단계 복원이 완료되어 2003년 10월, 일반에게 공개 되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수원화성행궁은 1789년 건립이후 수원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화성행궁 건립당시 같이 축조한 성곽과 함께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화성행궁은 조선 후기 정치와 군사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며,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행궁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정조시대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위민과 개혁을 실천하고자한 역사적 공간이자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을 베풀었던 효의 상징적인 공간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중심축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화성행궁

전경사진



39. 흥국생명빌딩 개요

경관자원명	남대문 흥국생명빌딩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			주요용도	업무시설
최고높이	약27m	관찰지점 방향의 폭	25m	주요색상	밝은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960년대서부터 숭례문의 정방향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흥국생명의 건물이다. 60년대 때 남대문 주변에서 가장 현대식의 고층건물이었고,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남대문의 정 반대편에 위치해 있고,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 그 일대 사람들에게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다. 또, 언뜻 오래되어 건축의 미를 보이진 않으나, 한국의 6,70년대 현대식 건축방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남대문 흥국생명빌딩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40. 우리금융아트홀 개요

경관자원명	우리금융아트홀(올림픽역도경기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주요용도	경기장
최고높이	8.7m	관찰지점 방향의 폭	34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올림픽 역도경기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순수문화예술 공연발전에 기여하고자 노후화된 체육시설인 역도경기장을 2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2009년 11월 개관한 뮤지컬 중심의 전문공연장이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때 역도경기가 열렸던 경기장이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총 157억의 공사비를 들여 대형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했다. 공연장의 명칭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 후원사의 이름을 따서 우리금융아트홀로 붙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한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우리금융아트홀은 다양한 창작물의 공연기회 제공과 지원 등을 통해 공연문화발전에 기여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언제나 자유로이 찾아올 수 있는 고객중심의 열린 공연장으로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연문화 중심의 공공 공연장이다. 1,184석 규모의 우리금융아트홀은 뮤지컬 중심의 공연장이지만 연극, 무용, 클래식, 대중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올림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려지는 공연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양질의 운영시스템과 무대와 가까운 객석을 통해 연기자와 함께 호흡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우리금융아트홀(올림픽역도경기장)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41. 홍인지문 개요

경관자원명	홍인지문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288 (종로6가 69)			주요용도	보물
최고높이	2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20m ~ 약 10m	주요색상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 도성의 8문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동대문이라고 부른다. 1396년(태조5)에 건립되고 1453년(단종1)에 중수되었으며, 1869년(고종6)에 개축하여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홍인지문은 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성문의 앞을 가리어 빙둘러 축조한 성문을 방어하기 위한 성)을 갖추고 있고, 번잡하게 장식화된 부분이 많으며 조선 후기의 쇠퇴된 수법이 곳곳에 엿보이는 건축물이다.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홍인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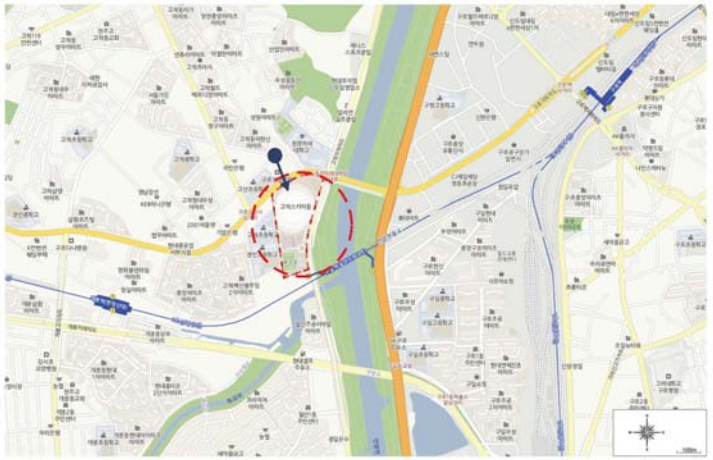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

42. 고척 스카이돔 개요

경관자원명	고척 스카이돔				
주소	서울 구로구 고척돔			주요용도	야구장
최고높이	67.59m	관찰지점 방향의 폭	200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05년 서울스포츠콤플렉스(체육공원)로 조성계획. ●2007년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되면서 그 대체구장으로서 하프돔 형태 아마추어야구용 일반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수정. ●2009년 다시 완전돔 건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용도 또한 프로야구용 구장으로 변경. ●2009년 2월 공사 시작. ●2015년 9월 준공. ●2015년 11월 4일 정식 개장.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사계절 내내 날씨와 상관없이 야구경기와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열 수 있는 한국 최초의 돔(dome) 형태 복합체육문화시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고척스카이돔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

43. 사루비아빌딩(구 린나이빌딩) 개요

경관자원명	사루비아 빌딩(구 린나이 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6			주요용도	상업
최고높이	약36m	관찰지점 방향의 폭	50m	주요색상	하늘색 밝은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과거 린나이 사옥으로 지어져 호텔사용 목적으로 증축 공사도중 2014년에 중단되어 약 5년간 경매로 주인을 찾다가 현재 낙찰되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동교동 삼거리에 위치하여 홍대에서 신촌으로 넘어갈 때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다. 따라서 양화로에서 동쪽 방면의 핵심적인 경관자원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사루비아 빌딩

전경사진

20m	40m	60m
	-	
80m	100m	120m
		-

44. 수원화성박물관 개요

경관자원명	수원 화성 박물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주요용도	문화시설
최고높이	약 9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약 15m	주요색상	어두운 회색과 연두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2008년에 준공하여 2009년 4월 27일 수원 화성을 주제로 개관한 역사박물관이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을 보다 효과적이고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시대 정조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야외전시실에는 거중기 등 화성 축성에 사용된 도구들이 전시되고 있다. 정조 대왕의 태실을 복원하여 전시하며 야외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박물관 1층은 기획 전시실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며, 정도 시대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2층 화성축성실에서는 국내 성과 해외의 성을 축성하는 방법을 서로 비교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정조의 문집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정조의 정치적 목표와 개혁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화성박물관은 수원신도시 건설과 화성을 축성한 정조의 사상과 정신을 포함하여 화성 축성에 참여한 인물, 화성에 주둔했던 장용영군사, 그리고 정조의 8일간의 화성행차를 통해 각종 문화행사를 모형과 유물을 통하여 전시하고 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수원 화성 박물관은 주변의 역사시설과 현대 도시의 모습을 조화롭게 푼 디자인으로 약간의 이질적인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등 수원 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로써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원 화성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 하고 있다. 화성행궁으로부터 동쪽으로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수원 행궁의 관람객을 동쪽의 상업 시설로 이끌어 가는 중간 지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수원 화성 박물관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

45. 양천문화회관 개요

경관자원명	양천문화회관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주요용도	문화센터
최고높이	5층 규모 (약 2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측면 (50m)	주요색상	노출콘크리트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 양천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회교육 공간이다. 1998년 2월 27일 양천구민회관으로 개관하였고, 후에 양천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축총면적은 1만 2,560㎡ 로, 지상 3층의 원통형 공연동과 지상 5층의 길고 좁다란 형태의 문화동 그리고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동에는 뮤지컬·음악회 등의 대형 무대예술공연이 열리는 대극장과 소규모 발표회와 음악회, 각종 세미나를 열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으로 활용되는 해바라기홀, 매점, 쉼터가 있다. 문화동은 회화·사진·공예작품 등의 전시회가 열리는 전시실과 각종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양천구평생학습센터, 양천문화원, 이벤트홀, 강의실 및 도서방으로 꾸며졌다.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뷔페음식점, 사진관, 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신정동 322)에 있다. 출처: 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양천문화회관은 양천구민들의 문화생활영위에 그 의의가 있다. 양천 문화회관에서는 2000원 정도로 영화관람이 가능하며, 대관을 통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 등 기타 여러 용도로 활용 되는 복합적 공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양천문화회관

전경사진

출처 : korean.visitkorea.or.kr

20m	40m	60m
80m	100m	120m

[표 2] 경관자원(조형물) 목록(9건)

구분	경관자원명	위치	주요용도	최고높이	관찰지점 폭	주요색상
1	88서울올림픽	서울 송파구	조형물	27m	26m	적색
2	가상의 구	서울 송파구	조형물	24m	17m	적색, 청색
3	세계평화의 문	서울 송파구	조형물	24m	77m	회색
4	세종대왕동상	서울 종로구	동상	6.2m	4.3m	황금색
				6.2m	20m	회색,동색
				10.2m	75m	금동색
5	양천공원	서울 양천구	공원	-	정면	초록색, 빨간색(무대)
6	올림픽운동조형물	서울 송파구	조형물	6.5m	79m	회색
7	이순신 동상	서울 종로구	동상	17m	3m	청동색
				17m	-	청동색
8	청계광장 스프링	서울 종로구	설치 미술작품	20m	-	파랑,빨강
9	파리공원	서울 양천구	공원	1m	정면	초록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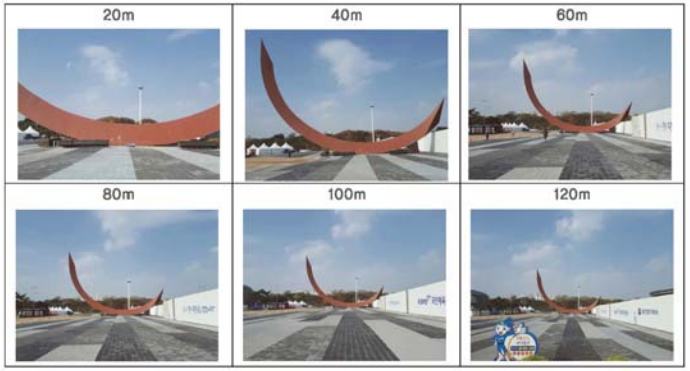
1. 88서울올림픽 개요

경관자원명	88서울올림픽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주요용도	조형물
최고높이	27m	관찰지점 방향의 폭	26m	주요색상	적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올림픽선수촌 입구의 대로로 연결되는 중앙 광장의 넓은 공간을 한껏 이용한 작품이다. 두 팔을 올리며 열광하고 있는 단 뒤의 선수들을 생각나게 하고 올라가는 동작의 한국 올림픽 심볼, 아치 숲, 둥근 지붕은 하늘을 형태적으로 비유하였다. 1987년 제작하였으며, 재질은 콘크리트이고 제작자는 이탈리아의 마우로 스타치올리이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이고, 높으면서도 낮으며, 곡선이면서도 직선인 열린 형태가 움직임과 정지 사이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누군가 가슴을 편 채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동작의 완벽성과 창조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한다. 올림픽 선수들의 뛰어오르는 동작이 떠오른다. 한편 하늘을 배경으로 광활한 벌판에 있는 아치 형태의 숲이나 둥근 지붕의 건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가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상기시키는 형태이다. 작품의 주개념과 그것의 물리적, 촉각적 감각을 융화시켰다. 건물들의 만곡과 벌판의 광활함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였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88서울올림픽

전경사진



2. 가상의 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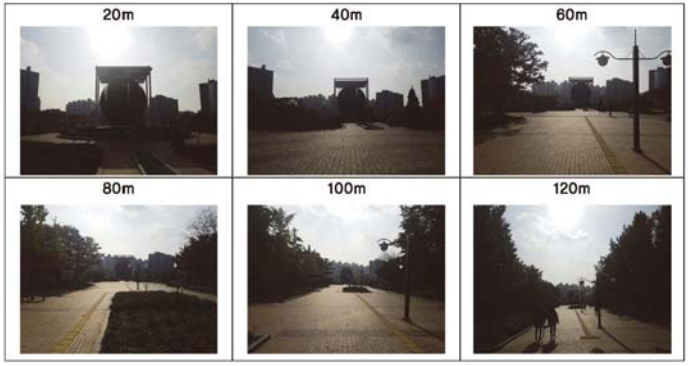
경관자원명	가상의 구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주요용도	조형물
최고높이	24m	관찰지점 방향의 폭	17m	주요색상	적색, 청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가상의 구가 설치되어있는 장미원은 고대올림픽과 근대올림픽의 만남을 주제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12신의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조성되었으며 화단은 12개로 나누고 올림푸스 산에 사는 열두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1988년에 제작되었으며,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작가는 베네수엘라의 헤수소 라파엘 소토이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태극형태의 구는 고정된 형상이 아닌 아름다운 음악소리도 내며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있습니다. 태극형태의 구는 고정된 형상이 아닌 가상의 것으로, 시간 속에서 형상이 조성되고 또 변화하는데, 이런 움직이는 조각 작품을 키네틱 아트(kinetic art)라고 한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료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그리고 관람자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이 재료들의 시각적 효과는 공간예술인 조각을 시공예술로 전이시킨다. 재료의 특성과 구성 방식을 통해 시네티즘(cinetism 움직임의 표현)을 추구하는 작가는 빨강색과 파랑색을 이용하여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에 경의를 표현하였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가상의 구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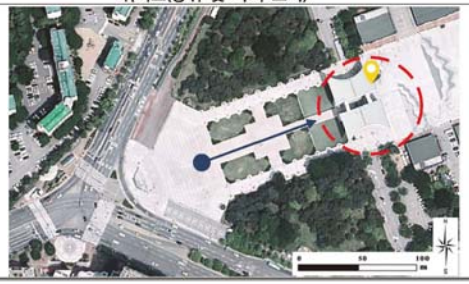
(카메라 역광이 너무 심해 실제 관찰 시 모습과 다르게 보여 올림픽공원 사이트에 있는 사진 첨부하였음)



3. 세계평화의 문 개요

경관자원명	세계평화의 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 올림픽공원			주요용도	조형물
최고높이	24m	관찰지점 방향의 폭	77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1987년 1월 서울특별시 주관 하에 4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1988년 9월 12일, 1년 8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준공식에는 대통령 노태우, IOC위원장 사마란치, 올림픽조직위원장 박세직 등이 참석하였다. 세계평화의 문은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작품이며, 서울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림픽정신을 구상적으로 표현하고,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서울올림픽대회상징조형물로 건립되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의 개념을 도입해 전통·현대건축의 조화를 이루게 한 높이 24m, 지붕길이 62m, 폭 37m의 철근코크리트 구조물이다. 지붕은 두께 0.5mm의 동판으로 제작되었다. 천장은 서양화가이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백금남에 의해, 태극을 상징하는 적·청색의 단청으로 입혀진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이다. 왼쪽 천장에는 동·남을 상징하는 청룡·주작을, 오른쪽 천장에는 북·서를 의미하는 현무·백호가 그려져 비야·상승의 의미를 담았다. 광장은 세계평화의문 주변에 33,600㎡로 조성해 '세계평화의광장'으로 명명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세계평화의 문은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향해 비상하는 날개모양을 형상화하고 올림픽공원 및 후면기념광장(일명 세계평화의 광장)으로 세계인들을 받아들이는 오륜대문으로 구성하였다. –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올림픽 정신을 형상화 – 올림픽을 치르는 오늘의 국민적 의지를 같이 후대에 전승 – 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영구히 기념함 한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한껏 펼친 88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작품은 한민족의 우수성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처마형태의 지붕, 단청의 개념이 도입된 처마, 사신도와 백·청·적색의 색깔을 우리민족이 정서이다. 세계평화의 문 아래 조성되어 있는 연못에 사신도가 투영될 때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우측에 그려진 현무와 주작 좌측에 그려진 청룡과 백호는 고구려 장군총에 그려져 있는 벽화에서 따온 것으로 고려시대에 있어 이 동물들은 천상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각각 동서와 남북을 관장하는 신으로 상징되어 왔다. 전통사상을 표현한 이 문은 우리의 평화사상이 세계평화사상의 모토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세계평화의 문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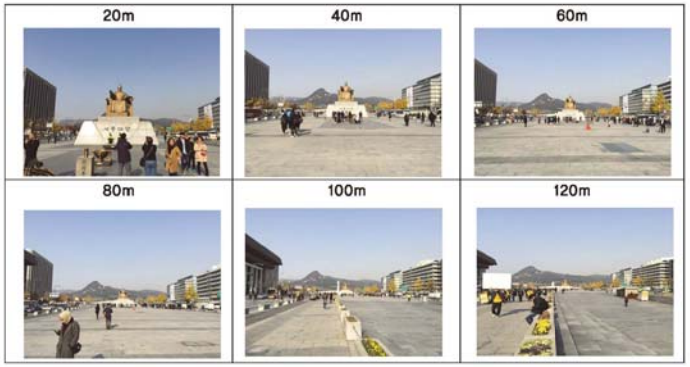
4. 세종대왕동상 개요

경관자원명	세종대왕 동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주요용도	동상
최고높이	10.2m	관찰지점 방향의 폭	11m	주요색상	금동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서울시가 세종로에 광화문 광장을 건설하면서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기로 하고, 온오프라인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여론조사 결과 후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같이 설치 결정을 했다. 서울시 조각 역사 문화분야 등 세종대왕동상 위원회를 권위적 군주가 아닌 백성을 감싸는 온화한 이미지의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동방의 빛, 온 누리의 빛, 창조적 시대정신과 시대적 업적, 하늘땅 사람들, 중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의 김영원교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세종로의 세종대왕 세종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인간세종 공간, 민본사상공간, 한글창제 공간, 과학과 예술 공간, 성군세종 공간, 기획전시 존을 포함해 만들었다. 백성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헌신적인 지도자, 시대의 선구자 세종대왕, 세종대왕 정신으로 2009년 10월 9일 세종로 광화문에 설치되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동상에서 세종대왕은 웅장한 이미지보다는 온화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도록 표현해 백성들과 소통을 중시했던 군주의 이미지를 살렸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어 한글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민족문화를 만들어냈던 대왕의 정신을 표현했다. 동상 하단 기단부 공간은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 대왕의 일대기와 업적, 한글 창제원리를 통한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 벽면으로 조성됐다. 또 동상 전면부에는 세종대왕 주요 과학 발명품인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혼천의 등을 가로 1.0m, 세로 1.1m 의 옅은 인공연못 안에 강화유리상자로 포장, 설치하는 경관조형물을 배치함으로써 대왕의 과학정신을 높이 기렸다. 인공연못은 대왕의 흘러넘치는 높은 덕을 상징한다고 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세종대왕 동상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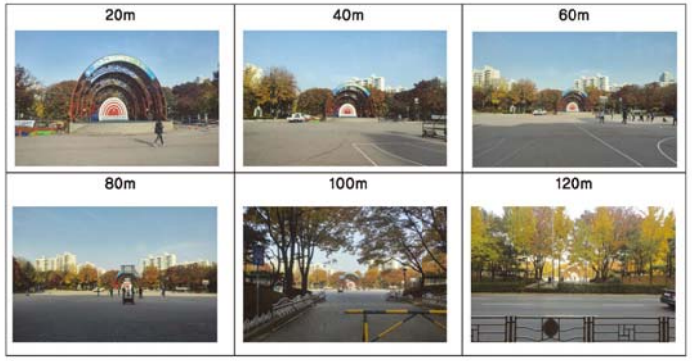
5. 양천공원 개요

경관자원명	양천공원				
주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주요용도	공원
최고높이	1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정면 (13m)	주요색상	초록색/ 빨간색(무대)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과거 목동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건립. 양천근린공원으로도 불린다. 공원 주변은 양천구청·양천경찰서·양천구 구의회 등의 관공서와 업무용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북쪽으로 목동 6단지와 9단지, 남쪽으로 14단지와 13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와 같은 공원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공원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공원 안에는 농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 갖가지 축제와 대형 행사가 열리는 야외 무대와 다목적 광장도 있다. 그밖에 공원 외곽을 도는 우레탄 포장의 740m 조깅 트랙, 목련과 은행나무·소나무가 울창한 수목길과 650m의 산책길, 100m의 지압보도 등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양천구 서부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산책로 등으로 이용 가능한 공원이다. 양천공원에서는 각종 행사(김장철 직거래 장터, 행복한 양천 반려견 문화축제 등)가 열리기도 한다.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각종 행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양천공원

전경사진



6. 올림픽운동조형물 개요

경관자원명	올림픽운동조형물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 올림픽공원			주요용도	조형물
최고높이	6.5m	관찰지점 방향의 폭	79m	주요색상	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작품명은 '서울의 만남'으로 주변에는 높이2.5m의 5개의 구체가 있으며 기단에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임원 뿐 아니라 언론, 방송사로부터 수집한 4,000여 개의 자연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단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온 돌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본 작품은 우리나라 최만린 작가와 스페인의 수비라치 조셉 마리아가 스페인에서 공동 제작했다.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대회의 성공을 기리고 올림픽운동의 영원한 발전을 염원하는 세계인의 뜻을 모아 영광의 현장이 기념비를 세웠다. 화합과 전진의 가치 아래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대회는 체제와 이념, 인종과 종교 등 모든 벽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올림픽운동의 신기원을 열었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각국 선수단, 임원 및 주요 언론사, 그들의 대회 참가를 기념하였다. 조형물의 기단을 이루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돌은 자연적 풍화 현상대로 보존하고 있다. 기단에 위치한 자연석 4,000여 개는 세계인이 서울 올림픽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며, 5개의 구체는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을 뜻하는 것으로 5대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며 중앙의 기념비는 동서화합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 기념비는 동서 화합의 출발을 상징 - 5개 구체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 - 자연석 기단은 세계인들의 서울에서의 만남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올림픽운동조형물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7. 이순신동상 개요

경관자원명	이순신동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주요용도	동상
최고높이	17m	관찰지점 방향의 폭	3m	주요색상	청동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조선 중기의 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충혼을 기리기 위한 동상. 적을 물리친 역사적 승리자의 기념비로서 승전 후 칼을 땅에 짚고 당당히 선 이순신 장군의 수호자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순신 동상은 형상의 사실성보다 인물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가 더 부각된 동상이다. 이순신 동상은 정부 산하단체였던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1968년 4월 27일 건립되었다. 제작은 조각가 김세중이 맡았으며, 기본 재질은 청동이다. 거북선 모형 1개와 북 2개가 주변 조형물로 기단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과 경축문이 남아 있다. 2010년 11월 균열과 훼손의 정비를 위해 동상을 임시로 철거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국가의 심장부로 통하는 광화문 네거리에 위치할 애국선열동상의 인물지정에 관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세종로와 태평로가 뻥 뚫려 있어 남쪽 일본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던 당시 풍수지리학자들의 주장을 배경으로, 세종로 네거리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 국가를 수호하는 지킴이의 의미를 지닐 선열조상의 인물로서 왜적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동상의 조각적 특징은 기념비적 상징성에 있다. 형상의 완전한 사실성보다는 그 인물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바다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라도 하듯이 이순신 장군 동상은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이순신동상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8. 청계광장스프링 개요

경관자원명	청계광장 〈스프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			주요용도	설치미술 작품
최고높이	20m	관찰지점 방향의 폭	6m	주요색상	파랑색 빨강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스프링(Spring)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1가 청계광장에 위치한 설치미술 작품이다. 스웨덴 출신의 미국 팝아티스트 클래스 올덴버그와 그의 부인이자 동료인 구제 반 브르겐의 공동작품이다. 외관은 인도양에서 서식하는 다슬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프링은 높이 20미터이며 지름은 6미터, 총 중량은 9톤에 이른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외관은 구제 반 브르겐이 제안한 것이다.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터널 구조로, 야간에는 내부에서 조명이 켜진다. 조형물 표면에는 요철이 있으며 짙은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내부는 아이보리 색으로 칠해져 있다. 2006년 9월 29일에 열린 준공식에 앞서 클래스 올덴버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청계천에서 샘솟는 물을 표현하기 위해 하단부에 샘을 만들었고 밤에는 조형물 앞에 설치된 사각 연못에 원형 입구가 비쳐 보름달이 뜬 것처럼 보이게 했다." 스프링은 작가에게 지불한 비용 60만 달러를 포함 총 340만 달러(당시 한화 34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전액 KT에서 기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나라에 안좋은 일을 불러오고 있다거나, 한국적인 미를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혹평도 있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풍수적 관점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청계광장의 조형물(스프링)은 수원(水源)의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는 "외국 유명 조각가가 디자인한 조형물이 마치 똬리 모양의 변(便)이 쌓여 있는 모습이어서 청계천을 더럽히는 형세"라며 혹평했다. 이 자리에는 수원을 상징하는 산이나 금생수(金生水·금이 물을 만든다)의 오행원리를 담은 상징물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관자원을 설치할 때는 개별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겠으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해당 위치에 입지하면서 전달하게 될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참고 자료 : 동아닷컴 기사(http://news.donga.com/3/all/20160113/75868592/1)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청계광장 〈스프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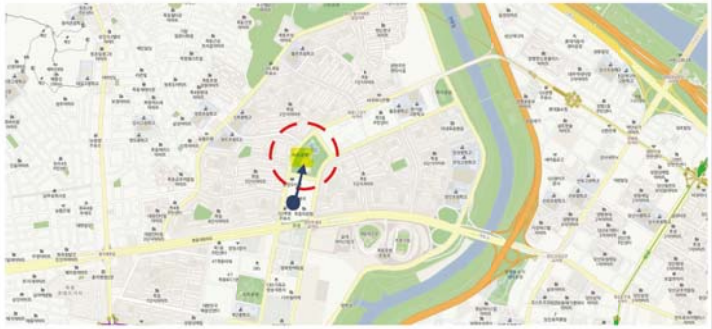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9. 파리공원 개요

경관자원명	파리공원 내부 쉼터 및 무대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63			주요용도	공원
최고높이	6m	관찰지점 방향의 폭	정면 (15m)	주요색상	주황,회색
경관자원의 건축배경 및 역사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7년 7월 1일 문을 연 공원이다. 총면적 29,618㎡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에 수교했는데, 1986년 파리에 서울광장을 세우고 서울에는 파리광장을 세우기로 함에 따라 목동 신시가지 제2근린공원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주요 시설로는 서울광장과 파리광장·한불마당·야외무대광장·연못·분수대 등이 있다. 또 농구대와 게이트볼장·철봉·역기 등 체육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출처: 두산백과				
경관자원의 사회문화적 의의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의의가 있다. 또한 파리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이 열리기도하고, 야외 무대광장에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양천공원이 목동의 서부권을 담당하는 공원이라면, 목동의 동부권을 담당하는 공원이 파리공원이다.				

위치도(방위 및 축척 표시)



경관자원명	파리공원

전경사진

20m	40m	60m
80m	100m	120m

부록 2.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축 관리방안

2 경관축 관리방안

경관축 관리원칙

경관축 관리방안은 통경축, 차폐도 기법을 통한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적용대상은 본 절에서 제시하는 경관축 주변 지역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경관축 기준선의 필요성과 설정 원칙

○ 경관축 기준선의 필요성

- 시가지 경관권역 내 경관축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구역은 경관축 기준선으로부터 일정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경관축은 그 축이 하천, 도로, 공원 등에 따라 기준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 경관축 기준선의 설정 원칙

- 각 경관축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관축 인접부지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 경관축 기준선은 경관축 형상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경관축 기준선 설정기준 검토

○ 대안 설정

- 대안 1 : 경관축 중심선을 기준
- 대안 2 : 경관축 핵심요소(하천, 공원, 도로) 양단을 기준(지목 또는 도시계획)
- 대안 3 : 경관축(하천, 도로, 공원 등)에 공공용지가 연접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양단 경계선을 기준

○ 경관축 기준선의 적용방안

- 경관축 핵심요소가 공원이나 도로인 경우 대안 2를 우선 검토하고, 하천인 경우 대안 3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경관축 기준선은 경관위원회가 또는 전주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부지의 여건을 고려해 위의 대안을 참고하여 세부 설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표 8-3〉 경관축 기준선 산정기준 대안 검토

구 분	내 용	장 점	단 점	경관축 기준선 우선 검토 대안		
				하 천	도 로	공 원
대안 1	• 경관축 핵심요소(하천, 공원, 도로 등)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지목 또는 도시계획)	•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가능 • 구적용이	• 경관축의 폭원에 따라 경관관리 적용범위가 차이 발생 • 비정형 우려			
대안 2	• 경관축 핵심요소(하천, 공원, 도로 등) 양단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지목 또는 도시계획)	•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가능 • 구적용이	• 해당 필지와 인접하여 도시계획도로, 제방 등 부지가 있을 경우 형평성 논란 우려 • 비정형 우려		○	○
대안 3	• 경관축 핵심요소(하천, 공원, 도로 등)에 제방,도로 등 공공용지가 연접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양단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가능 • 정형화 가능	• 경관관리 적용범위가 최대화됨	○		

경관축 관리구역의 설정

○ 기본원칙

- 시가지 경관권역에서 통경축, 차폐도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축 주변지역은 경관축 기준선으로부터 200m, 자연경관권역은 500m로 기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부지별 적용대상 여부는 아래의 표의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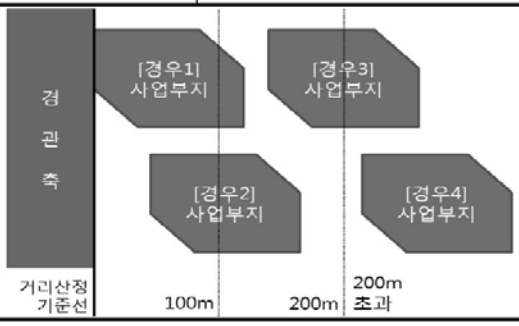
- 사업부지 양단에서 당해 경관축을 향해 평행한 두 개의 가상선을 그어 두 선 사이 중 사업부지가 아닌 부분은 통경축, 차폐도 산정 시 없는 것으로 가정하되, 실질적인 통경축, 개방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여 반영한다.

○ 세부원칙

- 경관축에 직접적으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연접되어 있지 않으나 200m이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경관위원회가 판단하거나, 향후 특정경관계획 또는 전주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경관축으로부터 200m이상 이격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단, 시장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표 8-4〉 경관축 관리구역 적용대상 여부 검토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내 용	• 경관축에 접하는 경우	• 경관축에 접하지 않고, 100m 선에 걸치는 경우	• 100m선에 접하지 않고, 200m 선에 걸치는 경우	• 경관축에 접하지 않고, 200m 선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여부	• 적 용	• 적용(경관축과 사업부지 사이 부분은 없다고 가정)	• 경관위원회에서 적용 여부 결정(적용시 경관축과 사업부지사이 부분은 없다고 가정)	• 적용하지 않음(단, 시장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함) (적용 시 경관축과사업 부지 사이 부분은 없다고 가정)
검토사항	• 사업부지가 비정형일 경우 경관축과 사업부지 사이를 검토하여 실제적인 개방성 확대, 통경축 조성이 가능하도록 권장	• 관련 규정 적용 시, 경관축과 사업부지 사이를 검토하여 실제적인 개방성 확대, 통경축 조성이 가능하도록 반영 검토		
		• 경관위원회가 우선 검토하도록 하되, 향후 특정경관계획 또는 전주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사업부지 예시도				

통경축을 통한 관리

기본원칙

- 통경축은 조망경관을 향상하고 시가지의 개방감을 확대하며, 바람길 형성 등 도시 미기후 형성에 기여한다.
- 당해 부지에 적용되는 통경축은 당해 경관축에 대해 직각방향(±30°)을 유지하되, 주변지역 시가지의 도로망 패턴 등 도시형태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부지의 한 부분과 경관축 기준선 사이에 사업부지가 아닌 곳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경관축 기준선이 직선이 아닌 경우 통경축은 근사한 가상 직선을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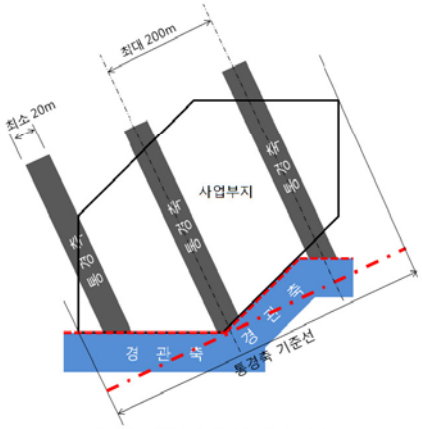
적용기준 예시

- 통경축은 경관축 기준선을 따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 200m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은 최소 20m이상으로 하되, 경관위원회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통경축이 관통할 수 있는 필로티공간은 지면에서 3개층 이상 또는 10m이상으로 하되, 경관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있다.
- 당해 사업부지의 경관축 기준선의 연장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경관축과 교차하는 최소 1개이상의 통경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관축 기준선의 연장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2개소 이상, 400m를 초과하는 경우 3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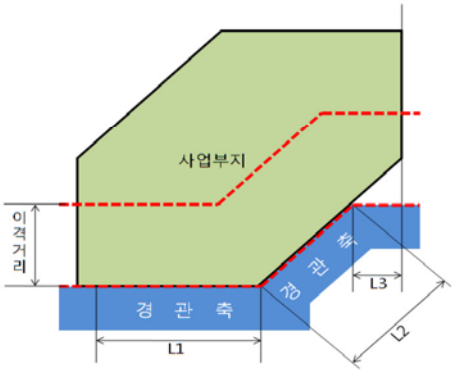
차폐도를 통한 관리

기본원칙 및 공식

- 차폐도는 경관축으로부터의 조망경관 향상 및 시가지의 개방감 확대를 위해 적용한다.
- 차폐도는 경관축에 면한 차폐부분의 합을 당해 부지가 저촉되는 통경축 기준선 길이와 최고 높은 건물의 높이를 곱하여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 차폐도는 전면차폐도와 조망차폐도로 구분한다.
- 경관위원회는 여건을 고려하여 차폐도를 산정할 수 있다.



통경축 기준선과 통경축 설정 예시



인접하는 경관축 기준선의 연장길이=L1+L2+L3

경관축 기준선 연장길이 산정 예시

<그림 8-4> 경관축과 통경축 설정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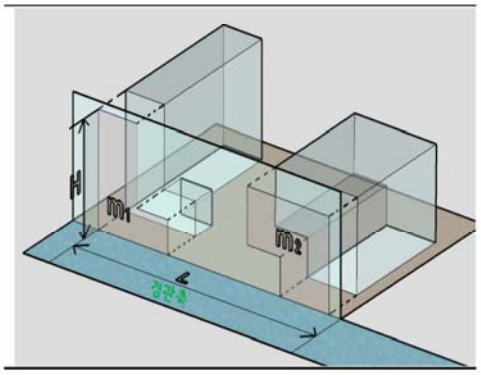
〈표 8-5〉 차폐도 산정공식과 예시도

$$\text{차폐도} = \frac{\sum(m1+m2+\cdots i)}{L\times H}\times 100$$

m = 당해 부분 건축물을 경관축 선상에서 가상 수직면에 수직 투영하였을 경우의 차폐 면적

L = 사업부지 양단부에서 경관축을 향해 긋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

H = 당해부분의 건축물 최고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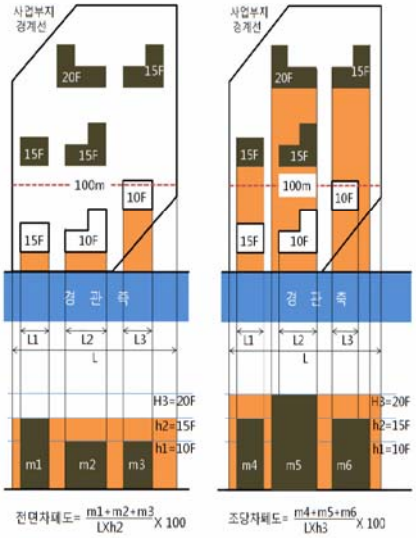
차폐도 산정 예시

○ 전면차폐도의 산정

- 경관축으로부터 전면에 위치한 건축물들에 의해 산정되는 차폐의 정도를 말함

○ 조망차폐도의 산정

- 사업부지내 전체 건축물들에 의해 산정되는 차폐의 정도를 말함



〈그림 8-5〉 전면차폐도와 조망차폐도 예시도

〈표 8-6〉 차폐도 적용 기준 예시(※ 경관축으로부터 조망경관 향상, 개방감 확대, 미기후 형성을 위해 전면차폐도와 조망차폐도를 모두 적용한다)

구 분	개념	기 대 효 과	차 폐 도
전면차폐도	경관축으로부터 첫 번째 열 건축물(동)에 의해 차폐되는 정도	• 경관축으로부터 사업부지 조망경관을 향상, 개방감확대, 미기후 형성을 위해 전면부의 기여도 강화	50% 이하
조망차폐도	경관축으로부터 당해 사업부지 전체 건축물에 의해 차폐되는 정도	• 경관축으로부터 사업부지 조망경관을 향상, 개방감 확대, 미기후 형성을 전체 부지에 대한 차폐도로 적용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2008.4)의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환경기준' 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므로 이를 적용함	60% 이하

3 조망축 관리방안

조망축 관리원칙

조망축 관리방안은 뷰 콘, 뷰 코리더, 뷰 플레인, 최대 가시높이 설정공식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조망축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8-7〉 뷰 콘, 뷰 코리더, 뷰 플레인 관리방안

구 분	개 념	내 용	관리방안
뷰 콘	조망 경관에 있어 주요 대상이 되는 곳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망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통제하는 경관관리방법	• 조망대상에 대하여 다수의 조망점을 선정. • 뷰 콘의 길이를 시 경계까지 연장하며, 조망점은 인간의 눈높이를 더한 표고 값으로 지정	• 조망축 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고도규제 • 조망축 상의 가시성을 고려한 가로수 식재 및 가로시설물의 전선지중화를 통한 가시성 증진 • 수변공간의 경관 조성 및 조화로운 경관 형성
뷰 코리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주요 조망대상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망대상 사이의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경관관리방법	• 도로, 하천, 산책로 등 시각적으로 개방된 곳을 중심으로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대상지의 높이와 시각회랑의 끝지점을 연결한 후, 연결한 선 이상으로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조망축 상의 가시성을 고려한 가로 시설물의 설치 • 시각회랑을 형성하기 위한 가로변 정비 • 축 상의 건물들에 대한 고도 및 형태 규제 • 식재 및 가로시설물 재배치 • 미개발부지에 대한 고도규제 및 유도 방안 마련 • 전망공간 마련과 시스템구축을 통한 조망점 정비
뷰 플레인	산의 파노라믹 경관이나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같이 선적인 형태로 조망하는 조망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각에 의한 사선을 이용하여 그 범위에 포함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경관관리방법	• 조망대상은 주로 산과 같은 파노라믹 경관이나 도시의 스카이라인 • 조망점은 공공성과 개방성이 좋은 도시 공원 및 주요 공공장소. • 양각에 의한 사선을 이용하여 단계별 최고높이 한도 설정 • 정해진 수평거리에 대해 수직으로 상승하는 비율에 의하여 뷰 플레인을 형성 • 조망확보의 건축물 높이 = (시점상 표고 + 시점상으로부터 계획지까지의 거리 x $\tan\theta$) −(계획지의 지반표고)	• 조망축 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고도 규제 • 조망축 상의 가시성을 고려한 건물 건축 및 가로시설물의 설치 • 축 상의 건물들에 대한 고도 및 형태 규제 • 미개발부지에 대한 고도규제 및 유도 방안 마련

뷰 콘 사례(전북도청사 - 화산체육관 앞 광장)

〈표 8-7〉 뷰 콘 사례(전북도청사 – 화산체육관 앞 광장)

화산체육관 앞 광장 ➜ 전북도청사		
위치		• 조망축 시점 : 화산체육관 앞 광장 • 조망축 종점 : 전북도청사 • 조망축 길이 : 약 1.35km • 조망축 선정 : – 화산로 변에 위치한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은 서로 인접하여 있으며 화산공원 입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성이 뛰어남 – 비교적 표고가 높은 지점이므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시각적 개방감이 탁월하고 사방으로 다양한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여 조망점으로서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함
조망 현황 및 과제	조망대상	• 현황 – 현재 벽천공사로 진입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다소 부족했던 접근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전북도청사를 비롯한 모악산, 천잠산 등의 주변 산지에 대한 가시성이 탁월함 – 빙상경기장과 화산체육관 시설의 규모 및 활용성에 비하여 이용도가 적으며 보행자들의 이용이 적어 조망공간으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과제 –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의 화산지구 내에 형성되는 시곡면상에 위치한 상업건물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보행자들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진입로 정비와 다양한 전망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한 전망공간 조성이 필요함
관리 방안	• 관리기법 : 뷰 콘 방식 • 관리수단 : 조망범위 내의 상업시설들의 옥외광고물 규제, 주거 및 상업건물들의 옥상 시설물 및 광고물에 대한 규제 조망축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배치 및 유형 관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뷰 코리더 사례(전북도청사 - 문학대공원)

〈표 8-8〉 뷰 코리더 사례(전북도청사 – 문학대공원)

문학대공원 ➜ 전북도청사			
위치			• 조망축 시점 : 문학대공원 • 조망축 종점 : 전북도청사 • 조망축 길이 : 약 0.88km • 조망축 선정 : – 조망점인 문학대공원은 2008년 7월에 완공된 서부신시가지 내의 근린공원으로 약6만㎡ 부지에 각종 운동시설과 산책로 등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공공성 및 활용도가 뛰어남 – 대공간부지의 차후 개발로 인하여 도청사에 대한 조망차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조망 현황 및 과제	조망대상		• 현황 – 일부 가로수와 가로등이 전북도청사를 조망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함 – 양측에 들어서있는 아파트들의 위요경관으로 인하여 비스타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차후에 개발 시, 전북도청사에 대한 경관을 차폐할 우려가 있음 – 조망공간으로서의 공원은 각종 운동 · 오락 · 휴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활용도 및 이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과제 – 가로수와 가로등의 위치 조절 등을 통하여 도청사에 대한 시야 확보가 요구됨 – 조망점 기능을 위한 홍보시설 및 시스템 등의 구비로 전북도청사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결정 및 개발 시 전북도청사에 대한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규제 및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
관리 방안	• 관리기법 : 뷰 코리더 방식 • 관리수단 : 식재 및 가로시설물 재배치, 미개발부지에 대한 고도규제 및 유도방안 마련, 전망공간 마련과 시스템구축을 통한 조망점 정비		

뷰 플레인 사례(한옥마을 - 오목대)

〈표 8-9〉 뷰 플레인 사례(한옥마을 – 오목대)

한옥마을 ➜ 오목대			
위치			• 조망축 시점 : 오목대 • 조망축 종점 : 한옥마을 • 조망축 선정 : – 소망점인 오목대는 경기전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거리에 언덕배기에 있으며 둘레에 토성의 흔적이 있다. – 또한, 태조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잔치를 벌였다는 곳으로 고종 친필의 '태조 고황제주필유지' 비와 비석이 있다.
조망 현황 및 과제	조망대상		• 현황 – 전주시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전통한옥마을은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주민들과 외국인에게도 전주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 – 하지만 도심 내 개발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부 건축물들이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전통한옥마을의 조망의 방해를 불러오고 있다. – 대부분이 저층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지역의 일부 고층건축물로 인한 일부지역의 차폐를 발생시키고 있다. • 과제 – 구역차원에서 경관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도시차원의 조망대상, 조망점 등을 설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조망축을 형성함 – 전통한옥마을의 주요 진입로와 조망이 가능한 지점 중에서도 접근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조망지점으로 선정하고 조망공간으로 선정함
관리 방안	• 관리기법 : 뷰 플레인 방식 • 관리수단 : 전망공간 마련과 시스템구축을 통한 조망점 정비		

최대 가시높이 식을 통한 관리

최대 가시높이 설정공식

- 최대 가시높이 : 조망점에서 대상이 조망될 수 있는 최대 높이, H
- 사람이 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의 수평 표고 높이 : α
- 최대가시높이의 수평높이 : β
- 사람의 눈높이 : 1.6m
- 조망대상의 임의 지점에서 사람이 보는 지점의 길이 : a
- 사람의 눈높이에서 조망대상을 바라 볼 수 있는 최대 각 : θ
- 최대 가시높이 설정도
- $\tan\theta = \frac{x}{a}$, $x = a\tan\theta$
- $H = (x+1.6)-(\beta-\alpha)$

  $= x+1.6-\beta+\al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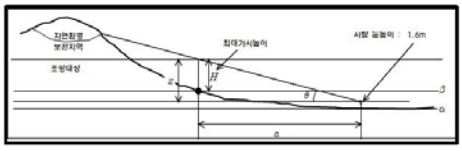
$\therefore\ H = (\alpha-\beta)+x+1.6$

여기서 $(\alpha-\beta)$는 각 표고차

Hi 높이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if $H \geq Hi$ → 조망대상을 볼 수 있음

if $H < Hi$ → 조망대상을 볼 수 없음



<그림 8-11> 최대 가시높이 설정 예시도

최대 가시높이 설정공식 관리대상

- 모악산 조망축
  - 전주천-삼천 합수부, 우림교, 전주시청 4층 휴게소, 덕진호수 전망대, 도청 앞 광장, 화산체육관 광장, 월드컵경기장 광장
- 월드컵 경기장 조망축
  - 전주 I.C 진입부, 장동유통단지 진입부, 기지제 제방 상단, 월드컵경기장 동측 사거리, 구주 1길 동산
- 풍남문 조망축 : 초록바위
- 전북도청 조망축 : 진입로(전주대 입구 사거리), 화산체육관 앞 광장

조망축 관리의 종합

조망축 관리수법 정리

<표 8-10> 조망점 별 관리수법

조망축	조망점	관리수법	
모악산	전주천-삼천 합수부	뷰 콘	최대가시 높이 설정공식
	우림교	뷰 콘	
	전주시청 4층 휴게소	뷰 콘	
	덕진호수 전망대	뷰 콘	
	도청 앞 광장	뷰 콘	
	화산체육관 앞 광장	뷰 콘	
	월드컵경기장 광장	뷰 콘	
월드컵 경기장	전주 I.C 진입부	뷰 콘	최대가시 높이 설정공식
	장동유통단지 진입부	뷰 콘	
	기지제 제방 상단	뷰 콘	
	월드컵경기장 동측 사거리	뷰 콘	
	구주 1길 동산	뷰 콘	
풍남문	걷고싶은거리 입구 (객사 옆)	뷰 코리더	·
	초록바위	뷰 콘	최대가시 높이 설정공식
	경기전 입구	뷰 코리더	·
전북 도청	진입로(전주대 입구 사거리)	뷰 콘	최대가시 높이 설정공식
	화산체육과 앞 광장	뷰 콘	
	문학 대공원	뷰 코리더	·
한옥 마을	풍남문	뷰 코리더	
	남천교	뷰 코리더	·
	오목대	뷰 플레인	·
	기린로 변 태조로 입구	뷰 플레인	·